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해체가족 위기여자청소년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핍욕구 해결
프로그램 개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고 민 좌

2017년 2월



The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Deficiency Need Resolving Program for The Female Adolescent in Disorganized Family

Min-Jwa Ko

(Supervised by Professor Hye-sook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Science

February 2017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해체가족 위기여자청소년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핍욕구 해결
프로그램 개발 연구

지도교수 김 혜 숙

고 민 좌

이 논문을 이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2월

고 민 좌의 이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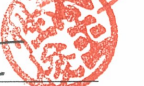
김 진 영



위

원

김 성 준



위

원

박 차 상



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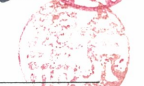
고 보 신



위

원

김 혜 숙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6년 12월



목 차

목 차	ii
표 목 차	iv
그림목차	vi
국문초록	vii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5
3. 용어 정의	6
4. 연구 방법	7
II. 이론적 배경	11
1. 해체가족	11
2. 위기여자청소년	18
3. 불안정 성인애착	40
4. 결핍육구	56
III. 프로그램 개발	63
1. 프로그램 개발절차	63
2.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67
3.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84
IV. 프로그램 효과 검증	104
1.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104
2. 분석결과	111
V. 논의 및 결론	132
1. 요약 및 결론	132

2. 연구의 논의	136
3. 한계 및 제언	141
참고 문헌	144
Abstract	156
부록	159

표 목 차

<표 II-1> 위기청소년의 위기로인 구분	19
<표 II-2> 가출청소년 유형화	28
<표 II-3> 가출청소년의 가정복귀 가능성 지표	36
<표 II-4> 청소년쉼터의 종류	38
<표 III-1> 프로그램 개발 모형	64
<표 III-2> 연구절차	65
<표 III-3> 사례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9
<표 III-4> 가출 이유	70
<표 III-5> 가출 후의 삶	71
<표 III-6> 동거남과의 만남	72
<표 III-7> 삶에 대한 태도	74
<표 III-8> 원가족과의 관계	76
<표 III-9> 프로그램 구성	85
<표 III-10> 프로그램 개요	85
<표 III-11> 1회기 예비프로그램 소감 및 평가	88
<표 III-12> 2회기 예비프로그램 소감 및 평가	88
<표 III-13> 3회기 예비프로그램 소감 및 평가	89
<표 III-14> 4회기 예비프로그램 소감 및 평가	89
<표 III-15> 5회기 예비프로그램 소감 및 평가	90
<표 III-16> 6회기 예비프로그램 소감 및 평가	90
<표 III-17> 7회기 예비프로그램 소감 및 평가	91
<표 III-18> 8회기 예비프로그램 소감 및 평가	91
<표 III-19> 9회기 예비프로그램 소감 및 평가	92
<표 III-20> 10회기 예비프로그램 소감 및 평가	92
<표 III-21> 1회기 프로그램 운영방법	93
<표 III-22> 2회기 프로그램 운영방법	94
<표 III-23> 3회기 프로그램 운영방법	95

<표 III-24> 4회기 프로그램 운영방법	96
<표 III-25> 5회기 프로그램 운영방법	97
<표 III-26> 6회기 프로그램 운영방법	98
<표 III-27> 7회기 프로그램 운영방법	99
<표 III-28> 8회기 프로그램 운영방법	100
<표 III-29> 9회기 프로그램 운영방법	101
<표 III-30> 10회기 프로그램 운영방법	102
<표 IV-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05
<표 IV-2> 연구대상자의 가족 배경	105
<표 IV-3> 연구설계	106
<표 IV-4> 자아존중감 문항구성	107
<표 IV-5> 자아존중감 척도	107
<표 IV-6> 불안애착척도 문항구성	108
<표 IV-7> 회피애착척도 문항구성	109
<표 IV-8> ECRR-K 불안애착·회피애착척도	110
<표 VI-9> 자아존중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111
<표 VI-10> 실험·통제집단간 자아존중감의 공변량 분석	112
<표 IV-11> 성인애착의 평균과 표준편차	112
<표 IV-12> 실험·통제집단간 불안애착의 공변량 분석	113
<표 IV-13> 실험·통제집단간 회피애착의 공변량 분석	114

그림 목 차

<그림 1> 모성박탈의 발달경로	42
<그림 2> 애착유형의 발전	46
<그림 3> Bartholomew와 Horowitz의 4범주 모델	51
<그림 4> Maslow의 동기 위계구조	58
<그림 5> 사례연구 결과	82
<그림 6> 프로그램의 구성 요인	83

<국문초록>

해체가족 위기여자청소년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핍욕구 해결
프로그램 개발 연구

고 민 좌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지도교수 김 혜 숙

이 연구는 해체가족 위기여자청소년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핍욕구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해체가족 위기여자청소년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핍욕구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2. 해체가족 위기여자청소년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핍욕구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는가?

2-1. 위기여자청소년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핍욕구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은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주는가?

2-2. 위기여자청소년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핍욕구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은 불안 애착과 회피애착에 영향을 주는가?

2-3. 위기여자청소년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핍욕구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은 인식

과 태도변화에 영향을 주는가?

해체가족 위기여자청소년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핍욕구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과정으로 국내·외 논문 및 자료들의 문헌고찰을 통해 이론적 기초를 구성하고 내용선정을 위해 위기여성들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안을 도출하였으며 상위 2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10회기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합성 검토 및 수정·보완을 거친 후 최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은 위기여자청소년이다. 그들은 모두 해체가족이라는 가정배경을 가졌으며 참여자들의 연령은 17세에서 24세까지로 중기와 후기 청소년이다. 프로그램 구성원 수는 10명으로 5명씩 총 2회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각 1회차는 1일 2회기씩 진행되어 일주일간 총 10회기가 진행되었다.

연구도구는 한국가이던스에서 사용하는 10문항 자아존중감척도와 Brennan 등이 개발한 성인애착척도(ECRR)를 김성현이 변안, 수정한 성인애착척도(ECRR-K)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성인애착척도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평균을 구하였고 사후검사의 효과가 유의미한지를 알기 위해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은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사후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의 효과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불안애착은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사후 평균이 낮았으며, 프로그램의 효과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회피애착은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사후 평균이 낮았으나 프로그램의 효과에 있어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이 프로그램은 결핍욕구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성인애착에 있어서는 불안애착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회피애착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

또한 실험집단 참가자들의 프로그램 종료 후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을 통한 참가자들의 인식변화를 알아본 결과 인식과 태도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체가족 위기여자청소년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핍욕구 해결을 위한 프로

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불안정 성인애착 해결과 결핍욕구 해결을 상위 2가지 영역으로 총 10회기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해체가족 위기여자청소년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핍욕구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불안애착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셋째,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핍욕구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은 인식변화에 모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프로그램 종료 뒤 4주가 지난 후 지연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태도상의 변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해체가족 위기여자청소년들에게 성인애착 중 불안애착 감소와 결핍욕구 해결에 효과가 있었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위기(Crisis)는 곧 기회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위기가 위험과 기회가 함께 공존하는 의미라면 생태학적인 조건들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위기 속의 사람들 중에는 어떠한 기회조차 없는 자원이 빈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 위기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최근 가출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비행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윤철경, 2006; 전학열, 2011, 지승희 외, 2006).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8조)을 통해서도 위기청소년의 정의를 찾아볼 수 있는데, 비행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가출청소년 등이 포함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위기청소년들 중 위기여자청소년들은 가장 심각한 위기 속의 대상자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위기여자청소년들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요인 등이 한꺼번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즉 1차적인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고, 둘째, 그들이 청소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보호자, 특히 친권자들의 권리에 반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미성년자’들이라는 것이다. 예로 <근로기준법> 제 66조(연소자 증명서)에는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고 명시되어 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 이로 인해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경제활동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 중에서도 ‘여성’이라는 성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위기여자청소년들에게 가장 위험한 상황은 성매매로의 유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출은 성매매로의 유입에 1차원인 행동차원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가

출이 일시적으로 끝이 나 가정으로 복귀가 되면 다행이지만 종료되지 않고 가출 후의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경우는 회복하기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위기여자청소년들의 성의 상품화는 궁극적으로 성적인 착취로 이어지며 성병 등 의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배신감을 갖게 된다. 성년이 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강박증 등의 정신적 질환과 죄책감 등을 유발하여 이로 인해 배우자 선택의 과정과 원만한 결혼 생활에도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노혁, 2000).

따라서 위기 속에 놓여 있는 다양한 계층들이 많지만 위기여자청소년들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으나 여러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를 보면 일반청소년의 가출 경험률은 10.2%이지만 위기청소년과 같은 특수집단 청소년의 경우 73%로 보고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1). 또한 한국여성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매춘여성의 91.6%가 가출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경, 1997). 결국 가출은 다른 종류의 위기상황과 접점이면서 또 다른 위기로 확대되는 도화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기여자청소년이라 함은 가출을 포함한 위기로인 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로 가출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가출 청소년들이 가출 후 보호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는 가출청소년쉼터가 있다. 가출청소년쉼터에 입소되어 있는 5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용 청소년의 1/5 정도만이 친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1/3이상은 부모 중 한 사람과 생활하고 있고 약 30%는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살고 있었다. 이처럼 대다수의 쉼터 이용 청소년이 해체가족 출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쉼터 이용 청소년의 가정 경제수준은 조사대상자의 1/4이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며 이용 청소년의 60.9%가 자신의 가족경제 수준이 '하'라고 인식하고 있다. 빈곤이 청소년 가출에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쉼터 이용 청소년들의 가출 이유를 보면, 1순위로 부모 간의 불화, 부모의 폭행, 부모의 지나친 간섭, 부모의 무관심, 부모의 알코올 중독 등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0). 이런

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가출 청소년들은 가족 내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슬로우(Maslow, 2005)는 욕구를 결핍욕구와 성장욕구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결핍욕구는 기본욕구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및 애정의 욕구, 존중의 욕구가 포함이 된다. 그는 기본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사람들을 결핍 동기화된 사람이라고 명명하였는데, 결핍 동기화된 사람은 '타산적'이며, 필요한 것이 더 많고, 더 종속적일 뿐 아니라 바라는 것도 더 많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의존성이 대인 관계를 제한한다고 보았는데 즉 그들은 사람을 볼 때 그 대상을 주로 욕구 충족자나 공급의 원천으로만 보는 것이다. 결핍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사심 없이, 바라는 것 없이 지각하기 어렵고 그 사람을 독립적이며 그 자체로 목적적인 존재, 다시 말해 도구라기보다는 한 사람으로 지각하기가 더욱 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도 나타났듯이 가출청소년들은 결핍 동기화된 사람들로 기본욕구인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및 애정의 욕구, 존중의 욕구가 결핍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기본욕구 중에서도 안전과 소속 및 애정, 존중의 욕구에 대한 결핍은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볼비(Bowlby)는 이별이나 사별을 경험한 아동들의 경우 장기적인 영향으로 청소년기에 신경증이나 비행으로 이어지며 성인이 되어서도 정신질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Holmes, 2008). 즉, 불안정 애착의 결과 청소년 및 성인기에 지나치게 타인 의존적, 자기 의존적, 혹은 강박적 보살핌 등 부적절한 행동양식을 보인다고 하는 것 역시 결핍 동기화된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더욱이 부모애착은 이성 관계에 대한 신념과도 관련되며, 이성 관계에 있어서 만족도와 상호적 문제해결전략 사용과도 관계가 있고 나아가 세대 간 전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Holmes, 2008).

한편, 변혜정(2007)의 사례연구에 의하면 가출한 여자청소년들이 가출을 종결한 이유에 '남자친구'의 존재가 나타나고 있다. 즉 남자친구의 존재가 가출여자청소년들에게 삶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지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그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미래를 상상하며 현재를 다르게 구성해 내

고자 노력한다는 것, 그리고 그 관계가 깨졌을 때 이들의 미래에 대한 상상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남자친구’는 일반청소년들의 이성친구와 분명 다른 의미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남자는 미래를 새롭게 생각해보게 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욕구와 애정을 대신 충족시킬 수 있는 대리인의 의미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남자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꿈꾸어 보고 싶은 욕구에 반해 가출여자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자원들 즉 낮은 자아존중감, 미해결된 기본욕구와 불안정한 애착 태도로 인해 이성과의 관계는 조건적이고 불안정하여 관계가 쉽게 깨어질 수도 있다.

이처럼 위기여자청소년들은 가출 후 뿐만 아니라 가출 전부터 이미 문제 상황에 놓여 있는 대상자들로 가족 안에서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한 그들에게는 늘 결핍욕구와 불안정한 애착의 문제가 따라다닌다. 이러한 문제를 가진 위기여자청소년들은 신뢰를 기본으로 한 대인관계를 잘 맺지 못하여 친밀한 타인을 만나기 어렵다. 그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는 또 다시 타인을 밀어내는 악순환을 만든다. 위기여자청소년들은 이성 관계 역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어려워 성인이 되었을 때 부적절한 배우자를 선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 결과 신뢰성이 부족한 부부관계는 해체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러한 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기여자청소년들이 이성관계를 포함하여 대인관계를 안정적으로 잘 맺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성 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그들의 결핍욕구와 불안정 성인애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핍욕구 해결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 결핍욕구에 대한 해결은 기본욕구에서 다음 단계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결핍욕구 해결을 위해 자신의 가치 체계와 자신의 결핍욕구를 인식하고 또한 결핍욕구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인해 지금의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결핍욕구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그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치는 올라가 자아존중감이 향상된다.

둘째, 불안정 성인애착 문제의 해결을 통해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을 감소시킨다. 불안정 성인애착 문제가 해결이 되면 대인관계, 특히 이성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평등과 불편감을 해소할 수 있다. 불안정 성인애착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의 결핍욕구를 이해하고 부모와의 교정적 감정경험을 통해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을 감소시킨다.

셋째, 인식과 태도상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인식과 태도상의 변화는 가족 안에서 주어진 역할에 따른 삶이 아닌 자신의 가치관대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인식과 태도상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생각해보기-생각의 뿌리찾기-새롭게 생각하기-새로운 생각 씨뿌리기의 순서대로 각각의 주제별로 원인을 파악한다. 다음은 원인에 따른 결과를 확인하며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마련의 작업을 수행하게 한다. 그로 인해 프로그램이 종료되어도 그 효과는 지속되도록 한다.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심리적인 문제보다는 사회 기술적 문제를 다룬 연구들(조규필 외, 2008; 신민향, 2001; 정진희, 2016; 이정자 외, 2011; 손경숙, 2008; 정경은 외, 2008)이 대다수이다. 심리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정문자 외, 2010; 권량희, 2015; 김선관, 2001; 강은숙 외, 2008; 박은민, 2008; 전선영, 2012; 김수정 외, 2007)라 하더라도 대부분 자아존중감 향상, 정서조절, 인권감수성 향상 등의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또한 위기청소년들 중에서도 여자청소년들의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접근한 연구들은 있지만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가 아니며 그나마 성적학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신연희, 2008).

이 연구의 목적은 이성 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를 잘 맺기 위해 해체가족의 위기여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핍욕구의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기청소년들의 요구 문제 해결을 위하여 겉으로 드러난 대인관계 등의 외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기보다 내적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위기여자청소년들이 자신의 심리상태를 인식하도록 시도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2. 연구 문제

해체가족 위기여자청소년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핍욕구의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1. 해체가족 위기여자청소년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핍욕구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2. 해체가족 위기여자청소년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핍욕구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는가?

2-1. 위기여자청소년을 위한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핍욕구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가?

2-2. 위기여자청소년을 위한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핍욕구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이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에 영향을 주는가?

2-3. 위기여자청소년을 위한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핍욕구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은 인식과 태도변화에 영향을 주는가?

3. 용어 정의

1) 해체가족

해체가족이란 이혼, 가출 또는 유기 등에 의해 가족구조가 붕괴된 경우로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장시간 혹은 영구적으로 부재하여 결손된 상태의 가족을 말한다.

2) 위기여자청소년

위기는 가출, 학교 밖, 미혼모, 성매매, 비행 등의 여러 요인 중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의 위기여자청소년들은 해체가족 출신이며 가출 이상의 문제를 가진 17세에서 24세까지의 여자청소년들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3) 가출청소년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의 나이는 24세까지이며 실제로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쉼터의 입소연령은 24세까지로 되어 있다. 또한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도 존재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계속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집밖으로 나온 24세까지의 청소년을 지칭한다.

4) 불안정 성인애착

브레넌(Brennan, 1998)은 성인애착을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으로 두 개의 독립적인 차원으로 나누었는데,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낮을수록 성인애착은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불안정 성인애착은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높은 것을 말한다.

5) 결핍욕구

매슬로우의 위계적 욕구이론에서 결핍욕구는 기본욕구로 생리적 욕구, 안정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존중의 욕구를 말하며 성장욕구는 인지적 욕구, 심미적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말한다. 결핍욕구는 어린 시절 채워져야 할 기본 욕구가 다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기본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우선 요구도 조사를 하고 예비프로그램을 실시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최종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요구도 조사의 대상은 20대 위기여성들로 11사례를 사례면접 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 안을 구성하였으며, 내용 평가를 위해 후기일반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예비프로그램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최종 프로그램의 대상은 위기여자청소년으로
해체가족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중기와 후기에 속하는 17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들이다. 대상자 모집을 위해 제주도 내 가출청소년쉼터의 도움을 얻어 시
설에 입소되어 있거나 퇴소한 청소년을 소개받았다. 최종 프로그램 참여자는 실
험집단 10명과 통제집단 10명으로 구성하였다.

2) 연구 설계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사후 검
사의 변화정도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의 독립변인은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핍욕구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종속변인은 위기여자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불안애착, 회피애착이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자아존중감 척도와 성인애착척도를 사용하였다.

3) 연구 절차

(1)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이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대상자들의 특성을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위기여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양적연구는 많이 있으나 그들을 위한 프
로그램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기여자청소년들의 호소 문제를 좀 더 구
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그들이 처한 위기상황이 종료되지 않고 좀 더 장기화
된 위기여자청소년들의 특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요구도 조사를 통해 위기여자청
소년들의 특성파악을 하고자 11사례의 20대 위기여성들을 선정하였다. 관련 내
용은 III장 2절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에 수록되어 있다.

(2)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요구도 조사를 토대로 프로그램 초안을 만든 후 가족학 전공 교수 1인, 심리학
전공 박사 1인, 10년 이상 경력의 쉼터 현장 전문가 2인으로부터 프로그램 구성
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타당도 평가의 필요성이 있었다. 프로그램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해 후기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과정 과 종료 후 소감 및 평가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 후 프로그램을 완성하여 실험집단 대상자들에게 실시하였다.

(3)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을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1일 2시간씩 2회기를 실시하여 5일간 총 10회기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시작 전 자아존중감척도와 성인애착척도의 사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0회기 종료 후 다시 동일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회기별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과 함께 총 10회기 종료 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 후 4주가 지난 뒤 지연효과 분석을 위해 추수면접을 실시하였다.

4) 자료 분석

(1)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요구도 조사

요구도 조사를 위해 11사례를 섭외하였다. 대상자들과는 1대 1면접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주 설문문의 내용은 크게 동거 선택의 이유, 위기여성들의 삶, 그리고 원가족과의 관계로 나누었다. 동거 선택의 이유에서는 세부적으로 가출이유, 가출 후의 삶, 동거남과의 관계를 알아보았고, 위기여성들의 삶에서는 삶에 대한 태도, 동거남과의 관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원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원가족에 대한 인식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2) 사전·사후 분석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해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들의 신뢰성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구하였고 일반적인 특성을 알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값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

았다. 또한 실험집단의 사전·사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3) 과정 및 지연효과 분석

실험집단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각 회기가 종료될 때마다 수집하고 최종 10회기 종료 후 전반적인 소감을 다시 수집하였다. 과정 분석의 주 초점은 각 회기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되거나 느끼게 된 것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10회기 종료 후 4주간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실험집단에 참여한 대상자들을 1대 1로 만나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 III장, 프로그램 개발과 제 IV장, 프로그램 효과 검증에서 다루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해체가족과 위기여자 청소년을 비롯하여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핍욕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해체가족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의된 가족기능을 살펴보면, 생물학적으로는 가족을 유지하는 일이며, 심리적으로는 가족원 간의 상호의존으로 애정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상호협력·협동에 의한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며, 사회문화적으로는 사회의 도덕이나 관습에 적응하는 일이라 하였다. 또한 가족기능을 하나의 소집단으로서의 가족이 수행하는 역할이라고 하였으며, 사회를 존속시키고 가족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족이 수행하는 활동이나 서비스라 하였다(김건영, 2009). 이처럼 가족이란 개인과 사회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체계로서 가족을 사회의 하위체계로 보면, 가족은 교육, 정치, 종교 체계들과 함께 사회체계의 일부분을 이루며 그들 체계와 상호작용 및 교환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가족을 가족구성원의 상위체계로 보면, 가족은 개인의 발전, 욕구충족, 자아 형성,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여하는 체계가 된다(김건영, 2009).

그럼 체계로서 잘 운영되는 가족이란 어떤 가족인가? 이러한 가족은 주로 기능적 가족 혹은 건강한 가족이라는 용어로 쓰인다. 기능적 가족의 특징을 보면, 첫째, 가족구성원 모두가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에서 행복도가 높고, 서로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켜주며 둘째, 가족구성원의 인격이 존중되고 인정받으며 안정감을 느낀다. 셋째,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며 즐기는 가족이다. 넷째, 활력이 있고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성장과 부부 관계의 성장을 고무하는 가족이다. 다섯째, 가족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외부 상황을 통제·조정할 수 있으며, 가족의 사회성을 고무한다(이원숙 외, 2014).

가족체계내의 가족관계적인 측면을 좀 더 살펴보면,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인간관계로서의 가족관계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화한다. 전통 농경사회에서는 부부

관계, 부자관계, 형제관계 등 모든 가족관계가 지배와 복종이라는 전통적 위계질서에 바탕을 두고 있었으며 가부장제의 가족관계가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사회와 가족관계가 급변하게 되었고 가부장이 갖고 있던 권위와 통제력이 약화되고 가족구성원 간에도 보다 평등하고 우애적인 관계가 대두되었다(양옥경, 2000). 또한 산업화·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이후 가족의 기능이 점차 변화되어 많은 기능들이 사회로 이전되었다. 가족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경제적 기능은 생산위주의 기능을 담당하던 가족이 이제는 소비위주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가족의 재생산 및 성행위 규제 기능은 성행위에 관한 가치관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성행위에 대한 통제 기능은 약화되는 반면, 부부간 성생활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성은 출산을 위한 수단으로의 수동적 의미가 아닌 결혼생활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자녀 양육 및 사회화 기능에 있어서도 자녀 양육은 일찌감치 사회에서 담당하기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며 사회화교육은 급변하는 정보의 소용돌이로 인해 가족은 과거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일관성 있는 사회화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부양 기능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가족 돌봄의 기능이 변화되면서 돌봄 노동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원숙 외, 2014). 그러나 이러한 가족의 도구적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도 계속 남아 있는 기능이 정서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족을 이루려는 동기가 된다.

고민좌 등(2016)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을 형성하고자 하는 동기는 가족배경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고 부부가족이며 소득이 높은 집단의 경우 가족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지만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력이 낮고 한부모 가족이며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는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는 낮았지만 가족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 시절 행복한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한 집단은 현실적으로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 즉, 결혼 이후의 결혼생활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는 낮지만 양육시절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로 인해 가족의 필요성을 더 느낀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학력 여성일수록 결혼을 기피하는 집단의 경우와 달리 저학력이고 저소득 집단의 여성들은 충족되지 못한 가족의 정서적 기능 등으로 가족 형성에 대한 욕구가 강하여 결혼을 실제로 행한다. 그러나 가족을 구성

한다고 해도 유지할만한 자원이 부족하여 가족해체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1) 가족해체와 경제적 문제

가족은 하나의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족 구성원의 스트레스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쳐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현재의 가족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체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커다란 가족 스트레스는 곧 가족을 위기상황에 놓이게 만든다.

가족의 위기상황에서 가족자원은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된다. 가족자원이 풍부한 가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잘 극복하고 가족자원이 빈약한 가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잘 극복하지 못한다. 이러한 가족자원에는 경제적 자원, 가족성원의 건강상태, 가족체계자원, 사회적지지 자원 등이 포함된다(McCubbin & Patterson, 1983; 조성희, 1999에서 재인용).

경제적 자원은 생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본 욕구로 가족의 물질적 욕구를 채워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가족해체의 원인이면서 결과이기도 한 경제적 요인은 한 가지 요인으로 가족해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경제적 요인은 다른 요인과 작용하여 가족해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영향을 주는 강력한 요인이 된다(노혜련, 2000; 도미향, 2006).

가족체계자원은 가족 조직의 내부 자원을 의미하며,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나타난다. 이것은 가족갈등이나 가족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게 하고 바람직한 가족관계와 가족환경을 형성하게 한다(정민자, 1992).

그러나 가족체계자원 역시 경제적 자원의 영향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부부관계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데, 소득상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줄어들게 되면서 부부관계의 질을 낮아지게 한다. 이로 인해 부부사이의 긴장이 증가함으로써 결혼만족도가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을 반복함으로써 부부긴장이 극에 달하게 되면 부부관계는 해체되기 쉽다(Conger & Elder, 1990). 이때 부부사이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주요 경제적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남편을 대신하여 배우자가 새로운 경제적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전통적 성역할은 도전받고 재조정된다. 특히 부부사이의 역할기대

가 전통적일수록 결혼생활상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불일치하게 되어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커진다(Conger & Elder, 1990). 실질적인 예로 IMF이후 실업 및 경제적 문제가 심화되면서 가족관계가 악화 내지 해체되는 사례들이 증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가정폭력피해자 일시보호시설’에 입소자가 IMF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서울시 가정상담소의 여성전용 상담내용에서도 남편의 폭력행사를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동아일보, 1998. 5. 1). 또한 서울 강동구의 경우 1998년 1~2월 동안의 이혼신고가 2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경향신문, 1998. 3. 25) 서울방송의 ‘그것이 알고 싶다’(1998. 3. 8)에서도 실직자 가족해체의 심각성을 방송하였다(조성희, 1999).

가족위기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가족인식이다. 즉, 위기상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하는 것은 사건 자체 보다 이를 바라보는 인식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가족이 지니고 있는 가치체계와 과거 유사한 경험을 하였던 것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여기에 현재 상황을 연계시켜서 앞으로 가족이 해야 할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하였다.

사회복지학 사전에 의하면 가족해체(family disorganization)란 가족집단이 이혼, 가출, 유기 등에 의해 가족구성원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가족구조가 붕괴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가족해체는 넓게는 결속감, 소속감, 충성심, 합의, 가족단위의 정상적 기능 등의 파괴를 의미하고, 협의로는 별거, 이혼, 유기, 사망 등으로 갈등 혼인관계가 파괴되거나 또는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장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부재하여 결손가족이 됨으로써 가족이 구조적, 기능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가족해체는 결과적으로 가족 위기의 방치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이혼건수가 인구 1,000명당 2000년에는 2.5건, 2003년에는 3.4건으로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2015년 현재 2.1건으로 2000년대 들어서는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최근의 이혼율 저하는 이혼숙려기간 의무화 및 이혼 전 상담 등 이혼숙려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하지만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한국의 이혼율은 여전히 높아 2014년에

는 상위 7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동거기간별 이혼율을 살펴보면, 20년 이상 동거 부부의 이혼은 1990년 5.2%였지만 2009년 22.8%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 현재 29.9%이다. 이에 반해 3년 이하 동거 부부의 이혼은 1990년 32.7%였으나 2015년 현재 18.3%까지 감소하였다.

20년 이상 동거 부부의 이혼율 증가원인을 경제적 어려움의 영향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부부간 결속 정도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어주경, 1998; 현경자, 2005; 2008; 2012)은 경제적 어려움이 부부간 상호작용의 질을 저하시켜 부부갈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별거나 이혼에 까지 이르게 하는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동혁(2016)의 연구에서도 남성 고용율의 상승은 다음해의 이혼율에 부적 영향을 주었고 무직인 남편은 다른 사유에 비해 경제문제로 이혼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가족의 특징으로는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한다든지 또는 의견을 경청하는 데 있어 일반 가족에 비해 부부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고 갈등해결능력도 부족하다. 또한 결속력이 약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약하고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협동심이나 노력에 의해 극복하기 보다는 운명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주수길, 2000).

경제적 문제는 부적당한 주거조건, 생활비 지출의 어려움, 돈에 대한 걱정 등 복합적이며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절박한 위기나 부정적 사건보다 더 강한 영향을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며 다른 스트레스적인 사건의 발생 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가족의 역량을 소진시킨다(어주경, 1998).

또한 저소득 가족은 사생활보장의 어려움, 자식에 대한 빈번한 매질, 조기 성경험, 권위주의적 경향, 가족단합이 강조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태도, 가치 및 성격구조는 체념과 무감각, 의타심, 빈약한 자아구조, 순간주의, 사회에 대한 불신 등을 나타낸다(김영모 외, 1992; 주수길, 2000에서 재인용). 저소득가족의 가족응집력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저소득가족은 응집성이 지나치게 낮아 가족의 해체가 염려되는 ‘과잉분리’에 속하는 집단이 중산층에 비해 많았는데, 이것은 빈곤가족의 이혼, 가출, 유기 등의 가족해체 현상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가족학연구회, 1992).

결혼생활에서 부부가 경험하는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 중의 하나는 기본적인 경제 욕구를 해결하지 못할 때 발생하며, 그러한 스트레스는 기혼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여 종종 부부갈등과 폭력적인 갈등 반응을 낳으며 기혼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의 삶에 역기능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경제적 스트레스는 상대적이므로 모든 사회계층의 부부들이 경험할 수 있지만 심리사회적 자원이 부족하여 취약한 저소득층 부부들에게서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현경자, 2008; 2012).

2) 가족해체와 부부갈등

문유진(2006)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이 부모의 부부갈등을 많이 지각할수록 가상(假想)의 부부갈등 상황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부부갈등을 많이 경험했다고 지각한 아동일수록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와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곧 부부갈등에 노출된 아동들은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으며 분노와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부적응적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부의 결혼만족도나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부부갈등이 이혼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김경미, 2009), 자신의 부모가 결혼생활을 행복하게 보냈다고 회상하는 사람들보다 자신의 부모가 결혼생활을 행복하게 보내지 못했다고 회상하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Amato, 1991). 아동기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심리·정서적 양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 양상으로 까지 나타났는데 대부분 만성적인 신체적 증상으로 편두통, 위경련, 불면증, 소화불량, 암 등의 양상이다(고미영, 2004).

가족관계적 측면에서는 가족 전체에 역기능적 모습을 파생시키고 많은 고통과 상처를 끊임없이 양산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선영, 2010). 이것은 곧 가족 내의 부부갈등이 자녀들의 양육기간 동안에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전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태도 및 가정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사이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부모와 자녀사이의 관계에도 이어져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다. 특히 10대들의 경우는 부모와 또래집단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혼란감(feeling of embarrassment)에 대해 취약함을 보이며, 이것은 가족정체감을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성장과정을 거친 아동은 이후 비슷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 가족문제가 전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Dail, 1988; 조성희, 1999에서 재인용).

저소득 가족과 일반 가족의 부부갈등과 인성특성의 비교에 관한 연구(고민좌 외, 2014)를 보면 일반가족 집단은 주로 부부가족이며 초혼(87.7%)이면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유지기간이 정적으로 높아졌다. 이와 반대로 저소득가족 집단은 한부모 가족이 가장 많고 초혼형태가 40.9%로 절반이 되지 않았다. 또한 경제적 수준은 인성특성에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경제적 수준은 부부갈등에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가족형태, 결혼상태, 결혼유지기간과 인성특성, 부부갈등 등은 경제적 수준과 관련이 높다는 것이며 이것은 곧 원가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경제적 상황에 있어서 경제적 수준이 낮으면 학력을 지원해 줄 물리적 지원이 부족하여 학력의 지원이 열악할 것이고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부부갈등 또한 높을 것이다.

부부갈등이 가족해체로 이어지면 이러한 가족환경을 경험한 자녀들은 인성특성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인성특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의 자극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그대로 성인이 되어 자신과 비슷한 동질적인 특성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된다.

자신과 비교해서 결혼 상대방의 소득이 커질수록 동향(同向)결혼 선택확률은 감소한다는 연구(조동혁, 2016)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득이 낮을수록 동향결혼 선택 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세대 간 대물림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

2. 위기여자청소년

1) 위기청소년의 위험요인

위기라는 단어는 어떤 상태의 안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세의 급격한 변화 또는 어떤 사상의 결정적이고도 중대한 단계(두산백과)로 표현한다. 그러나 짧게는 위험한 고비나 시기(국어사전)라고 표현할 수 있다.

맥휘터 등(McWhirter et al., 2004)은 위기를 현재 상황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적절한 개입이 없을 때 미래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정의하였다.

청소년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 주최한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성경험 폭력 가출 학업중단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 고위기군 청소년이 약 42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방치할 경우 심각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결손가정 자녀나 학습부진아 등 중위기군 청소년도 약 126만명으로 추정됐다. 이들을 합한 수는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 인구의 21.3%에 해당한다(한국일보, 2005. 10. 11). 그 후 10년간 청소년 자살률은 57.2%가 증가하여 OECD국가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지금 현재 위기 청소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연합뉴스, 2013, 9. 10).

청소년의 위기수준은 개인적·가족적·교육적·지역 사회적 상황에 위험요소가 많고 복합적일수록 더 높아진다(구본용, 2005). 윤철경 등(2005)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위기상황의 영역을 가족적 위기상황(빈곤, 소년소녀가장, 부모의 이혼, 학대), 교육적 위기상황(학습부진, 학업중단), 개인적 위기상황(가출, 범죄, 자살, 자살시도, 폭력가해, 성매매), 사회적 위기상황(학대, 성폭력 피해, 폭력피해, 범죄 피해, 실업)으로 구분하였다. 청소년 개인은 이러한 위기상황 중 한 가지에 속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한 가지 이상에 처하기 쉽다고 하였다. 이에 구본용(2005)은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과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주의 깊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위기요인에 대한 선행연구(김영란, 2005; 남상인, 2006; 윤철경, 2006,

배주미 외, 2010)들을 보면, 청소년의 위기요인은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 학교, 또래,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존재하며, 위기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위기청소년의 위기요인은 <표 II-1>과 같다.

<표 II-1> 위기청소년의 위기요인 구분

구분	위기요인	
	하위 요인	구체적 내용
개인 요인	비행 관련	성적인 행동 약물사용과 남용, 흡연, 음주 공격성, 충동조절 가출 범죄활동 및 비행행동, 문제행동 조기 시작 반사회적 인지 경향
	정신건강 관련	우울 및 불안 자살생각 및 시도, 충동조절 인터넷 중독 게임 과다
	성격적 요인	낮은 자존감, 자신감 약화 친구에 대한 열등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가족 요인	구조적 요인	이혼 및 재혼 가정 외국인 노동자 및 북한탈출 가족 자녀 소년소녀 가장 및 부모의 결여
	학대, 방임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 정서적 및 실제적 방임
	부모형제	부모가 연루된 범죄행동 부모나 형제의 약물남용
	가족학력	부모 및 형제의 학교중퇴 경력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교육적지지 및 개입 결여, 부모감독의 결여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허용적 태도 지나치게 강압적인 부모양육 태도 거부적인 부모양육 태도
가족관계	가정불화, 가족 간의 낮은 유대감	
학교 및 또래 요인	학업중단 및 학업부진	학업중단 낮은 결석과 지각 학업부진 및 낮은 성적 개별교습의 실패 학교전학
	교사 및 교과과정 요인	교사의 부적절한 준비 및 관련 교과과정의 부족 적절치 않은 지도 방식

		학생의 발달과정에 대한 교사의 낮은 기대치 교사들의 낙인/무관심, 관심 및 지지부족
	학교 또래 요인	학교폭력 또래의 비행여부 또래의 위험행동 수용 집단따돌림
지역 사회 요인	일자리 및 임금수준	가용한 일자리의 질과 양 임금수준 및 실업률
	폭력 및 범죄 노출	폭력피해, 학대피해, 성범죄피해, 범죄피해 수준
	유해환경	인터넷 음란 사이트 이용 주변유해 환경 노출
	소외된 환경	소외된 지역사회

출처: 배주미 외(2010:8-9)

개인요인으로는 비행관련, 정신건강 관련, 성격적 요인이 있으며, 가족요인으로는 구조적 요인, 학대, 방임, 부모형제, 가족학력, 부모형제, 부모의 양육태도가 포함되어 있다. 학교 및 또래요인으로는 학업중단 및 학업부진, 교사 및 교과과정 요인, 학교 또래 요인이 있으며 지역사회요인으로는 일자리 및 임금수준, 폭력 및 범죄 노출, 유해환경, 소외된 환경이 포함 된다.

이러한 위기요인들은 한 가지의 영향만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단선적이기 보다는 선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기도 한다. 위기 청소년을 둘러싼 생태환경의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위기청소년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이며 가족의 울타리에서 가치관 형성이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기의 초점에서 가족요인은 개인요인보다 선행되는 1차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에서는 “위기청소년”을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8조)를 보면 위기청소년을 세 가지로 범주화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두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 세 번째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말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종합하면 비행청소년, 학교밖 청

소년, 가출청소년들이 포함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를 보면 일반청소년의 가출 경험률은 10.2%, 위기청소년(비행, 가출, 학교부적응 청소년 등)과 같은 특수집단 청소년의 경우 73%로 보고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1).

2014년 경찰서에 접수된 13~18세까지의 가출 신고 건수는 1만 1279건(남자 4719명, 여자 6560명)이다. 학계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가출 청소년의 규모를 최소 10만명에서 최대 4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추산하는 수치는 대략 39만명이다. 교육부에서는 매일 2,000여명의 청소년이 가출을 하고 있다고 추산한다(일요시사, 2015, 5, 20).

가출은 산업화로 인한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이동으로 인한 가출로부터 시작하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족 해체의 가속화로 가출 청소년들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을 기점으로 그 시기 이후 서비스 중심의 산업 개편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출 청소년들의 가출행태는 변화하기 시작하였다(김향초, 2009). 그러다 점차 2000년대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가출팸’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나타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가출팸은 가출 패밀리의 약자로 청소년이 가출한 이후 그룹을 지어 생활하며 스스로 자신들을 가출팸으로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유서구 외, 2012). 가출팸의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인과적 요인으로 첫째, 한부모 가정, 결손, 재혼 가정 등으로 청소년이 보호자로부터 잘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가족 구성원과 갈등을 겪다가 선택한 가출이며 둘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외로움이나 기대고 싶은 마음을 의지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슷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과 서로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가출팸이 강화되는 상황적 조건으로는 가출팸으로 구성된 청소년들이 주로 원룸, 찜질방, 모텔 등을 이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모와 보호자가 더 이상 청소년을 찾지 않으며 청소년들이 숙박업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들 수 있다. 더 나아가 가출팸을 구성한 청소년들이 정기적인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대신 비행,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 이유로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는 한 달을 기준으로 급여를 주는 체계로 즉시 필요한 돈 문제를 해결하여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며 이미 가출한 청소년이 부모에게 아르바이트 승낙

에 대한 부모동의서를 받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유서구 외, 2012).

또한 가출 청소년의 경우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업체의 무작위적 기용으로 미성년자이며 청소년이 가출했다는 상황을 악용하여 하루종일 일을 해야 하는 일명 ‘지옥 알바’를 시키는 고용주들의 사례(대한민국청소년의회)와 같이 당장 숙식 해결이 시급히 필요한 상태에서 고용주에게 쉽게 이용당하기도 한다(김지혜, 2005; 김향초, 2005).

연성진 등(2004)의 연구에 의하면, 물건 절도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가출 경험이 없는 경우 36.2%였지만 가출 경험이 있는 경우는 49.5%였다. 또한 가출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타인 폭행 32.5%, 금품 강탈 21.7%였지만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타인 폭행 56.7%, 금품 강탈 35.5%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김준호 등(1993)의 연구에서 한번 가출하여 집에 돌아가지 않고 지내는 기간이 평균 48.7일로 나타났다. 즉 조사에서 가출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출기간이 짧게는 하루 이틀이지만 길게는 수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준호 외, 1993;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2).

청소년이 가출하는 원인에 관심을 가졌던 국내외의 연구자들은 상당히 많은 가출이 가정폭력,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각한 갈등, 빈곤 등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관련되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서울 YMCA청소년쉼터, 1997;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2; Kaufman & Widom, 1999; Yoder et al.,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출 원인보다는 가출 후의 결과로 인해 가출이 곧 비행이라는 인식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가출에 대해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로 바라보고 비행과 동일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가출이 청소년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일탈 행위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되는 대처 행위일 수 있기 때문이다(김지혜, 2005).

이처럼 위기청소년의 73%(2010)가 가출 경험이 있다는 것은 가출이 다른 종류의 위기상황과 접점이면서 다른 위기로 확대되는 도화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위기여자청소년의 가출의미

청소년들에게 가출은 사춘기에 있을 수 있는 반항의 지표로 받아들이며 실행에 옮기지는 않지만 한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로 그들에게 가출은 낯설지 않은 일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인식과 달리 청소년 가출은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매년 가출 청소년은 증가하고 있으며 가출로 인한 관련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위치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가출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특히 학교-집의 구도로부터 청소년들을 불러내는 소비문화와 비공식적 일자리,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청소년들을 집-학교/외부세계 사이의 이동을 용이하게 만들고 있고 이것은 다양한 계급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출을 만들어 내고 있는 사회 문화적 배경이 된다(변혜정, 2007). 가출은 성인과는 분리된 자신들만의 시간, 공간, 문화를 원하는 아이들의 하위문화에 대한 욕구, 부모의 돈에 의존하지 않고서 자원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경로의 확보 등의 방식을 통해 특정 사회, 문화적 조건들 속에서 특수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다(서울시늘푸른여성지원센터, 2006).

모든 청소년에게 가출은 집 밖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어려움에 놓이는 것이 사실이나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들은 분명 다른 현실,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성별화 된 측면이 있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가출을 결심하는 첫째 이유가 부모에 의한 신체적, 성적 학대로 부터의 회피를 하기 위함이거나 또는 가정 내에서의 부모의 방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지만,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는 이들의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학대경험 뿐만 아니라 이미 남자청소년들이 관여되어 진행되고 있는 비행이나 문제행위로 인한 결과인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여자청소년들의 성적학대의 경험은 성관련비행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폭력적 비행의 행위는 감소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남자청소년들과 여자청소년들의 위기는 다른 관점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은영, 2012).

서울시 늘푸른 여성지원센터(2006)의 연구에 의하면 가출에 있어서 젠더의 차이뿐만 아니라 계급의 차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남녀의 차이 뿐만 아니라 여자청소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계급이 낮은 여자청소년들이 가출이후의 삶이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계급은 개

인의 문화자본의 종류, 부모의 소득과 직업 등의 요소가 아니라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의 정도와 그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모든 여성들이 동일한 젠더 경험을 하지는 않는다. 젠더는 계급적 배경에 따라 개인에게 다르게 분배, 배치, 경험된다. 정보, 미래에 대한 기대, 자원이 거의 제공되지 않는 계급의 가족에서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기대되는 것은 엄마의 역할을 나누어야 하는 ‘작은 엄마’ 내지는 엄마의 부재를 메워 주는 ‘성적 대상’ 혹은 ‘구타의 대상’이다(서울시 늘푸른 여성지원센터, 2006). 이들의 ‘현재’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유예시켜야 할 아무런 필요성도 주지 않는다. 이러한 여자청소년들에게 집 밖에서의 성역할은 ‘교환가치’를 만들어 내는 일이 되며 이들에게는 집을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덜 가난해 지게 되는 일이다(변혜정, 2007).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성별화된 사회에서 남성은 생산수단과 맺는 관계에 의해 계급이 결정되지만 여성들은 생산수단을 가진 남성과 맺는 관계에 의해 어떤 남성의 아내인가로 계급이 결정된다(Lerner, Gerde., 1997; 변혜정, 2007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사실은 가출한 여자청소년들이 가출 후 가족을 대신하는 새로운 대상으로 남자를 선택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학력과 직업, 부모로부터 받은 자원을 통해 미래를 계획하고 그럴 수 있는 토대가 없는 상태에서 어린 여성들이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자원은 ‘남자’라는 것이다(변혜정, 2007). 이 연구의 과정 중 사례면접 대상자 11명의 20대 위기여성들과의 만남에서도 그들에게 남자는 목표였고 수단이었으며 그로 인해 쉽게 동거를 선택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성별분업에 기반한 가족은 여성이 성공적으로 모성을 수행했을 때 의미 있는 정체성과 실질적인 자원을 기꺼이 제공한다. 자원이 있는 가족 안에서 여성의 모성 역할은 아내 역할과 공존하지만 자원이 없는 가족 안에서 자녀와 어머니의 관계는 여성과 남편(혹은 남자친구)관계와 종종 충돌을 일으킨다(서울시 늘푸른 여성지원센터, 2006). 이때 어머니에게 딸은 자신의 뒷바라지로 공부해야 하는 보호의 대상이라기보다 가사를 분담해야 하는 ‘작은 어머니’가 되며 남자를 통해 자원에 대한 접근을 열어 놓은 성별분업 속에서 모성은 많은 경우 아내 역할의 부분 집합이 되지만 재혼가정의 경우 모성과 아내의 역할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변혜정, 2007). 이때 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원이 별로 없는 여자 아이들의 경우 집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게 된다.

2006년 ECPAT(아동성착취반대협회)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 중 가출 청소년 절반가량이 성매매를 경험했거나 현재 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성운숙, 2009). 여자청소년들의 성적행위와 범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치즈니린트(Cjesney-Lind)의 페미니스트 이론적 관점에 의하면 여자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의 길로 접어드는 동기 및 관련 위험요인들은 남자 청소년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 가운데 페미니스트 이론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여자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를 설명하는 핵심요인 중의 하나는 바로 여자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성인기 이전의 성적학대의 경험이라고 주장한다.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성적학대가 이들의 비행과 성인기 이후의 범죄자로의 커리어를 출발시키는 촉발요인이라는 것이다(김은영, 2012).

남미애 등(2009)의 연구에 의하면 성매수 피해청소년은 주로 15세에서 18세로 최종학력은 45.6%가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중퇴하였고 56.5%는 중학교 졸업 이하로 전반적으로 학력이 낮았다. 또한 성매수 피해청소년의 71.8%가 친부모가 함께 살지 않는 구조적 해체가족이었고 가정의 경제 상태는 기초수급대상자와 낮은 경제수준이 62.4%로 대다수가 빈곤가정이었다. 그들이 현재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정도는 29.0%였고 과반수 정도의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취업, 학업준비 등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특별히 하는 일 없는 청소년도 24%나 되었고 가족과 생활하는 청소년은 38.3%에 불과하였다. 또한 그들 대다수는 친구나 아는 사람과 어울려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친구를 제외한 가정, 학교, 일상생활 만족도가 모두 보통 이하의 낮은 만족도를 보여 전반적으로 현재 생활에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수 피해청소년의 현재 생활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가정의 경제적 문제, 자신의 생활비 문제 등 돈 문제였다. 그들은 성매매 이전에 가출(82.7%), 학교부적응(무단결석경험 78.6%, 중퇴경험 64.9%, 학교처벌경험 48.9%), 성관계(77.2%), 성매매를 경험한 친구와의 교제(71.7%), 폭력피해(성폭행경험 51.2%, 가정폭력 44.3%, 학교폭력피해경험 40.6%)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매매 이전 가정생활을 살펴보면 그들은 유아기, 아동

기 등 생애 초기 단계에서부터 가정이 빈곤, 부모이혼 등으로 인해 해체되거나 안정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 친척집, 시설 등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방임된 채 살아왔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하는 등 폭력의 희생자로 살아왔다.

이처럼 남미에 등(2009)의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가출은 가출 사건 하나의 문제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출 이전의 문제들과 가출 이후의 문제들을 연결해주는 끈으로서 작용한다. 가출한 여자청소년들은 가출 이전에 이미 사회, 경제적 곤란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그 결과 가출을 선택하게 되었고 가출 이후의 삶은 또 다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경우 성매매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역시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이 숙박 등의 문제로 상당수가 조건만남 등 성매매에 빠지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이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 22%가량이 강요나 협박 등 ‘타의’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중에 스스로 선택했다고 했더라도 심층면접 조사 결과 비자발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MBC 뉴스, 2016, 2, 29, 네이버뉴스).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사실은 정혜원(2012)의 연구에 의하면, 가출과 성매매 경험이 전혀 없는 집단, 가출경험은 있지만 성매매경험이 없는 집단 그리고 가출과 성매매경험이 모두 있는 집단에 대한 가족 관련 보호요인 차이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 가출과 성매매경험이 모두 있는 집단보다 가출경험은 있지만 성매매경험이 없는 집단이, 가출경험은 있지만 성매매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가출과 성매매경험이 전혀 없는 집단이 부모애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방임과 부모학대에 있어서는 가출과 성매매경험이 전혀 없는 집단보다 가출경험은 있지만 성매매경험이 없는 집단이, 가출경험은 있지만 성매매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가출경험과 성매매경험이 모두 있는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집단유형별 경제수준 차이에서도 가출과 성매매경험이 전혀 없는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출과 성매매는 분명 연결선 상에 놓여 있지만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높고 경제수준과 부모애착이 낮을수록 가출과 성매매로 빠질 확률이 높고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

인적 요인에 의한 차이에서도 역시 가출과 성매매를 모두 경험한 집단에서 사회 유능감, 자기 존중감, 자기통제력, 법에 대한 수용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가출과 성매매를 모두 경험한 여성들이 다른 유형의 집단보다 성폭행 경험이 가출과 성매매경험이 전혀 없는 집단(5.3%), 가출경험은 있지만 성매매경험이 없는 집단(16.3%)에 비해 55.2%로 높게 나타났다.

성적학대를 경험한 여자 청소년들이 폭력적 비행보다는 성매매, 성관련비행, 상점절도 그리고 가출 등을 포함한 비폭력적 형태의 비행 행위를 저지를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게 된다는 것이다.

가출의 경험이 여자청소년들의 성적학대경험과 비행 간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관해서는 여자청소년들의 가출은 이들의 성관련비행 및 폭력적 비행을 일부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일부 조정의 역할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출의 경험 자체가 여자 청소년들의 성관련비행과 폭력적 비행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성적학대피해의 경험의 영향보다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원인이라고 하였다(김은영, 2012).

3) 가출청소년의 특성

The Social Work Dictionary에 의하면 가출청소년이란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가정을 떠나거나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성년자를 가출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밀러(Miller, A. W., 1980)는 가출청소년의 개념을 좀 더 세분화하여 정의하였는데, 첫째, 부모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난 자, 둘째, 법 집행기관이나 서비스기관에 의해 가출청소년으로 정의된 자, 셋째, 스스로 또는 주요 타인에 의해 가출청소년으로 인정된 자로 정의하였다. 로버트(Robert, A. R., 1987)는 가출청소년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서 24시간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김문정, 2000).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가출청소년들을 유형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가출청소년 유형화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표Ⅱ-2>와 같다.

신림청소년쉼터(2003)에서 집과 학교와의 교류를 중심으로 나눈 분류는 갈등형, 전환형, 방임형으로 갈등형은 집, 학교와 교류를 한다는 점에서 세 유형들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나은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환형은 집과 교류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처럼 언제, 어떤 계기로 인해 가정으로 완전 복귀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방임형으로 완전 가족과의 교류를 끊을 수도 있다는 중간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표Ⅱ-2> 가출청소년 유형화

출처	분류	특 성	주요요소
신림 청소년 쉼터 (2003)	갈등형	청소년의 대표적인 생활공간인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거리청소년	· 집과의 교류 · 학교와의 교류
	거리형 (전환형)	집과 약간 교류하고 학교에서 나와서 지내고 있는 청소년	
	거리형 (방임형)	집과 완전히 단절되고 버려진 청소년	
이용교 외 (2006)	노숙형	가족과의 연결이 끊어진 경우가 많고, 거리생활에 익숙해져있어 보호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려 함	· 가족과의 연결 · 보호시설 이용 동기 · 청소년의 안정 성과 사회적응 능력
	거부형	구속을 싫어하여 보호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려 함	
	탐색형	자신의 능력과 의지를 어느 정도 신뢰하지만 귀가하기 어렵고 쉼터에 입소할 동기가 있음	
	전환형	집에 돌아가서 지내는 것과 가출해서 지내는 것을 반복하고, 보호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음.	
	안정형	안정적으로 자라다가 갑자기 가정해체를 겪어 집을 떠나게 되거나 보호시설에서 돌봄을 잘 받아 안정됨	
치료형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등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일반쉼터의 서비스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음		
윤형영 외 (2007)	노숙형	거리에서 생존방식을 터득하고 거리생활이 일상적인 생활양식으로 굳어짐	· 가족, 학교와의 관계 · 거리/주류사회 생활양식의 수용과 변화동기
	가출형	가족과 학교와 관계 유지, 주류사회의 가치와 생활습관을 알고 변화의 경계에 있음	

출처: 최순중(2012:10)

마지막으로 방임형은 집과 완전히 단절되어 방임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으로 가장 취약한 위치의 가출청소년이라 할 수 있다.

이용교 등(2005)은 보호시설 이용 동기와 청소년의 안정성과 사회적응 능력을 주요 요소로 포함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었다. 특이사항으로는 치료형을 분류에 넣어 가출청소년들의 심리상태를 언급하였다. 가출청소년들 중에는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등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있음을 처음으로 시시한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위의 유형 분류에서 보면 가출이라는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이 노숙형과 (방임)거리형임을 알 수 있다.

최순종(2012)은 노숙형과 (방임)거리형 가출청소년들을 거리청소년들이라고 명명하였다. 거리청소년들은 말 그대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말한다.

거리청소년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점은 생존 위협과 의식주 해결에 대한 문제이다. 가출 후의 의식주의 문제를 살펴보면, 가출 청소년의 67.1%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경험을 호소하였고 잘 곳을 찾지 못해 밖에서 자거나 밤새도록 돌아다닌 경험을 한 번 이상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74.6%였다(김지혜, 2005). 또한 계절에 맞는 위생적인 옷을 입지 못하고 노숙을 한 경험이 있어,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그들은 내과질환, 피부비교기과질환 등의 질병을 경험하지만,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준 외, 2006). 이처럼 가출청소년은 오랜 거리 생활을 하는 동안 위생과 영양상태가 나빠 영양결핍이나 피부병 등 신체적 질병이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 임신과 낙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성병 등의 문제도 가지고 있다.

가출 청소년 가운데 상당히 많은 청소년이 범죄피해를 경험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일반청소년에 비해 더욱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윤현영 외, 2007).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 연구들에 의하면, 가출청소년 중 심하게 두들겨 맞거나 돈을 빼앗긴 경험은 약 1/3 이상이며, 칼이나 흉기로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받아 다친 경험, 성추행이나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도 약 11~22% 정도나 높은 것으로

로 나타났다(김지혜, 2005; 김경준 외, 2006).

즉 가출 청소년들은 거리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상당수가 절도, 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자가 되는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의식주해결을 위한 돈이 필요하고 따라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비행 집단과 어울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그들은 범죄의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로서의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최순중, 2012).

(1) 가출의 요인

청소년이 가출을 하게 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가족, 학교, 개인, 지역사회 측면으로 나누기도 하고(박명숙, 2006)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기도 한다(차명호 외, 2010).

가출의 요인은 학자들마다 나누는 유형이 다르지만 여기에서는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학교·또래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가출이나 비행의 일차적인 책임이 자신의 행동선택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김영순 외, 2007). 로버트(Robert, 1987)는 가출청소년과 비가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를 통해 가출청소년들의 가출은 스트레스적 사건에 맞부딪혔을 때 이것을 올바르게 대처해 내지 못하여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행동 형태라고 설명하였다(정진희, 2016에서 재인용).

지창희(1987)의 연구에서는 168명의 가출경험이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에서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충동성이 강한 반면 책임성 및 안정성, 지배성, 사회성, 사려성, 동조성, 남향성, 우월성 등 8개 요인의 성향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경(1990)은 가출경험 소녀와 가출미경험 소녀간의 가족관계연구에서 가출을 정신병리적 원인과 관련지어 개인의 내적인 문제 즉, 우울적 성향, 병리적 성향, 신경증적 기질 등이 가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표갑수(1996)는 가출청소년의 개인특성 요인으로 약물남용, 비행, 부적절한 성적표현, 공격성, 적정한 통제의 어려움, 피해의식, 자살기도 등을 들었다. 또한 성격적으로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고 충동적인 흥미에 마음을 빼앗기고 배회하는

것을 좋아하며 인내심이 부족하고 근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였다(정진희, 2016). 특히 가출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하거나 충동적이며 화를 잘 내는 등의 신경증 또는 정서장애를 지닌다고 하였다(홍봉선 외, 2007).

가정적 요인에 대해 권이종 등(1998)은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첫째, 구조적 결손가정으로 가족의 구조적 결손으로 인한 모성, 부성의 상실은 청소년의 정서, 태도,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쳐 부적응 현상을 초래하며 이는 부모에 대한 동일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역할학습과 사회화과정이 저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기능적 결손가정으로 형식적으로는 결손가정이 아니지만 심리적 갈등으로 인하여 가족 간의 유대가 단절되고 가족원 각자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가족의 혼란 또는 해체를 경험하는 가정을 말한다. 즉, 가정의 불화, 방임, 애정결핍, 무관심 등은 심리적 결손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셋째, 가정의 빈곤으로 빈곤 그 자체보다도 빈곤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양친의 무기력, 음주벽, 생활상의 무질서 등 빈곤에서 2차적으로 파생되는 방임과 갈등에 의하여 가출을 유도한다. 넷째, 가정에서 부모이혼, 부모-자녀 사이의 가치 갈등, 자녀의 학업성적에 대한 부모의 과잉기대,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자녀들의 반발 등이 가정에서 청소년의 부적응을 낳고 가출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살에 대한 유혹, 음주, 흡연, 기타 약물남용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다.

김향초(2005)는 한 개인의 가정환경은 성격형성, 가치관 확립, 자아개념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하였다. 나아가 청소년 가출의 요인을 가정의 구조적 결함(부모의 이혼, 별거, 가출, 사망 등의 가족해체)가 가출을 양산하는 주된 요인이라기 보다는 이로 인해 파급되는 심각한 수준의 불안과 갈등을 경험하고 이러한 가정에 부적응과 가족불화와 가족규범의 해체, 결속감의 붕괴 등과 같은 기능적 결함 요인이 중복될 때 청소년의 가출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또한 구조적 결함보다는 기능적 결함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는데, 문상식(2013)은 청소년 가출의 대표적 이유는 부모와의 갈등이었음을 밝혔고, 한부모 가정일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가족갈등이 심할수록 가출충동이 높게 나타남을 밝힌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10)의 연구를 보면 2007년 조사에서 전체 청소년의

가출요인 중 가족요인이 63%였으나 2010년 조사에서는 가족요인이 66.5%로 증가하였다. 가족형태는 친부모와 함께 산다는 응답이 20.4%로 2008년 친부모와 함께 산다는 청소년이 38.8%보다 18.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양숙(2013)은 청소년이 가출하게 되는 요인으로는 부모의 학대와 지나친 간섭, 폭행과 방임, 구박, 계모와의 갈등, 친부의 성폭행 등이 원인이 되어 낮은 자존감, 우울감, 외로움, 강박감, 미래에 대한 걱정 등의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심리적 문제가 가출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이렇듯 가정은 청소년 가출 및 비행예방에 가장 효율적인 체계가 될 수 있는 반면, 역기능적인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역기능을 부과하여 청소년 가출 혹은 비행을 촉발하게 하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가족 기능의 양면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조학래, 2004).

학교·또래 요인을 보면,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학교라는 장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특히 청소년기는 가정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또래들과의 문화 형성에 관심을 갖게 된다. 청소년기에는 또래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정을 쌓아가며 원만한 대인관계와 동료집단의 문화를 배우며 어떤 특정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면서 정체감을 확립해 나간다(이정희, 2000). 그러나 지나치게 성적지향주의적인 입시위주의 학업풍토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고 있다. 학업능력이 우수한 학생들 위주로 돌아가는 학교 풍토는 학업능력이 뒤쳐진 학생들에게는 교사들과의 관계, 학교에서의 시선, 또래들과의 관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2)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출청소년들의 과반수 이상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6회 이상 가출한 청소년의 경우 42.3%가 학교로부터 근신, 정학 또한 퇴학 등의 처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교사와의 관계도 단절상태에 있었다.

권이종 등(1998)은 청소년들의 또래관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또래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면 바람직하지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면 가출의 요인이 될 것이라 했고, 부정적인 또래 요인 중 불량교우 문제를 들었다. 불량한 친

구들과의 관계는 가출 및 범죄의 시작을 유발하며 범죄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주며, 동료들의 배척을 받게 되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행동으로 가출 및 탈선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청소년들의 친구선택은 친밀감이나 안정정보다는 오히려 유사한 활동에 대한 선호도와 가용성(내가 원할 때 옆에 존재하는가)가 중요하게 고려되며 물리적 근접성 역시 친구집단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김지영 외, 2014).

마지막으로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면, 청소년기는 판단력과 자제력이 부족하고 감수성이 예민하여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성인에 비하여 영향을 많이 받는다. 윤철경 등(2005)은 청소년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을 직접적인 요인과 간접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직접적 요인으로는 주변의 퇴폐향락문화, 소비지향적인 유희환경 등을 들었고 간접적 요인으로는 혼돈된 가치체계와 배금주의적 가치관 등을 들었다.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세대차이에 의한 갈등,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도덕성의 붕괴, 대중매체 등을 들었다.

세대차이에 의한 갈등을 보면, 기성세대들은 대부분 유교적 사회규범의 영향을 받는 반면, 청소년들은 개인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의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가치갈등을 겪게 된다. 도덕성의 붕괴를 보면, 선별되지 않은 외국문화 도입으로 물질만능주의, 실적주의, 목적편향주의 같은 현상을 가져와 청소년들의 도덕적 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대중매체의 과도한 상업주의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권이중 외, 1998). 허금진(2008)은 가출을 부추기는 직접적 요인으로 청소년을 이용한 산업과 유희향락업소의 범람과 성 상품화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이 여자 청소년들이 가출 전후 성 산업에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가출 요인들을 볼 때, 청소년가출은 단순히 청소년이 집을 나가는 행위가 아니라 집밖으로 나가도록 부추기는 방출요인(가정이나 학교 요인)과 집밖으로 끌어내는 요인(사회적 요인)과 가출행위를 실제로 유발시키는 촉발요인(개인요인, 또래요인 등)이 상호 복합적이고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청소년가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김종삼, 2008).

백혜정은 가출청소년의 대부분은 심각한 가정 위기를 겪고 있고 결국 이들에

게 가출은 스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는 것’이라며 ‘거리로 나온 아이들은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아이들과 어울리며 공동체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가족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또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들끼리 모임이다 보니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탈선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하였다(동아일보, 2011).

가출충동에 영향을 주는 가출원인을 살펴보면, 개인요인으로 성별, 가출경험, 반사회적 성향(낮은 사회지향, 자존감), 경계선 성격특성, 대처행동(전략)으로 나타났다으며 가족요인으로는 구조적 결손, 부모의 부부관계(갈등), 부모와의 관계, 낮은 가족관계 수준, 가족생활 스트레스, 부모의 양육태도(과보호적, 성취지향적이지 않은, 거부적, 권위적), 낮은 가족응집성, 학대(신체적, 정서적, 성적),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와의 의사소통(특히 부)로 나타났다. 학교·또래요인으로는 학교체벌경험, 부적응, 학교와 교우관계의 스트레스, 교사에 대한 태도, 이성친구, 친구의 비행과 가출이 영향을 주고 있었다(정경은 외, 2008).

오승환(2010)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 요인에서 양친가족 여부는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했지만 가출경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가족의 지지는 가출충동이나 가출경험 모두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가출충동이 낮고, 가출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 간의 지지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대는 청소년이 가정에 머물기 보다는 가정 밖으로 가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일수록 청소년의 가출충동이나 가출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경제적 수준이 가출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경제적 수준이 직접적인 요인이기 보다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출청소년들의 가출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만큼 가출청소년들의 가정복지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가출청소년 귀가 관련 가족요인으로는 가족의 구조적 측면과 경제적 수준을 들 수 있다. 가족의 구조적 측면으로는 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재혼가정, 조손가정, 친척집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보다 귀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소영 외, 2010). 이혼, 별거, 사망 등으로 가족해체가 이루어진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은 귀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사회적 지위 또한 귀가에 영향을 주는 데 부모가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 청소년의 귀가율은 감소하고, 가정 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가족 구성원 사이의 긴장이 발생하며 이는 가출 후 귀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최소영 외, 2010).

또한 부모나 가족 구성원의 폭행 및 폭언, 부모나 형제와의 갈등 등도 귀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경험은 청소년이 가출하는 데 주요 원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가족관계의 긍정적 변화가 없는 한 청소년이 귀가를 포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방은령, 2003).

귀가와 관련된 학교요인 중 가출청소년의 가정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학업상태를 들 수 있는데, 학업이 중단되었거나 정학이나 퇴학과 같은 징계를 받은 청소년일수록 귀가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최소영 외, 2010). 또한 낮은 학업성적이나 교사와의 갈등, 학교 부적응을 경험하는 경우 귀가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으로는 우울 및 불안, 충동성향, 자극 추구 경향, 행동장애, 반사회적 성격, 정신질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여부, 성적인 문제, 스트레스 대처방식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배주미, 2009) 음주, 약물 사용, 비행경험, 대인관계기술, 문제해결능력 등도 귀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최소영 외, 2010). 특히 대인관계기술의 경우 청소년이 가출 후에 거리 생활을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 대인관계능력이 좋을수록 가출청소년들은 가출 전 친구나 거리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필요한 물질적·심리적 지지를 받으면서 가출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연령 또한 가정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출청소년들의 현재의 가정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며 가정상태나 부모의 변화 없이도 가정에 복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방은령, 2003). 가출횟수도 귀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 가출이 빈번할수록 귀가하지 않고 쉼터나 거리 생활이 더 길어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최소영 외, 2010). 주요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가정복귀 가능성 요인들을 정리하면 <표 II-3>과 같다.

<표 II-3> 가출청소년의 가정복귀 가능성 지표

요인	최소영 외(2010)	배주미 외(2009)	방은령(2003)
개인	청소년 연령 대인관계 기술 절도, 폭력, 성문제 약물, 흡연, 음주 섭취 가출횟수	청소년 연령 대인관계 기술 성인과의 긍정적 관계 비행 및 성경험 성문제 및 알코올 문제 가출횟수	호기심 청소년 연령
가족	가정 내 학대 친부모와 함께 거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나 방임 부부간의 폭력 부모 형제간 갈등 부모와의 의사소통 가족의 지지 결핍	가정 내 학대 친부모 > 한부모 사회경제적 어려움	가정불화 부부간 갈등 부모의 별거 및 이혼
학교	학업상태	학업상태 학교문제	교사에 대한 반항 학교 부적응
친구	가출 동반 친구	-	친구의 유혹

출처: 김용길(2011:22)

가출청소년쉼터에 입소되어 있는 835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가정복귀 가능 요인에 대해 가출청소년이 바라는 가정복귀 유발 1순위 요인으로 는 ‘부모님과 사이가 좋아지면’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43.9%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다음으로 부모님의 관심, 학대하지 않는다면 등으로 나타나 부모-자녀 갈 등 관련 환경이 전체의 57.8%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가정복귀 가능 성 환경 요인으로 ‘집안 형편이 좋아지면’으로 나타나(김용길, 2011) 가출청소년 이 바라는 가정복귀 유발 요인의 대부분은 부모-자녀 갈등 해결이 가장 큰 변수 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복귀 가능성 지표를 보면 개인요인도 중요하지만 가족요인도 중요한 지표 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점점 증가하는 해체가족의 경우는 가정복귀 가 능성을 낮춘다. 기능적인 가족환경의 가족해체가 아닌 구조적인 가족환경의 가족 해체인 경우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러나 가정복귀를 구조적인 가족환경의 가정이

아닌 1인 가구로서 혹은 대안가족으로서의 가정복귀로 본다면 가능성은 열려 있다.

또한 모든 청소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나 연령의 증가는 내적인 힘을 향상시킬 수 있어 가정복귀 가능성을 높여주며 대인관계기술이나 문제해결기술 등의 개인 요인의 향상은 가정복귀 가능성을 더욱 높여줄 수 있다.

(2) 가출청소년의 사회서비스 체계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가장 잘 알려진 사회서비스 체계로는 가출청소년쉼터 들 수 있다. 가출청소년쉼터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복지 시설의 한 종류이다. 가출청소년쉼터는 법적으로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따라서 청소년쉼터라는 명칭은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청소년복지지원법 제 38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청소년복지지원법 제 45조)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쉼터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청소년복지사업기관, 선교·포교 등 종교행위를 수행하는 시설, 단순 보호기관 등은 청소년쉼터에 속하지 않는다(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 3조 제 1호에서 정의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쉼터 입소대상 선정 시에는 <청소년보호법> 제 2조 제 1호에 정의된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우선 된다. 즉, 입소대상 순위에서 1순위는 9세에서부터 19세미만이며, 2순위가 19세 이상 24세 이하가 된다. 그러나 13세 이하인 저연령 청소년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연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 따라서 청소년쉼터의 주요 대상자는 14세에서 24세까지의 중기, 후기청소년들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쉼터의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 쉼터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쉼터의 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기능을 살펴보면 <표 II-4>와 같다.

<표 II-4> 청소년쉼터의 종류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보호 기간	24시간~7일 이내 일시 보호	3개월 이내 단기보호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최장 9개월)	3년 이내 중장기보호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용 대상	가출·거리배회·노숙청 소년	가출 청소년	가출 청소년
핵심 기능	일시보호 및 거리상담 지원(아웃리치)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 례관리를 통한 연계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기능	-위기개입상담, 진로지 도, 적성검사 등 상담 서비스 제공 -가출청소년 조기구조 및 발견, 단기청소년 쉼터 연계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의료서비스 지원 및 연계	-가출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및 예 방활동 -의식주, 의료 등 보호 서비스 제공 -일시·중장기 청소년쉼 터와 연계 -가정 및 사회복귀 대 상청소년 분류, 연계서 비스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 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 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 로 학업·자립지원 등 특 화된 서비스 제공
위기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통지역)	주요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 기개입 및 보호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출처: 여성가족부(2016:612)

최순중(2012)은 가출청소년 서비스 체계에 있어 쉼터가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 체계로는 부족함을 설명하였다. 우선, 가출청소년들은 이미 가정이나 사회에서 상처를 받고 시설에 입소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심리·정서적인 면에서 취약한 상태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이 이러한 문제를 개입하는 데 상담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개입에 실패하고 시설에 부적응한다는 것이다. 단기쉼터의 경우 보호기간이 짧고, 입소생의 무단퇴소 발생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중장기쉼터의 경우 학교복귀를 최우선으로 하는데 쉼터평가목록에는 학교복귀에 대한 항목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계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또한 빈번한 청소년자립성과에 대한 시설평가로 인해 진정한 청소년보호보다는

성과위주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쉼터 퇴소생들은 자립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보육시설과 아동양육시설의 청소년과 비교해봤을 때 자립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아지트, 가출을 부추기는 곳으로 오해 받고 있어 지역사회 주민들이 비협조적이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해서 종사자의 낮은 복지수준은 이직률을 높이며 그로 인해 쉼터의 전문성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점점 청소년의 가출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숙 및 배회 청소년 즉, 거리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주의적인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이며 당장의 성과가 아닌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서비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유재중은 ‘가출 청소년의 대다수는 반사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청소년쉼터에 대한 지원 예산을 올해 58억 원에서 내년 55억 원으로 되레 깎아 버렸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처럼 치료형 쉼터를 만들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동아일보, 2011).

이처럼 가출청소년쉼터가 행정적인 요구로 인해 거리청소년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상들은 이미 만연한 상태이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으로 ‘가출캠’을 들 수 있는데, 가출캠을 구하는 경로 및 생활주거 형태에 대해 아는 친구를 통해서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가출관련 카페로 나타났다. 생활주거 형태도 모두 모텔에서의 생활이 가장 많았다. 가출캠 구성원 수는 4~5명이 가장 많았고 혼숙의 경우도 60.6%로 나타났다. 가출캠을 구성하는 이유로는 1순위로 ‘외로워서’로 나타났다(김윤나, 2012). 이는 곧 정서적인 안정, 가족 형성 등에 관한 청소년들의 욕구임을 알 수 있다.

결국 가출캠은 1차적으로는 청소년의 가출을 막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2차적으로는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서비스 체계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해서 나타난 문제의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출캠을 구성하는 이유에서 정서적인 이유가 1순위인 점에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 체계를 재구성한다면 좀 더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가능해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3. 불안정 성인애착

1) 애착

애착은 개인의 여러 가지 애착상태와 질을 전반적으로 일컫는 용어로 애착을 느낀다는 것은 안전하고 안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Holmes, 2005) 애착의 개념을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의존’과 어떻게 다른지 구분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의존’이라는 단어는 한 개체가 자신의 존재를 위해 타인에게 기대는 정도를 지칭하며, 기능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지만 애착은 행동의 형태를 지칭한다.

따라서 의존은 인간의 출생 시 최고 수준이고 성장하면서 꾸준히 감소하지만, 애착은 출생 시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생후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개념이다(Bowlby, 2009).

애착은 생후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어린아이들이 주양육자, 주로 어머니를 통해 나타나는 보고 듣고 만지는 등의 행위를 통해 충만함을 느끼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양육자가 알아 차리고 그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해주는 것이며 주양육자가 기꺼이 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긍정적인 감정 내지 기대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애착은 주양육자와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점차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해 간다. 즉 애착의 완성은 주로 오르가슴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을 성취함으로써 사람이 ‘상황에 잘 적응하여 살아가고’ 자신의 삶의 계획을 추구하고 탐색할 수 있는 편안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Holmes, 2005).

애착에 대한 개념으로 애착, 애착행동, 애착행동체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애착은 경험적인 면과 이론적인 면을 함축하고 있으며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으로 나눌 수 있다. 애착을 느낀다는 것은 안전하고 안정되어 있음을 느끼는 것인데 불안정 애착을 느끼는 사람은 애착 대상에 대한 강렬한 사랑, 의존,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과민함, 조심스러움 등이 섞인 여러 가지 감정이다. 둘째, 애착행동은 ‘삶이 차별화하여 선호하는 어떤 개인과 접근성을 성취하거나 유지하는 모든 형태의 행동’으로 단순히 정의된다. 애착행동은 애착대상과 분리되거나 분리된다고 위협받음으로써 유발된다. 애착행동은 접근성을 통해 끝

나거나 완화되는데 접근성은 위협의 성격에 따라 달라서 대상의 모습을 보는 것
으로부터 신체적으로 가까이 있기, 접촉 없이 말로 달래기, 꼭 안겨서 붙어 있기
등 다양하다. 셋째, 애착행동체계는 애착과 애착행동의 기초로써 이 체계는 자신
과 중요한 타인들, 그리고 그들의 상호관계를 대표하는 세계, 그리고 한 개인이
보이는 특별한 애착유형을 부호화하는 세계의 청사진 또는 모델이 된다(Holmes,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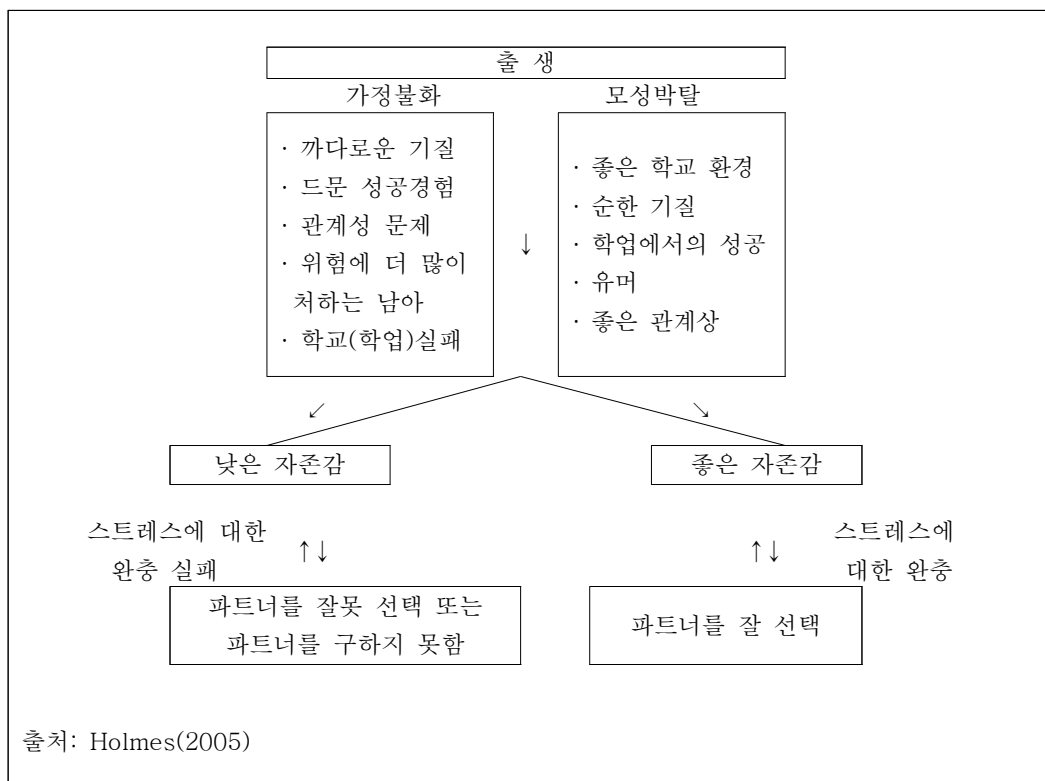
또한 애착에 대한 개념으로 애착관계가 있다. 애착관계는 세 가지 주요한 특징
이 있는데, 첫째 선호하는 인물을 찾는 근접성이 있다. 애착이론에서 중요한 점
은 애착이 차별화된 사람(또는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일어난다는 개념이다.
애착이 ‘단일연속적’ -즉, 단 한명의 인물, 가장 흔하게는 엄마와 관련되어 나타
난다는- 사실은 일생 동안의 주기에 걸쳐 나타나는 심리적 발달과 정신병리에
심각한 시사점들을 던져준다. 둘째 ‘안전기저’ 효과가 있다. 애착대상이 애착을
느끼는 사람에 대하여 만들어낸 환경을 뜻하는 안전기저는 본질적으로 호기심과
탐색을 위한 도약판을 제공한다. 즉, 위험하면 애착대상에게 매달리고 애착대상
을 다시 필요로 할 때 그들이 거기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게 한다
(Holmes, 2005).

허드와 레이크(Heard & Lake, 1986)는 안전기저 개념을 그들의 성인애착역
동 모델에서 확대하였는데, 이 모델에서 그들은 ‘애착 네트워크에서 선호하는 관
계’에 기초한 근본적인 ‘동반자적 상호작용’ 욕구를 가정한다. 이것도 모자간의
애착처럼 지지와 탐색이 혼합되어 있고, 동반자의 전제조건으로서 정신적인 접근
성이 관련된다. 안전기저가 존재하지 않으면 개인은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며 방어적인 책략을 사용하여 분리불안이라는 고통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필요한 경우 진정으로 상호적인 동반자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지를 조작한
다. 셋째, 애착유대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영속성’에 있다. 학대와 심한 처벌에
직면해서도 애착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스트레스의 원천이 바로 애착
대상일 경우에도 스트레스가 애착행동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Holmes,
2005).

볼비는 초기 연구에서 이별이나 사별을 경험한 아동들은 어른 못지않은 강한
정신적 고통과 고뇌, 즉 갈망, 비참함, 분노에 찬 저항, 절망, 냉담, 위축을 느낀

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이별의 장기적인 영향이 매우 심각하기에 때로는 아동기와 청소년에게 신경증이나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지며 성인이 되어서 정신질환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보여 주었다(Holmes, 2005). 이는 곧 어린시절 주양육자와의 애착이 시간이 흐르면서 청소년기의 다른 요인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주양육자와의 애착관계가 청소년기의 또래 애착관계 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인 부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utter(1981)는 모성 박탈의 발달경로를 제시하였는데 <그림 1>과 같다(Holmes, 2005).

<그림 1>모성 박탈의 발달경로



<그림 1>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어린시절 주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형성은 긍정적인 기질에 영향을 주며 그 기질은 학교 환경에서의 성공경험과 긍정적인 또래관계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높아진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잘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자신의 자아존중감과 비

슷한 파트너를 만나게 된다.

그러나 어린시절 주양육자와의 불안정한 애착형성은 부정적인 기질에 영향을 주며 그 기질은 낮은 성공경험과 부정적인 또래관계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 낮은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잘 처리할 수 없게 되어 파트너를 만나지 못하거나 혹은 파트너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자아존중감 수준과 비슷한 파트너를 만나게 된다.

청소년기에 이르면 부모에 대한 애착은 변화한다. 다른 성인들이 부모와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중요성을 차지하기도 하며 또래에 대한 성적 매력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기 시작한다. 그 결과, 이미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개인 간의 다양성은 더 커지게 된다. 한쪽 극단에는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한 청소년들이 있고 다른 쪽 극단에는 강렬한 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타인에게 애착행동을 지향할 수 없거나 혹은 지향하려 하지 않는 청소년들도 있다. 이 양 극단 사이에 부모에 대한 애착관계를 지속하면서도 타인과의 결속 또한 아주 중시하는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있으며 특별히 많은 사회에서 엄마에 대한 딸의 애착은 엄마에 대한 아들의 애착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Bowlby, 2009).

이러한 사실은 서울시 소속 청소년쉼터 18개소 187명을 대상으로 한 김현수 등(2015)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자 가출청소년들이 IPA(Inventory of Parent Attachment, 부모애착척도)척도에서 남자 가출청소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성에서 소항목인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에서도 일관되게 낮게 나타나 여자 가출청소년에서 애착의 문제가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많은 사회에서 엄마에 대한 딸의 애착이 엄마에 대한 아들의 애착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연구(Bowlby, 2009)결과와 흡사함을 알 수 있다. 즉, 딸의 애착관계가 아들의 애착관계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딸이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애착의 단일 연속적 속성을 좀 더 살펴보면, 아이에게 소수 이상의 애착-인물이 있을 때, 주요 인물에 대한 아이의 애착은 약할 것이고, 이와 반대로 애착-인물이 단 한 명 있을 때는 이 인물에 대한 애착은 특히 강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쉽다. 하지만, 처음에 주요 인물에게 강렬한 애착행동을 나타냈던 유아는 다른

구별된 인물들에게도 애착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반면, 애착행동을 약하게 나타낸 유아는 단 한 사람의 인물에게 모든 사회적 행동을 제한하려는 성향이 더 강했다(Bowlby, 2009).

아인스워드(Ainsworth)는 이런 현상에 대해 주요 인물에 대한 아이의 애착이 더 불안정할수록 다른 인물과 애착관계를 형성할 가능성도 더 제한된다고 말한다(Ainsworth, M. D. S. et al., 1978, Bowlby, 2009에서 재인용). 즉, 주양육자와의 애착관계가 안정이 된 아이들은 다른 인물들과도 안정된 애착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지만 주양육자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다른 인물들과도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불비의 제자들은 어린 시절에 안정적인 관계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일수록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의 관계 적응 방식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방식에서 첫째, 회피형으로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회피하거나 들어주지 않아 부모로부터 거부당한 경험이 많거나, 혹은 아이에게 다른 것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통제된 경우 사람들과의 정서적 접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신체적 접촉 역시 불편해하거나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기 어려워하며, 부모를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서적 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것에 몰입하며 익숙한 것만을 반복하려 한다. 둘째, 무시형으로 부모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친밀함에 대한 요구를 무시당했던 사람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요구나 타인의 요구를 무시하려 한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피상적인 상태에 머무르려 하고 자신의 요구가 대부분 거부당한 기억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 옳고 타인은 그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채우지 못한 요구를 채우기 위해 상대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려 한다. 그러나 내면에는 여전히 거부당한 두려움과 자신이 부족하다는 무력감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타인에 의존하게 된다. 셋째, 집착형으로 어려서 자신의 요구가 일관성 있게 채워지지 못했던 경우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려 한다. 이들은 때를 쓰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경험 때문에 자기의 욕구 충족에 집착하며, 사람이 아니라 관계에 몰두하지만 안정적 관계보다는 갈등관계를 무의식적으로 만들고 그 관계의 갈등에 집중한다. 갈등 관계가 괴롭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부터 자극과 흥분을 느끼기

도 한다. 이들은 관계를 맺어도 항상 꼬투리를 잡아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관계를 단절하게 만든다. 넷째, 혼란형은 부모 간의 갈등이 심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하였거나, 우울하였던 문제로 인해 집안 분위기가 안정적이지 못했을 경우 가정은 공포의 근원지가 된다. 이러한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 불능으로 인한 분노, 무력감, 정서적인 경직으로 인해 억압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게 된다. 이들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여 정서적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갈등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항상 불안하게 만든다. 이러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감정적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곤 한다(김영애, 2015).

엄마가 자신의 아이를 다루는 방식은 부분적으로 엄마의 인성과 아이에 대한 엄마가 가졌던 최초의 생각, 엄마 자신이 자라난 가정에서 했던 엄마의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Frommer & O'Shea, 1973; Wolkind et al., 1977, Bowlby, 2009에서 재인용). 불행하거나 붕괴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비합법적인 아이들을 갖거나 십대에 어머니가 되거나 불행한 결혼을 하거나 이혼하는 가능성이 더 크다. 자식을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부모들은 방치, 거부, 폭력으로 특징지어지는 어린 시절을 보낸 경향이 있다. 붕괴된 가정에서 자란 여자들은 어머니가 되면 아이들과 이야기를 적게 하고 신체접촉을 덜하며 쳐다보는 양이 적은 경향이 있다(Wolkind et al., 1977. Holmes, 2005에서 재인용).

이러한 요인들로 결정된 아이의 애착행동은 이미 조직화되어 있는 양식은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 아이가 나이를 먹어 가면서 수정을 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며, 현재적인 경험이 미치는 영향 또한 점점 더 적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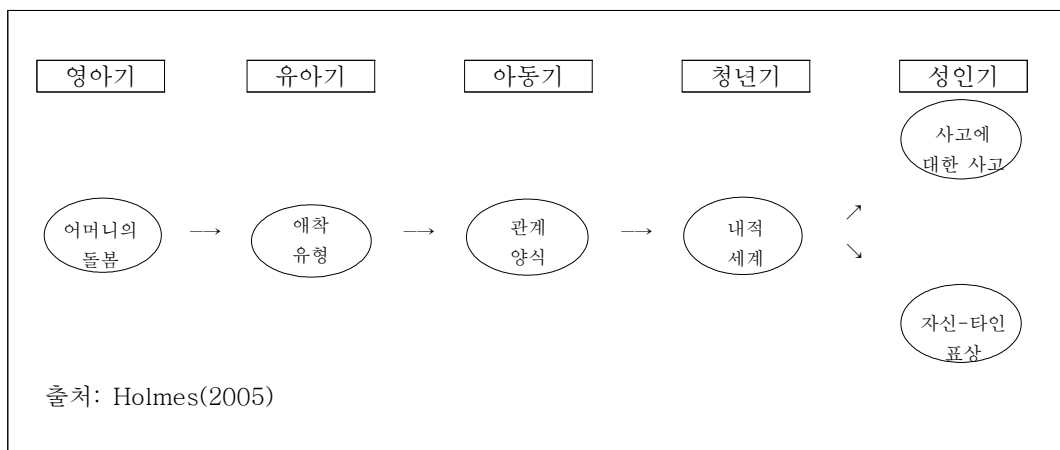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s)이란 애착대상과 영아가 형성한 애착관계의 질이 이후 발달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삶과 세상에 대한 표상에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지양식인 동시에 관계양식을 말한다(정옥분 외, 2006). 또한 내적작동모델은 영아가 양육자의 반응성과 접근가능성을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해 형성한 정신적 표상을 의미한다(Holmes, 2005).

내적작동모델은 생애초기에 애착대상과의 상호작용 패턴에 의해 구성되는데, 애착대상으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을 한 아동은 그 애착대상에 대해 부정적인 내적 표상을 지닐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가치 없고 수용되지 못한 존재로 내

적 작동모형을 형성하게 한다. 반면, 애착대상이 자신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며 도와준다고 느끼면 애착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과 함께 자신에 대해서도 능력 있고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작동모형을 형성하게 된다(박영순 외, 2010). 내적작동모형은 감정이나 행동과 관련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유기체적 개념으로써 안정 애착의 경우 긍정적인 내적작동모형을 다른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에도 반영하여 나타내며, 특정관계에 대한 개개인의 내적 모델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개념 그리고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포함하게 된다(정옥분 외, 2006).

홀즈(Holmes, 2005)는 영아기의 애착유형이 내적 작동모형을 통해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동안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해 <그림 2>와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돌봄을 통해 결정된 애착유형은 아동기의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더 나아가 청년기에 그 관계의 양상으로 나타난 결과를 자신의 내적 이미지로 받아들이게 된다. 결국 어린시절 형성된 애착유형은 내적작동모형을 통해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고 자신과 타인 혹은 세상을 향한 관계 개념 내지 규칙으로 작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2> 애착 유형의 발전



애착이 안정된 아동은 반응을 잘 하고 애정이 깊으며 신뢰할 만한 보호자 및 사랑받고 주목받을 가치가 있는 자신에 대한 내부작동모형을 저장하고 있어서 이러한 가정들을 모든 다른 관계에도 적용한다. 반면, 불안정 애착아동은 세상을

위험한 장소, 즉 다른 사람들을 매우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는 곳으로 간주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쓸모도 없다고 생각한다(Holmes, 2005).

또한 안정 애착 아동은 대개 자신들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면서도 자신들이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불안정 애착 아동들은 결점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자기 기술에 있어서도 부정적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Cassidy, 1988, Peter Fonagy, 2001에서 재인용). 안정애착 경력이 있는 아이들은 부정적인 사건보다 긍정적인 사건들을 좀 더 정확히 기억한다(Belsky et al., 1996, Fonagy, 2001에서 재인용). 이러한 가정들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영구적이어서 아주 어린 시절에 형성된 가정들은 특히 오래 지속되며 뒤에 겪는 다른 여러 가지 경험으로 인해 수정될 가능성도 없다(Holmes, 2005).

청소년기의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자기를 더욱 긍정적이고 유능하게 지각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 청소년들의 학업적 성취와 동기와의 관련이 된다(Eccles et al., 1991, 유성경 외, 2010에서 재인용). 청소년기는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또래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받는 시기로 설명되지만 피터슨(Paterson, J. E. et al., 1994)에 따르면 특별히 청소년 초기에는 또래보다는 부모를 더 활용하며 또래애착이 강해지더라도 부모는 청소년들이 여전히 지지를 받고자 하는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이다(유성경 외, 2010).

국내 연구에서도 안정애착 청소년들은 주된 애착 인물로 가족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이유는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며 혈연으로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이시은, 2003).

부모애착은 특별히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안정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물리적, 사회적 불안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pini & Roggman, 1992, 유성경 외, 2010에서 재인용). 또한 부모애착이 강할수록 자신감이 높고, 주의-참여 능력이 높고, 자기에 대한 불안감이 낮고, 평균 학점이 높으며(유성경 외, 2010) 학업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동기와 정적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earner & Kruger, 1997, 유성경 외 2010 재인용).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애착유형은 청소년기 내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애착의 세대간 전이

양육자에 대해 긍정적인 작동모델을 형성한 아동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이후 친구나 배우자와 상호 신뢰적 관계를 형성하며, 자녀를 보다 민감하게 양육함으로써 안정애착을 형성하게 한다(정옥분, 2006).

어린아이가 격려하고, 지지적이고, 협력적인 엄마를 경험하면, 그리고 조금 더 이후에 그러한 아빠를 경험하면, 이 경험들을 통해 아이는 자기 존재를 가치 있게 느끼고, 타인의 조력에 대해 신뢰하게 되며, 미래의 관계들을 구축해 나가는 유리한 기초 모형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 경험들을 통해 아이는 자신의 환경을 자신감 있게 탐색하고 효과적으로 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신의 능력에 대해 더욱 신뢰하게 된다. 이후로 가족관계가 지속적으로 호의적이라면, 이러한 사고, 감정, 행동의 초기 유형들은 지속될 뿐만 아니라, 인성 또한 적절히 통제되고 복원되는 방식으로 작동되도록 점차적으로 구조를 갖추게 되며, 불리한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는 다른 유형의 초기 아동기나 그 이후 시기의 경험들은 상이한 결과를 낳게 되는데, 대개 복원력이 낮고 통제력에도 결함이 있는 인성구조를 갖게 된다. 이러한 취약한 구조들도 또한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이후에 어떤 이의 인성이 어떤 구조를 갖게 되는가는 그가 추후의 불리한 사건들에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이 추후의 불리한 사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로는 거부, 분리와 상실을 들 수 있다(Bowlby, 2009). 즉, 주양육자에 의한 안정적인 애착은 양육과정에서 불리한 상황들, 부적절한 생태학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인성의 통제와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거부와 분리, 상실의 경험과 같은 주요한 사건들은 인성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의 아동기 애착경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구조화된 성인애착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에서 안정된 애착을 지니고 있는 성인들은 부모와의 애착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보고하고 애정적 보살핌과 위안을 받았던 상황들을 기술하였다(Fonagy, 2005). 그들은 아동기 경험이 고통이나 분리 혹은 상실로 구성되어 있을 때라도 자세히 그리고 신중한 방식으로 그것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으며 일관성 범주를 충족시켰다. 그러나 거부형 애착을 갖는 성인은 특이하

게도 아동기에 대한 기억을 거의 갖고 있지 않으며 그들의 삶에서 애착을 중요시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자주 부모와의 관계를 이상화하지만 자세하고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지 못했다. 몰입형 애착유형을 갖는 성인들은 면접에서 지나치게 자세하고 뒤엉켜 있으며 모순된 이야기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면접대상자는 자신의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순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해결되지 못한 외상이나 상실을 포함하는 조직된 애착의 내적 표상을 갖고 있는 성인들은 언어의 내용은 물론 사고과정과 정서적 경험에 대한 기술이 뒤죽박죽이고 명백하게 정신적 혼란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신병적 성향을 나타냈다(Fonagy, 2005).

메인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 이후 많은 애착연구자들은 애착의 세대 간 전이와 전 생애 동안의 애착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는데, 그 후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애착의 질적 특성은 자녀가 생후 1년이 되었을 때 부모에 대해 갖는 애착의 질적 특성을 예언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사례의 약 70%에서 부모의 애착표상(안정된-자율성, 거부형, 몰입형, 미해결형)과 아동의 애착분류(안정된, 불안/회피적, 불안/양가적, 혼란된)가 서로 일치하였다(박영순, 2010). 애착의 세대 간 전달에 관한 연구들에서 애착에 대한 부모의 마음상태(정신적 구조)가 자녀가 갖는 애착의 질적 특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Brisch, 1999, 박영순, 2010에서 재인용).

볼비에 의하면 안정적 어머니는 아기를 잘 보살피고 아기에게서 기쁨을 찾고 아기가 불만스러워하거나 공격적일 때는 만족할만한 방법으로 잘 대응해주는 등 아기에게 민감하며 잘 맞추으로써 안정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또한 안정적 어머니와 안정적 아동은 자기반성과 화술능력이 매우 잘 발달되었으며, 자신들의 삶을 통해 늘 일관된 감정을 보인다. 반면, 불안정한 아동, 특히 회피적인 아동의 어머니는 아이를 안거나 신체적 접촉을 힘들어하며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지 않아 그들의 수준에 맞추지 못한다고 하였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어머니 역시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어린 시절에 대해 생동감이 없었고 자세하게 기억하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볼비는 부정적 감정을 처리하는 능력, 즉 이별과 상실의 고통을 느끼고 해결하는 것을 심리적 건강의 주요 지표로 봤다. 불안정 유아의 부모는 아동들의 고민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며 이를 무시하거나(회피), 지나치게 간섭하고 경악하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양가적). 이런 부모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고민을 처리하거나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의 고통과 분노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며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된다. 부모가 스스로의 내적 갈등이나 허약한 자아 때문에 아동이 느끼는 고민, 부정적 감정과 분열의 공포를 처리하지 못할 때 아동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원초적인 방어기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즉 어머니가 없다 해도 아무 반응을 나타내지 않지만 장난감이나 형제들에 대해서는 뚜렷한 공격성을 보인다. 이와 같이 개인의 어린 시절 주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은 내적작동모델을 통해서 자신의 전 생애는 물론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애착이 세대 간에 전이 된다는 것이다(Holmes, 2005).

아이의 사회적 배경은 똑같이 중요한 애착 안정의 결정요소다. 대체로 성격이 좋은 부모의 아기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우울증이 심한 엄마에게 노출이 많은 아이일수록 불안정 애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Fonagy, 2005). 그러나 편부모 가정, 범죄자 부모, 실직, 과밀 가정, 정신질환 등 비교적 스트레스가 높은 박탈된 집단의 엄마들도 자신들의 반영 능력이 좋은 편이라면 아기들에게 안정된 애착을 이루게 할 가능성이 많다(Fonagy et al., 1994, Fonagy, 2005에서 재인용). 반영 능력이 좋다는 것은 부모 자신과 부모를 돌봐 주던 이들의 정신 상태를 반영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이런 능력이 있는 부모들은 아기와 부모의 정신상태 사이의 관계에서 볼 때, 아기 마음과 부모 자신의 마음에 있는 생각, 느낌, 바람에 관한 한 의식적으로 유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를 갖는 것을 말한다. 결국 무의식적으로 세대의 대물림이 일어나지만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면 환경요인이 부정적이라도 다음 세대에 안정애착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3)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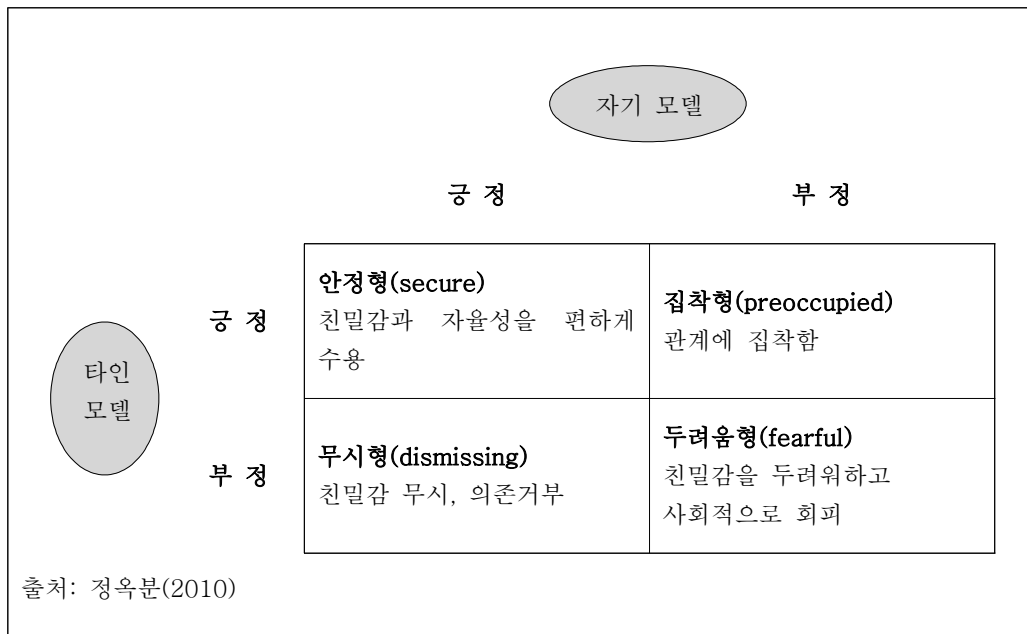
영아애착을 안정애착, 회피애착, 저항애착으로 처음 나누었던 아인스워스의 애착유형이 이후 메인과 솔로몬에 의해 혼란애착이 추가되어 4유형으로 분류된 것과 같이 3범주 모델은 바솔로뮤와 호로위츠(K. Bartholomew와 L. Horowitz)에

의해 <그림3>과 같이 4범주 모델로 추가되었다(K. Bartholomew & L. Horowitz, 226-244. 정옥분 외, 2010에서 재인용).

<그림 3>을 보면, 안정유형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만족감과 신뢰감이 모두 높은 성인애착유형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것을 말한다. 이 유형은 자기 자신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면서 주변의 자극에 대해서도 자신의 정서가 흔들리지 않으며 대인관계에서도 안정적이고 친밀한 감정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집착유형은 자신에 대해서는 무가치하다고 느끼지만 중요한 타인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의존한다.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인정과 지지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그러나 자기 가치가 낮으므로 타인이 지지해 주어도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주로 이들의 대인관계 패턴은 지속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고 매달리는 행동을 하여 상대방부터 짜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림 3> Bartholomew와 Horowitz의 4범주 모델



무시유형은 집착유형과 반대로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타인에 대해서

는 부정적인 성인애착유형으로 일반적으로 자기존중감과 자기 가치감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일 뿐이다. 타인에 대한 기대가 부정적이고 적대적이며 차가워서 타인과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 대인관계 패턴은 자신의 욕구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바솔로뮤와 호로위츠가 추가한 두려움유형은 자기 자신은 물론 타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자기존중감이 낮고 내향적이며, 거절이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 결국 이 유형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브레넌(Brennan, K. A. et al, 1998)은 성인애착을 불안애착(attachment anxiety)과 회피애착(attachment avoidance) 두 개의 독립적인 차원으로 나누었다(임수진, 2007). 불안애착은 자기가 사랑 받을 가치가 있다고 지각되는 정도, 타인의 거절과 내버려짐에 대해 불안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므로 자기표상의 차원과 관련이 된다. 회피애착은 개인이 타인을 반응하는 존재로 지각하는 정도,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과 타인에게 의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편안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므로 타인표상의 차원과 관련된다.

불안애착을 가진 개인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심리적 어려움을 과장한다. 반면에 회피애착을 가진 개인은 타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타인의 중요성을 감소시키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들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임수진, 2007). 그로 인해 회피애착유형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들의 파트너에게 덜 노출을 하고 개인적인 주제나 실망스러운 주제에 대해 덜 이야기를 한다(Collins & Read, 1990; Kobak & Hazan, 1991; Mikulincer & Nachshon, 1991).

임수진(2007)의 연구에 의하면 불안애착이 증가할수록 자기노출은 증가하였고 증가된 자기노출은 심리적 불편감을 증가시켰다. 불안애착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였으며, 심리적 불편감과 도움추구 행동을 증가시켰다.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용한 지지자원이 있더라도 부정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주위의 사람들로 부터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불편감이 호전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

하여 자신의 어려움을 더 크게 지각한다. 회피애착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 내적작동모형을 가지고 있어서 타인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며, 자신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내적 신념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타인의 중요성을 평가 절하하는 경향성이 있다. 이들은 타인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고 부인하기까지 한다. 회피애착의 사람들은 자신의 심리적 불편감을 다른 유형에 비해 더 낮게 보고 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어려움이 없거나 낮기 때문에 도움추구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남녀의 차이를 봤을 때, 남자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자기노출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통해 심리적 불편감에 영향을 미쳤지만, 여자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자기은폐를 통해 심리적 불편감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안정적 애착은 사회적 지지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며 사회적 지지를 유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경향이 있지만 불안정 애착유형은 과도하게 독립적이거나 불신 등의 부정적 관계망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고은정, 1996).

불비는 불안정 애착의 결과, 청소년 및 성인기에 지나치게 타인의존적, 자기의존적, 혹은 강박적 보살핌 등 부적절한 행동양식을 보인다고 하였다. 특별히 부모애착은 이성관계에 대한 신념과 관련되며 또한 이성관계에 있어서 만족도와 상호적 문제해결전략 사용과도 관계된다. 따라서 애착 유형에 따른 정서 경험 및 대인관계 양상 혹은 갈등상황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Feeney & Noller, 1990).

청소년의 자동적 사고와 공격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부모애착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공격성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여준다.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이므로 문제행동을 적게 나타내지만, 불안정 애착을 가진 청소년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유성경, 2010).

애착에 대한 여러 종단 연구결과에서도 안정애착으로 분류된 영아는 유아기에도 안정적이었으며 특별한 환경적 변화가 없는 한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도 안정

적이었다. 그리고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자율적인 성인으로 발달하였다(Holmes, 2005). 그러나 초기에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더라도, 성인의 연인관계를 통해서 안정된 기지를 제공받고 탐색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 받는다면 불안정 애착에서 안정 애착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즉 생애초기에 형성한 애착도 중요하지만 성인초기에는 애착행동과 관심이 부모로부터 이성에게로 향하게 되면서 애착대상의 위계에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Hazan & Shaver, 1987).

포나기(Fonagy, 2001)는 정신분석가의 이론에서 애착 현상에 대한 거의 유사한 현상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예로 에릭슨(Erik H. Erickson)의 기본 신뢰를 보면 그는 기본 신뢰의 결정 인자를 고려하면서 일차 돌봄자로부터 편안함을 받아들여 수용하는 것에 의존한다고 설명하였다. 불신(불안정 애착)은 편안함을 수용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저항)이거나, 움츠림이나 극심한 입 다물기, 음식 및 안락함 거부, 친구 사이에 신경 쓰지 않기(회피)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근본적으로 기본 신뢰는 애착 개념이라는 몇 가지 다른 지적을 보면 첫째 기본 신뢰는 구강기 충족이나 사랑 표시보다는 엄마와 상관관계의 질이 중재하는 유아기 경험으로부터 유래하였고, 둘째, 기본 신뢰의 실패는 건강한 성격의 반대가 되는 선행 사건이다. 셋째, 정신적 표상의 일관성 개념은 기본 신뢰가 세대를 지나 전달될 수 있는 방식의 핵심이다(일관성 있는 인간으로서 사람을 돌보는 경험). 넷째, 엄마의 민감도는 기본 신뢰의 핵심 결정 요소로 보았다(Fonagy, 2005).

이와 같이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에서 기본욕구는 애착형성에 있어 안정된 애착형성이 되지 못하여 결핍욕구로 남는다. 홈즈(Holmes, 2005)가 말한 것처럼 아동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원초적인 방어기체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역설적이지만 학대 받은 아이가 학대하지 않는 인물을 마다하고 학대하는 돌봄자와의 접촉을 추구하는 이유는 학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경험은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대하는 이는 예측 가능하고 익숙하므로 훨씬 더 안전감을 느낀다(Fonagy, 2005). 이러한 사실은 익숙한 현상이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으로 애착유형의 대물림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Brisch(1999)는 애착장애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 대해 애착 관련적 경험에

집중하는 것에 덧붙여 탐색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아동의 탐색욕구는 아동초기 동안 어머니는 물론 다른 중요한 애착인물과의 상호작용-극단적으로 왜곡된 혹은 장애를 가진-에 의해 방해 받을 수 있다. 아동이 탐색행동장애를 갖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어머니의 불안정한 애착전략이나 ‘마음상태’이다. 어머니나 아버지 자신의 정신 병리적 문제 때문에 부모는 아동에게 매달릴 것이고 그들의 불안은 아동의 탐색가능성을 억압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탐색의 형태는 아동에서는 물론 청소년과 성인들 사이에서도 매우 다양하다.

치료에 의해 제공된 안전기지는 정서적인 ‘새로운 시작’이거나 ‘수정된 정서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그것은 오래된 부적응적 애착패턴을 치료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위기여자청소년들의 부적응적 애착패턴은 자신의 양육과정에 대한 탐색을 통해 미충족욕구를 인식하도록 한 후 ‘수정된 정서경험’을 통해 애착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4. 결핍욕구

욕구(need)는 사전적 의미로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일을 말한다. 유기체를 활동하게 만드는 원동력인 물은 식물이나 동물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것이 없을 때에는 이를 얻으려고 하는 긴장 상태가 생긴다. 이러한 긴장 또는 원인은 활동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 동기는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내적인 직접요인의 충칭을 의미한다. 심리학 용어로, 동인(動因)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지만 동인이 기계론적인 반면, 동기는 목적론적 의미가 강하다(사회복지학 사전).

요구는 일반적으로 유기체 안에서 생기는 어떤 결핍 또는 과잉이 원인이 된다. 이러한 요구에 의해서 발생한 동인 또는 동기는 행동을 일으키게 하며, 그 행동이 유인(誘因) 또는 요구를 만족시키면 그 요구에 따른 동인 또는 동기는 그 작용을 정지하고 행동도 끝나게 된다. 이와 같은 요구-동인-유인의 기능적 관련을 충칭하여 동기부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동기부여의 과정은 이와 같이 내외의 요인이 서로 관련적으로 작용하는 데서 성립되는 것인데 어느 쪽에 중점이 놓이는가는 그때의 조건에 따라 좌우된다. 굶주린 동물의 구식활동(求食活動)은 주로 신체 내의 영양물질의 결핍이라는 내적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나,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오히려 외적 요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동기를 인간 내에서 행동을 지시하게 하는 직접적인 힘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활동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때, 커다란 의미에서 욕구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욕구는 유전적, 선천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기준이나 정도는 주관적, 상대적이며 경제, 사회, 문화의 조건에 의해 다르다(사회복지학사전).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충족되어지기를 바라는 기본 욕구(Basic Need)를 갖는다.

매슬로우(2008)는 기본 욕구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결핍이 장기화되면 신경증이라는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기복 욕구가 충족 되지 못하면 결핍상태가 되고 그 결핍의 결과 특정 상태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신경증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는 기본 욕구의 충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질병이 생기고, 기본 욕구를 충족시

키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기본 욕구의 충족을 회복하면 질병이 낮고, 어느 정도 자유로운 선택 상황에서 기본욕구가 결핍된 사람들이 다른 욕구의 충족보다 그 욕구의 충족을 선호하고, 건강한 사람에게서는 그런 욕구가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욕구는 두 가지 주관적인 특성을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다. 첫째, 사람들은 이런 욕구가 결핍되었을 때 그런 욕구를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바라거나 소망하고, 그러한 욕구가 결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둘째, 사람들은 부족한 그런 욕구를 선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매슬로우의 또 다른 이론의 핵심으로는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이 있다. 자아실현의 개념은 두 가지를 내포하는 데 첫째, 인간존재가 가진 잠재적 능력과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잠재적 능력과 잠재적 가능성의 실현은 ‘홀탕히 기능함’을 의미하며 인간 본질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다. 둘째, 자아실현이란 건강 악화, 신경증, 정신병의 존재를 최소화하고, 기본적인 인간적, 개인적 능력 상실의 최소화 또는 기본적 인간능력의 상실 혹은 감퇴 등이 가장 적게 있는 상태를 말한다(Maslow, 1970, 김은아, 2011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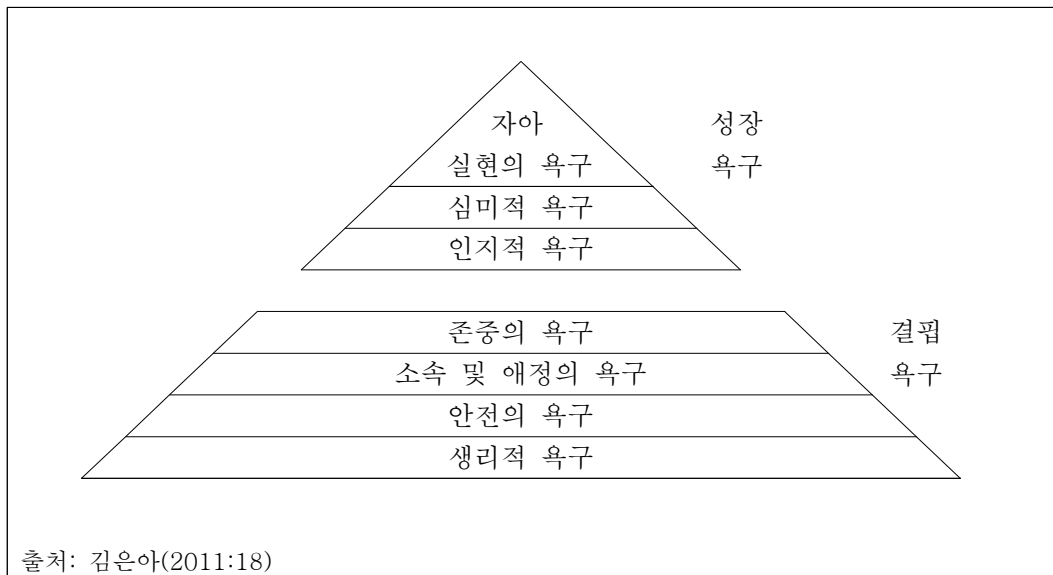
그는 또한 자아실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하였는데,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 즉 자아실현인은 동기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동기적 측면에서 모든 인간은 선천적인 동기를 갖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개개인이 스스로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실현시키려는 일반적인 동기가 포함된다.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모든 인간은 이러한 동기들을 의식의 이면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선천적 동기는 단 한 순간도 동기가 유발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이 불가능하며, 실제로 깨어 있는 순간마다 특정 동기를 갖고 있으면서 그 동기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동기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한다(Maslow, 2008).

결국 모든 인간의 동기는 위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위계적 구조 내에서 긴박성, 강도, 우선성 차원에 따라 배열된다는 것이다. 위계적 동기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생리적, 안전, 소속 및 애정, 존중의 욕구로 이러한 욕구들을 기본 욕구라고 한다.

이처럼 위계적 구조에 따라 기본욕구가 충족된 사람들은 더욱 상위의 욕구로

동기화된다. 그러기 위한 전제조건은 현재의 기본욕구가 충족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이후에야 한 단계 높은 상위동기가 발생하고 그것을 인식하게 된다. 즉, 생리적, 안전, 소속 및 애정, 존중의 기본 욕구들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자아실현의 욕구로 동기화되는 것이다. 이를 성장동기(growth motivation)라고 한다. 매슬로우는 결핍동기와 성장동기를 설명하기 위해 위계적 구조를 [그림 4]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4] Maslow의 동기 위계구조



[그림 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결핍의 욕구에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및 애정의 욕구, 존중의 욕구가 있고, 성장의 욕구에는 인지적 욕구, 심미적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낮은 차원의 욕구들이 높은 차원의 욕구들보다 더 우세하다. 따라서 생리적 욕구는 안전의 욕구보다 더 강하고, 안전의 욕구는 소속 및 애정의 욕구보다 더 강할 수 밖에 없다. 모든 욕구는 하나의 통합된 위계로 배열되어 있으므로 높은 차원의 욕구는 낮은 차원의 욕구에 의존해 있고, 낮은 차원의 욕구들의 기초 위에서야 높은 차원의 욕구가 발달하게 된다.

인간은 삶의 활동 전체를 통하여 어떤 것을 열망하고 살아가는 존재 즉, ‘모자라는 것을 채우려고 열망하는 동물’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핍적 욕구를 충족해

가면서 인간은 비로소 성장을 향한 욕구를 지니게 되는데, 각 단계를 거쳐서 욕구의 위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욕구인 자아실현 욕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각 단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Maslow, 2008).

1단계인 생리적 욕구는 모든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유기체의 생존과 유지에 관련된 욕구이다. 즉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음식, 물, 공기, 수면, 성 등에 관한 생리적 욕구가 다른 욕구에 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하다.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다면 다른 욕구들이 완전하게 차단될 수 있다. 생존 그 자체가 매일 매일의 관심사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리적인 욕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단계인 안전에 대한 욕구는 질서 있고, 안정적이며, 예언할 수 있는 세계에 대한 유기체의 욕구를 말한다. 안전 욕구의 만족을 위해 안전, 안정성, 보호, 질서 그리고 공포와 불안으로부터의 자유가 요구된다.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된 후 계속 일어나는 욕구이다.

3단계인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는 생리적 및 안전의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되면 생겨난다. 개인은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 특별한 친구 관계, 연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며 특별한 집단에 소속되기를 바란다. 애정 욕구는 사랑을 주거나 받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 긴밀하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충족될 수 있다.

4단계인 존중의 욕구는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를 충족하면 나타난다. 매슬로우는 인간이 두 가지 존중 욕구, 즉 자신으로부터의 존중과 타인으로부터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존중의 욕구를 충족시킨 사람은 자신의 힘, 가치, 적절함에 대해 확신을 갖는다. 반면에 자아존중이 결여된 사람은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구제불능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용기를 잃게 되어 여러 가지 문제에 맞설 수 있는 확신을 잃게 된다. 참된 자아존중은 자신의 능력과 경쟁력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 위에 기초해야만 한다고 지적하였다. 사회적 지위와 명성, 그리고 훌륭한 평판은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유능감과 숙달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인 5단계 자아실현 욕구는 위의 네 단계와 확연히 다르다. 이전 단계들은 외부적인 것으로 환경에 의존적이기에 외부상황에 자신을 맞추어 나가게 됨으로 타인 지향적이 되나, 자아실현 욕구는 좀 더 자율적이고 자아 지시적이고

자아 충족, 자아 만족이 이루어져 있다. 이를 지배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사회적이거나 환경적인 것보다도 내적인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잠재적인 자기 자신을 실현하려는 경향 또는 인간이 점점 더 특이하게 되고 그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려는 욕구를 말한다.

성장이란 기본 욕구가 사라질 때까지 그러한 기본 욕구를 점진적으로 충족시키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기본 욕구를 초월하는 특별한 형태의 성장동기, 가령 재능, 능력, 창조성, 타고난 잠재력 같은 것들이다. 따라서 기본욕구와 자기실현이 미성숙과 성숙의 관계처럼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며 자기실현으로 발전해갈 때, 이러한 자기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 바로 기본 욕구이다(Maslow, 2008).

그러나 매슬로우는 결핍동기의 위계구조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성장동기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이런 결핍동기와 성장동기의 구분은 개인의 동기가 그 개인의 지각, 인지 및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다르다. 결핍동기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은 그 동기가 행동을 지배하고 지각과 인지상태를 왜곡시킨다. 그러나 동기가 충족되면 더 이상 왜곡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성장욕구로 인해 자아실현인들은 삶의 모든 측면을 향유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가끔 발생하는 성공의 순간, 성취의 순간이나 최고조 그리고 절정경험의 순간만을 즐긴다. 즉 자아실현인은 성장의 동기, 혹은 성장의 욕구로의 지향이 강한 반면, 다른 사람들은 결핍동기의 충족에 만족한다(김은아, 2011).

여기서 다시 결핍동기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결핍 동기화된 사람은 주로 성장 동기화된 사람보다 타인에게 훨씬 더 많이 의존적이다. 또한 원하는 것이 더 많고, 더 종속적이며 의존성으로 인해 대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들은 사람을 볼 때 주로 욕구 충족자나 공급의 원천으로 보며 사람을 완성체나 복잡하고 독특한 개인으로 보기보다는 유용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지각자(知覺者)의 욕구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간과되거나 또는 지각자를 지루하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고 때론 위협하는 존재들이다. 지각자의 결핍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다른 사람을 사심 없이, 보상을 바라지 않고, 유용성과 무관하게, 바라는 것 없이, 그리고 그 사람을 유일하고, 독립적이며, 그 자체로 목적적인 존재, 다시 말해 도구라기보다는 한 사람으로

지각하기가 더욱 더 어렵다(Maslow, 2008).

매슬로우(2008)는 볼비가 주로 연구한 사랑에 관한 욕구는 결핍욕구라 하였다. 그것은 채워져야 하는 구멍이고, 사랑을 쏟아 부어야 할 빈 공간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즉 필수품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양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없으면 심각한 병리가 발생하지만 이용할 수 있으면 병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아이의 욕구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아이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는 영원히 무의식에 남아서 충족시켜주기를 끊임없이 요구하기 때문이다.

심리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요한 특징은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경증은 결핍으로 인한 질병으로 치료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것을 공급하거나 환자가 그것을 직접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단지 그 사람이 새로운 경험을 하면 그러한 경험을 더욱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그가 성장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뿐이며, 그의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이다. 성장경험을 선호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 그 사람뿐이다. 개인을 ‘건강한’ 성장의 방향으로 인도하고 지도하기 위해 동기의 위계적 구조에 관한 원리를 모든 연령대에 적용시킬 수 있다. 자신에게 즐거운 일들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성인기에서조차 희생된 자기를 재발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치료과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첫째, 어린 시절 필요로 한 타인의 승인을 성인에게는 똑같은 형태와 정도만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둘째, 타인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나약하고, 무기력하며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동반하는 데, 성인기에는 이러한 공포가 어릴 때만큼 사실적이거나 정당하지 않다. 타인의 중요성은 아동보다는 성인에게서 더 적을 수 있고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Maslow, 2008). 그러므로 아동기의 심리적 손상의 회복에 있어 성인기에서의 회복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은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며 사회는 모든 사람들의 동기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학적 환경이 좋은 사람들은 성장 동기

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의 사람들은 결핍동기화 될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결핍 동기화된 사람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을 공급해주면 좋지만 공급해주지 못하는 혹은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직접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성장 동기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과 맺는 ‘타산적’이고 욕구 충족적인 관계의 한 가지 특징은 대개의 경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기의 소녀는 칭찬 그 자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칭찬을 누가 하느냐는 별로 중요치 않다. 이 사람이 칭찬을 하든 저 사람이 칭찬을 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애정이나 안전을 제공하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Maslow, 2008).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위기여자청소년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결핍 동기화된 사람들이고 삶의 목표가 결핍동기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위기여자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되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모두 결핍 동기화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들을 돕기 위한 방법은 결핍동기를 성장 동기로 바꿔줄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라 할 수 있다.

Ⅲ. 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 개발절차

프로그램 개발은 일련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프로그램 개발자가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주관적인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과학적이고 엄격하게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어떤 요인이 어떤 방법으로 기능해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환경이나 맥락, 대상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재구성할 수 있다(김창대, 2003).

김진화(2001)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원리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프로그램 개발의 출발은 프로그램 실시대상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연구대상이 무엇을 체험해야 하며, 왜 그것을 체험해야 하는지, 의미 있는 체험이 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연구대상의 욕구와 필요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넷째, 프로그램 개발은 기술적 측면, 내용적 측면, 설계측면, 의사결정측면이 고려된 통합적인 조화가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다. 다섯째, 프로그램 개발은 단순히 선형적 접근방법보다는 순환적이고 체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프로그램은 창조성, 현실성, 논리성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는 개발모형을 구성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개발모형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다. 즉, 프로그램 개발절차는 기획, 설계, 실행 및 운영관리, 평가, 개정 등의 5단계로 설정할 수도 있고, 기획, 설계, 실행, 평가 등의 4단계로 설정할 수도 있다. 혹은 이를 통합하여 기획, 시행, 평가의 3단계로 개념화 할 수도 있다. 각 단계에는 개발상의 목표와 일련의 구조적 특징이 있으며, 이는 다시 몇 가지 하위단계로 세분될 수 있다(박은민, 2008).

박인우(1996)의 프로그램 개발모형은 <표 III-1>과 같이 1단계 조사, 2단계

분석, 3단계 설계, 4단계 개발, 5단계 실시, 6단계는 총괄평가로 제시하였다.

<표 III-1> 프로그램 개발 모형

단계 구성		단계별 과제
1단계	조 사	① 문제를 진술한다. ② 대상자의 범위를 정한다. ③ 문제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한다.
2단계	분 석	④ 프로그램 목표를 진술한다. ⑤ 과제 및 내용을 분석한다. ⑥ 하위 목표를 진술한다.
3단계	설 계	⑦ 평가문항을 작성한다. ⑧ 동기유발 전략을 수립한다. ⑨ 프로그램 제기 전략을 수립한다.
4단계	개 발	⑩ 전략에 따라 프로그램에 필요한 프로그램 지침서를 개발한다. ⑪ 형성평가를 실시한다.
5단계	실 시	⑫ 프로그램을 대상자에게 실시한다.
6단계	총괄평가	⑬ 반응평가를 실시한다. ⑭ 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 ⑮ 적용도 평가를 실시한다.

출처: 박인우(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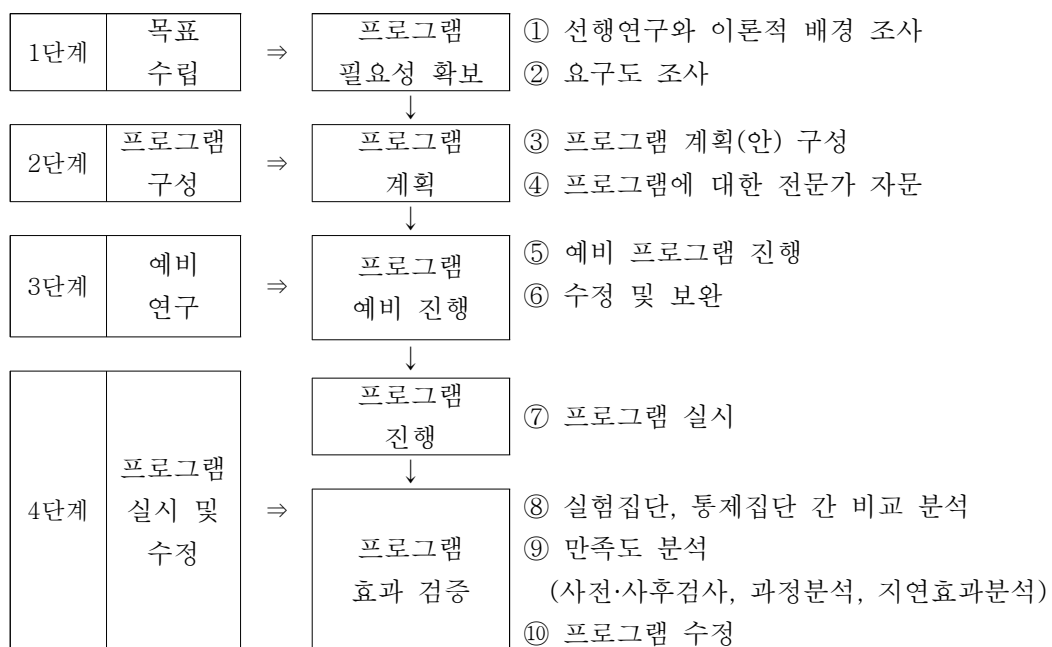
박인우의 개발 모형을 보면 단계구성에 따른 단계별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단계별 과제를 보면 문제 선정 및 요구조사 후 분석 및 설계과정을 거쳐 개발하고 실시 후 평가과정을 거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흐름을 잘 보여주는 모형으로 대부분의 프로그램 개발이 이 모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박인우의 개발 모형은 교육공학 및 교육과정 분야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모형으로 적합하다고는 할 수 없다.

김창대(2002)는 여러 학자들의 모형을 참조하여 4단계로 구성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모델을 제시하였다. 1단계는 목표수립 단계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요구도 조사를 하여 요구조사의 결과에 따라 목표를 수립하고 프로그램의 계획안을 구성한다. 2단계는 프로그램 구성 단계로 프로그램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프로그램에 포함될 활동을 수집, 정리하며, 각 활동 측면에서의 잠정적 평가와 함께 평가 결과에 따라 활동, 내용, 전략을 선정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프로그램 활동은 경험적인 검증절차 없이 선정되었으므로, 각 요소 활동에 대해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3단계는 예비연구 단계로 일차 구성된 프로그램을 소수의 대상에게 실시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를 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 전략 등을 수정할 때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4단계는 프로그램 실시로 이 단계에서는 예비연구를 통해 수정, 완성된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크고 작은 평가로 계속적으로 수정된다.

이처럼 김창대(2002)의 모형은 단계가 단순하면서도 내용에 있어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김창대(2002)의 모형을 참고하여 프로그램 개발 절차를 구성하였다. 이 연구의 절차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연구 절차



목표수립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조사를 하였으며 대상자들의 특성을 알기 위해 사례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구성단계에서는 프로그램 계획(안)을 구성한 후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구하여 1차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전문가 자문은 가족학 전공 교수 1인, 심리학 전공 박사 1인,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쉼터 현장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였다. 예비연구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해 소수의 대상에게 실시한 후 필요시 수정 보완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평가를 활용하기 위해 후기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2차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고 프로그램의 보완 및 수정 절차를 거쳤다. 프로그램 실시 및 수정단계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기 위해 프로그램 종료 후 사전·사후 검사, 과정분석, 지연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2.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이 연구의 목적은 해체가족 위기여자청소년들이 이성관계를 포함하여 대인관계를 안정적으로 잘 맺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해체가족 위기여자청소년들의 호소 문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체가족 위기여자청소년들은 가족이 해체됨으로 인해 가정으로의 복귀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해체가족이라는 가족배경에서 위기여자청소년들이 가정으로 복귀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호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요구도 조사로는 연령의 제한이 있어 호소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위기여자청소년들의 호소 문제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기여자청소년들이 가출 후 가정으로 복귀되지 못하고 좀 더 장기화 되는 위기여자청소년들의 특성과악이 필요하다. 가출은 또 다른 위기상황과 중복되어 있으면서 다른 위기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필수 조건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해체가족 위기여자청소년들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호소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대상자를 20대의 위기여성들로 선정하였다. 섭외를 위해 가출청소년쉼터의 협조를 구하여, 11사례 대상자 선정 후 면접을 실시하였다.

1) 면접조사 개요

(1) 사례대상자

이 연구의 사례대상자들은 청소년 시절 가출청소년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20대 여성들로 현재 이성과 동거를 하고 있으며 가출 이후 원가족으로 복귀하지 않은 공통점이 있다.

(2)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 방법

사례대상자와의 만남은 가출청소년쉼터의 협조를 구해 사전에 전화연락 후 면담요청을 하여 허락을 구하였다. 시간 약속 후 사례대상자가 있는 곳을 방문하여 일대 일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에 대해 사전에 인터뷰 내용을 설명하

였으며 면담시 양해를 구해 녹음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를 위해 면담자료를 사용할 것에 동의를 구하고 무기명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면담 소요 시간은 한 사례대상자 당 평균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녹음분석에서 미진한 부분은 전화면접을 통해 보완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만나기로 한 사례대상자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는 일이 빈번하여 만남을 성사시키기가 어려워 2014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6개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13사례로 시작을 하였으나 사례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면접이 중단되어 다시 재면접을 위한 약속이 되지 않은 경우와 면접 과정 중 자신의 정보에 대해 불일치하게 답변한 경우인 2사례를 제외하여 최종 11사례로 분석을 하였다.

사례분석을 위해 일반적 특성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는 질문지를 만들어 시간을 단축했으며 그 외의 질문은 연구자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열린 질문을 통해 실시하여 단답식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답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을 때는 중간 중간 되물으며 내용의 의도를 최대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동거 선택의 이유, 위기여성들의 삶, 원가족과의 관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동거 선택의 이유에 있어서는 다시 가출 이유, 가출 후의 삶, 동거남과의 만남으로 나누어 알아보았고 둘째, 위기여성들의 삶에 있어서는 삶에 대한 태도, 동거남과의 관계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원가족에 대한 인식과 부모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2) 면접조사 내용

사례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III-3>과 같다.

연령은 모두 20대이며 현재 동거 중으로 출산경험이 있는 사례가 2건(현 동거인과의 출생자로 본인 양육 1명, 전 동거인 사이의 출생자로 친정에서 양육 1명)이다. 대상자들의 학력은 중졸이하가 6명(54.5%), 고졸이 5명(45.4%)이었으며 동거기간은 1년 미만이 6건, 1년에서 2년 미만 4건, 2년 이상 1건이다. 사례대상자들의 직업은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대상자가 5사례였으며 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대상자 4사례, 무직이 2사례로 나타났다. 동거남의 직업은 정규직이 8사례, 일용직 1사례, 무직이 2사례로 나타났다. 동거횟수는 처음이 9건, 두 번째가 1

건, 세 번째가 1건으로 나타났다. 동거인의 연령은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하였고, 동거인의 학력은 대졸 1명, 전문대졸 3명, 고졸 5명, 중졸 1명이었다.

<표 III-3> 사례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 (동거인)	교육 수준 (동거인)	직업 (동거인 직업)	동거 기간	출산 유무	동거 횟수
A	22(26)	중졸(2년제 졸)	일용직(목장근로)	13개월	×	첫번째
B	22(28)	중졸(4년제 졸)	일용직(음식점)	10개월	×	두번째
C	25(33)	중졸(고졸)	조리사(술집)	30개월	×	첫번째
D	21(19)	중졸(고졸)	일용직(일용직)	7개월	×	첫번째
E	21(24)	고졸(고졸)	옷가게점원(점원)	3개월	×	첫번째
F	25(40)	고졸(2년제 졸)	일용직(영업직)	6개월	○	첫번째
G	22(25)	초졸(고졸)	무직(목장근로)	12개월	○	첫번째
H	20(22)	고졸(중졸)	무직(무직)	6개월	×	첫번째
I	26(26)	중졸(고졸)	사무직(바리스타)	24개월	×	첫번째
J	27(30)	고졸(2년제 졸)	공장근로(농장근로)	7개월	×	세번째
K	23(23)	고졸(고졸)	옷가게점원(무직)	12개월	×	첫번째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비진학청소년들은 ‘고졸’학력으로 기회의 제한을 공통으로 경험하고 있고, 보통 이하의 낮은 자존감과 사회적 위축감을 느끼며 일상의 근로활동에서 잦은 노동권 참여의 부당행위를 경험한다(김지경, 2013). 따라서 이 사례대상자들의 경우 중졸학력이 54.5%를 차지하는 만큼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비진학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노동권 참여에 있어 더 부당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1) 동거 선택 이유

동거중인 20대 가출여성들이 왜 동거를 선택했는지를 알기 위해 단순히 동거를 하게 된 이유만을 묻게 된다면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놓칠 수 있다. 그러므

로 동거를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동거 선택의 이유를 알기 위해 가출 이유, 가출후의 삶, 동거남과의 만남으로 주제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① 가출 이유

<표 III-4> 가출 이유

가출이유	내용	대상자
가정폭력	부의 전부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 의한 폭력	A, K
성폭력	의붓형제에 의한 폭력	B, J
가정해체	부모의 가출, 입양 후 파기, 양친부모 사망	C, H, I
부모와의 갈등	이혼 후 한쪽부모와 갈등	D, E
비행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출과 유사	F
부모이혼	부모 이혼에 대한 충격	G

사례대상자의 가출 이유는 <표 III-4>와 같다. 사례대상자들의 가출이유는 가정폭력, 성폭력, 가정해체, 부모와의 갈등, 비행, 부모이혼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는 비슷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출을 한 A는 편부가정에서 생활했으며 조부, 백부, 숙부 모두 가정폭력 경력이 있고 조모를 제외하고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부의 형제가 모두 이혼을 하였다. A의 가정폭력 피해는 부모이혼 이후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남동생에게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K의 경우 편부, 계모가정에서 생활하였는데 K에게서 아버지가 싫어하는 친모의 모습이 보이게 되면서 가정폭력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부가 전부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한 폭력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것은 변혜정 등 (2007)의 연구에서처럼 사례대상자가 모를 대신해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성폭력으로 인해 가출한 사례는 모두 의붓형제에 의한 폭력으로 재혼가족 성립의 취약한 부분을 볼 수 있다. 가정해체로 인한 가출의 경우 부와 모가 각각 가출을 하여 집에 남겨진 경우와 입양 후 파기, 양친부모 사망으로 인해 혼자 남

겨진 경우로 가정해체 이전 친인척관계가 전무 혹은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가출 대상자의 경우 한부모 가정에서 생활을 하였다.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모두 부의 모에 대한 학대였으며 이혼 이후 같이 생활하는 한쪽 부모와는 지속적인 갈등상태가 유지되었다.

그 외에 비행으로 인한 가출의 경우 유일하게 양친부모와 생활했으나 비행 전 가정폭력(신체적 학대)가 누적되어 있어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출로도 볼 수 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충격으로 가출한 경우 첫 가출이 초등 2학년으로 부모이혼에 있어서 자녀들에 대한 배려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사례대상자들의 가출에 영향을 준 요인들로는 첫째, 부모의 부부관계가 갈등관계였고 둘째, 양친부부가족에서 재혼가족이나 한부모 가족으로의 전환이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셋째, 부모의 무책임한 태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② 가출후의 삶

사례대상자들의 가출 후의 삶은 <표 III-5>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질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쉼터 퇴소 후 가정복귀가 되지 않아 1인가구를 형성하여 살다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동거가 시작된 유형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두 번째는 쉼터에서 타기관으로 이관을 한 이후 그 기관에서의 퇴소 절차 이후 바로 동거를 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쉼터에서 퇴소 후 동성친구와 함께 생활하다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동성친구와의 생활을 정리하고 남자친구와의 동거를 시작한 유형이다.

<표 III-5> 가출 후의 삶

가출 후의 삶	내 용	대상자
1유형	쉼터 → 1인 가족 → 동거	A, C, D, E, K
2유형	쉼터 → 타기관(소년원 등) → 동거	F, G, I
3유형	쉼터 → 동성친구와 동거 → 동거	B, H, J

세 가지 유형의 공통점으로는 쉼터 퇴소 이후 가정복귀가 한번도 되지 않았으며 동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단계를 더 거친 후 동거를 시작한다는 것으로 쉼터 퇴소 후 바로 동거를 시작한 유형은 없었다.

차이점도 역시 존재하는데, 쉼터에서 퇴소 후 1인가구를 형성한 대상자들의 경우 어느 정도 연령이 높으며 기본적인 생활비를 마련하고 퇴소를 하였다. 그러나 쉼터에서 타 기관으로 바로 이관을 한 대상자들은 첫 번째 유형에 비해 연령이 어렸으며 이전보다 원가족과의 관계가 더 나빠지거나 완전히 깨어진 경우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사례대상자들의 가출 후의 삶을 보면 쉼터 퇴소 후 가정복귀가 되지 않았고 가정복귀가 되지 않은 결과 1인 가구 형성이나 동성친구와의 동거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경제적인 영향으로 결정이 되는데, 최소한의 생활비를 마련한 대상자들은 1인 가구를 선택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동성친구와의 동거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쉼터에서 소년원으로 이관된 경우 소년원에서의 퇴소 시 생활비 마련, 가족적 지원 등의 지지체계 및 자원이 부족하여 곧바로 동거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서 가출 후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경제적 기반임을 알 수 있다.

③ 동거남과의 만남

사례대상자들의 동거남과의 만남도 <표 III-6>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었다. 경제적 이유로 동거를 시작한 사례는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체적인 이유로는 갈 데가 없어서(5사례), 방값을 나눠 낼 수 있어서(3사례)로 나타났다.

<표 III-6> 동거남과의 만남

동거남과의 만남	내 용	대상자
1유형	경제적 해결	B, D, E, F, G, H, I, J
2유형	친밀감 유지	A
3유형	외로움 해소	C, K

갈 데가 없어서인 경우 동거남이 마련한 집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보였으며 방값을 나눠 낼 수 있어서인 경우는 대상자가 혼자 살고 있는 상황에서 동거남이 들어온 형태를 보였다.

친밀감을 느껴서는 1건으로 이 경우는 다른 사례에 비해 교제기간이 1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외로움을 느껴서인 경우의 특징으로는 혼자 1인가구의 단계를 다른 대상자(A, D, E)보다 긴 시간 동안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동거를 시작하게 된 이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요인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많았으나 대체로 동거에 대해 주변의 반응을 살피거나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고 비교적 쉽게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어... 오빠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집에 있었거든요.
너무 같이 있는 게 자연스러워져서... 편해서? 그런 거 같은데. 별거 없어요. 그냥 진짜 자연스럽게. 적적했던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럴 걸요" (사례 C)

"원래 남자친구가 집을 싫어하고 저도 집 싫어하고 저 혼자 나와 살다보니까 남자친구도 자연스럽게 같이 살게 됐어요.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 눈 맞아 사귀다가 그냥 우리 집에 놀러오고 하다가 며칠 우리집에서 자다보니까 살게 되고 계획적으로 같이 살고 해서 산 게 아니라..." (사례 D)

(2) 위기여성들의 삶

사례대상자의 삶에 대한 태도는 <표 III-7>과 같다.

① 삶에 대한 태도

과거에 대한 이미지 역시 부정적이다가 9사례, 후회스럽다가 2사례로 과거에 대해 모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사례대상자들의 결혼생활에 대한 생각은 기대한다가 5사례, 부정적이다가 4사례, 걱정스럽다가 2사례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생활에 대해 기대한다고 한 사례대상자들 중 동거남과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2사례밖에 없어서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5사례 중에서 동

거선택의 이유가 경제적 이유로 시작한 경우가 3사례로 이 역시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의 연결이 부적절함을 엿볼 수 있었다.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는 7사례가 걱정, 막막함, 답답함, 혼란 등의 부정적인 감정(7사례)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30개월의 동거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 C가

<표 III-7> 삶에 대한 태도

	원가족의 이미지	과거의 이미지	결혼의 이미지	미래의 이미지	자아상	욕구	목표
A	부정적	후회	기대	답답함	보통	돈, 집	사회복지사
B	부정적	부정적, 후회	부정적	기대	부정적	돈	바리스타
C	부정적	후회	걱정	걱정	부정적	돈	요리사
D	부정적	부정적	기대	막막함	부정적	돈	가수
E	부정적	부정적	부정적	기대	보통	돈, 행복	옷가게
F	부정적	부정적, 후회	기대	기대	보통	행복	사회복지사
G	부정적	부정적, 후회	부정적	막막함	부정적	행복	보육교사
H	부정적	부정적, 후회	부정적	혼란	보통	행복	사회복지사
I	부정적	부정적, 후회	두려움, 걱정	기대	부정적	돈, 행복	엄마
J	부정적	부정적, 후회	기대	걱정	부정적	돈, 행복	돈 많이 벌기
K	부정적	부정적, 후회	기대	기대	보통	돈, 행복	귀여운 아기 갖기

미래에 노처녀가 될 것 같다는 얘기와 한 달간의 일한 경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사례 F의 얘기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례대상자들의 자아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이다가 6사례, 보통이 5사례로 나타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례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처녀가 될 것 같아요. 사람을 확실하게 믿는 편이 못 되어서...언니도, 엄마도, 아빠도 못 믿겠어요." (사례 C)

" 좀 풀릴 것 같아요. 원래 일하면 2주 가면 진짜 많이 간 거 거든요. 근데 한 달을 일을 하는 걸 보면 풀릴 것 같아요." (사례 F)

② 동거남과의 관계

동거남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거남과 미래를 함께 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례는 3사례(A, G, K)였고, 나머지 6사례에서는 동거남과의 미래에 대한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특히 사례 E를 보면 동거남과의 관계에 대해 자신의 선택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사례(A, G, K)가 동거남과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거시작의 이유가 빈약(경제적 이유 G, 외로워서 K)한 경우 관계에 대한 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사례 C인 경우 2년 6개월간 동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거남과 함께 미래를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례K를 보면 동거의 시작이 관계에 대한 이유보다 자신의 일방적인 욕구 해결을 위한 것으로 동거남과의 관계가 우려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다수 사례대상자가 동거남과의 결속력 내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관계는 언제든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나가겠죠 뭐. 같이 살다보니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다보니까 줌..." (사례 E)

"아직도 고민돼요. 이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하는지, 결혼까지 해야 하는지"
(사례 C)

"(너의 꿈은?)나 안 닮은 이쁜 애기 낳는 것, 제가 왜 남자를 외모로 보고 사귄 줄 아세요?" (사례 K)

③ 앞으로의 계획

사례대상자들은 앞으로 싸우지 않고, 아프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복지사, 바리스타, 조리사, 어린이집 교사 등

대부분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다수의 사례대상자들이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 사례도 보였다.

" (나의 평생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은?) TV를 보면 맘대로 걸쳐서 거리를 활보하는 된장녀처럼 풍족하게 살아 보고 싶어요." (사례 C)

(3) 원가족과의 관계

사례대상자들의 원가족과의 관계는 <표 III-8>과 같다.

<표 III-8> 원가족과의 관계

	가족형태	부/모와의 관계	원가족의 경제수준	부, 모 직업	결혼과정 (결혼사진유무)	부모의 부부관계
A	편부	애증/소원	저소득	목장, 무직	호의적 (결혼사진 ○)	나쁨 (가정폭력)
B	양친부모	원망/애증	차상위	농부, 농부	임신 후, 반대 (결혼사진×)	나쁨 (가정폭력)
C	편모	소원/애증	저소득	어부, 무직	출산 후, 무관심 (결혼사진×)	나쁨 (부의 외도)
D	편부	애증/원망	수급	무직, 일용직	출산 후 (결혼사진×)	나쁨 (의처증)
E	편모	애증/애증	저소득	전기기사, 마사지사	임신 후 결혼 (결혼사진×)	나쁨 (가정폭력)
F	양친부모	친밀/원망	수급	무직, 농부	중매 (결혼사진×)	나쁨 (가정폭력)
G	편부	원망/소원	수급	목수, 일용직	임신 후, 무관심 (결혼사진×)	나쁨 (모의 도벽,가출)
H	편모	원망/애증	수급	일용직, 일용직	무관심 (결혼사진×)	나쁨 (가정폭력)
I	편모	소원/소원	저소득	일용직, 주점	(결혼사진×)	나쁨 (가정폭력)
J	재혼가족	원망/소원	수급	무직, 무직	양가에서 모름 (결혼사진○)	나쁨 (가정폭력)
K	재혼가족	애증/원망	수급	일용직, 방과후 교사	출산 후 (결혼사진○)	나쁨 (의부증)

① 원가족에 대한 인식

가출 전 원가족의 가족형태를 보면 한부모가족 7사례, 재혼가족 2사례, 양친부모가족 2사례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친부모가족 2사례의 경우 모두 사례대상자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재혼가족으로 구성된 가족형태를 띄고 있었다. 그로 인해 사례대상자의 형제자매관계에 있어서는 친형제자매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다.

경제수준에 대한 인식에서는 11사례 모두가 저소득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국민기초생활수급가족이 4가족으로 나타났다.

부모직업을 살펴보면, 부의 경우 정규직(농사포함)이 3건(A, B, E), 일용직이 6건(C, F, G, H, I, K) 무직이 2건(D, J)이었으며 모의 경우 정규직(농사포함)이 2건(E, K), 일용직이 7건(B, D, F, G, H, I, J), 무직이 2건(A, C)이었다.

부모의 결혼과정을 살펴보면 양가부모의 축복 속에 결혼한 사례는 단 한 1사례 뿐이었다. 그 외 임신 후 결혼 3사례, 출산 후 결혼 3사례로 나타났고, 부모의 결혼사진이 있는 사례는 3건이었다. 대부분 연애훈을 하였으며 부, 모 중 어느 한 쪽이 재혼인 경우도 4건이 있었다. 사회적 통념상 절차대로 결혼한 사례는 단 1사례(A)로 부모는 양가의 승낙을 얻어 호의적인 결혼식을 올렸으며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였다.

결혼사진이 없었다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양가의 허락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특히 임신이나 출산 후의 결혼인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부부관계는 11사례 모두 갈등관계로 나타났다. 부부관계가 나쁜 주원인으로는 가정폭력이 7사례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외도 1사례, 의처증 1사례, 가출 1사례, 경제적 구속 1사례로 나타났다.

사례대상자들의 원가족에 대한 인식을 종합해보면, 양친부모가족 형태가 적고 경제수준이 낮으며 부모의 결혼과정 역시 주변의 축하를 받지 못하고 결혼을 한 경우가 많았으며 부모의 부부관계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② 부모와의 관계

사례대상자들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이 2사례, 부정적인 감정이 6사례, 애증의 감정이 2사례, 소원한

감정이 1사례로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감정 5사례, 애증의 감정 3사례, 소원한 감정 3사례로, 긍정적인 감정은 한 사례도 나타나지 않았다. 대부분 어머니와의 관계가 부정적이라고 해도 일반수준에서 벗어난 수준의 부정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모르는 사람. 적이죠, 적도 넘어서서 다른 사람, 아예 모르는 사람, 나를 투명인간 취급 했잖아요. 제가 사랑에 집착하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사례 J)

특히 사례J는 사랑에 집착하는 이유를 ‘모와의 관계가 부정적이어서’ 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모와의 관계가 사례대상자들의 현재의 삶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대상자들이 동거 이후 동거 사실에 대해 원가족이 인지하는 경우는 4사례이며 안다고 하더라도 원가족의 일부인 한쪽 부모만 아는 경우로 원가족의 가족원이 다 알고 있거나 서로 왕래를 하지는 않고 있었다. 또한 어린 시절의 원가족에 대한 기억으로는 11사례 모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연구의 모든 사례대상자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지 못하였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를 거부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닮아있는 부분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 놀라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 이는 부모의 부정적 삶의 패턴을 반복할 소지가 있다는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취는 날마다 마셔요. 어제 쉬니까 술을 엄청 먹었어요. 알콜중독자가 될까봐 겁나요. 술 먹다 보니 엄마가 이해가 되기도 하고...”(엄마가 알콜중독자) (사례 B)

“짜증을 잘 내는 거.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욱욱 올라오는데 아빠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재(동거남)를 무시하고 화내고, 아빠가 저한테 했던 모습이에요.” (사례 K)

실제로 모와 사례대상자의 삶의 형태가 비슷한 좀 더 구체적인 사례의 모습을 발견하였는데, 사례대상자 G의 경우 모가 18세에 임신 후 결혼생활을 시작하여 딸 셋을 두고 이혼을 하였다. 사례대상자의 언니는 23살로 결혼 후 아이 한명을 출산 후 이혼 하였다. 사례대상자는 현재 동거 중이며 아이 한명을 출산한 상태

이다. 또한 사례대상자의 여동생(19세)은 고등학교를 중퇴하여 큰언니 집과 사례대상자 집을 오가며 지내고 있었다.

종합적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보면 부와 모, 각각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행동패턴을 반복한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으며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부모의 삶을 반복하는 모습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3) 면접조사 결과

이 사례면접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도 조사로 실시되었다. 이 연구의 대상은 위기여자청소년들의 현재의 문제와 곧 그들에게 닥칠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같은 유형의 20대 위기여성들을 선정하였다. 사례면접의 내용으로는 위기여성들의 동거 이유,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과 원가족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대 위기여성들은 가정 내의 가정폭력, 성폭력, 가정해체 등의 문제로 인해 가출을 하게 되었으며 가출 후 쉼터를 이용하였다. 쉼터 퇴소 이후 1인 가족이나 동성친구와 동거를 하거나 혹은 타 기관 입소의 경험을 거쳐 동거남과의 동거가 시작되었다. 동거이유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외로움과 친밀함의 이유가 있었다.

둘째, 20대 위기여성들은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규직, 무직 순이었다. 일용직의 경우는 동거남의 수입이 더 많았고 정규직의 경우는 동거남의 수입이 높거나 낮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 미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으며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감정적이며 비현실적인 기대가 있었다. 동거남과의 관계는 미래를 함께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몇 사례가 있었으나 동거의 이유가 빈약하고 동거남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긍정적인 기대보다는 개인적인 욕구에 의한 기대를 보였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직업들을 꿈꾸었으나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욕구는 대부분 높았다.

셋째, 20대 위기여성들의 원가족은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등의 초혼해체가족의

형태가 많았다. 경제수준은 모두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부모의 직업은 일용직이 가장 많았다. 부모의 결혼과정은 대부분 양가 부모들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회적 통념상의 절차대로 결혼하지 못하였다. 또한 부모의 부부관계는 모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긍정적 관계는 아버지의 경우 2사례였으나 어머니의 경우는 한 사례도 나타나지 않았다. 어린 시절의 원가족에 대한 기억은 모두 부정적이었으며 가출 이후 연락과 왕래는 거의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기여자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대 위기여성들이 현재 동거를 선택하게 된 요인으로는 빈약한 가족자원 즉, 부모의 부정적인 부부관계, 빈곤, 가정폭력 등의 가정문제가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빈약한 가족자원으로 인해 가출을 선택하게 되고 가출이후에도 가족자원의 변화는 전무하여 원가족으로 편입하지 못하고 원가족 밖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야만 했으며 그 결과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 동거로 나타난 것이다.

둘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동거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수준은 여전히 원가족과 비슷한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로 인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현실적인 직업들을 꿈꾸기는 하나 돈에 대한 욕구는 높았다. 또한 동거남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부분 비현실적으로 미래를 꿈꾸거나 혹은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이 연구를 위해 면담을 시작하여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총 사례대상자 11명 중 4명은 동거가 종료되었음을 전달받았다. 사례대상자들 중 이미 동거의 경험이 있는 사례가 두 건이었다는 점을 본다면 사례대상자들의 동거가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또한 너무 쉽게 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동거는 최근의 젊은 사람들의 인식에서 나타난 동거유형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임을 알 수 있다(이연주, 2008). 즉, 최근의 동거양상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제약에 얽매이고 싶지 않은 사랑 중심의 동거라면 20대 위기여성들은 동거의 선택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높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명순 등(2008)의 연구에 의하면 미혼모들은 자발적 성관계에 의해 임신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아이를 양육할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피임에 무관심하여 피임을 하지 않았거나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피임을 하지 않았다. 이 연구의 사례대상자들 역시 피임에 대해 무관심했다. 뿐만 아니라 동거의 목적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상관없이 임신에 대해 아무런 염려내지는 주위 시선에 대한 걱정을 하기 보다는 임신으로 인해 동거남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유지되기를 바라며 심지어 안정된 가정이 될 것을 기대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따라서 그들 중 일부는 선행연구(이명순 외, 2008)처럼 다른 친구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에 대해 일종의 매력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마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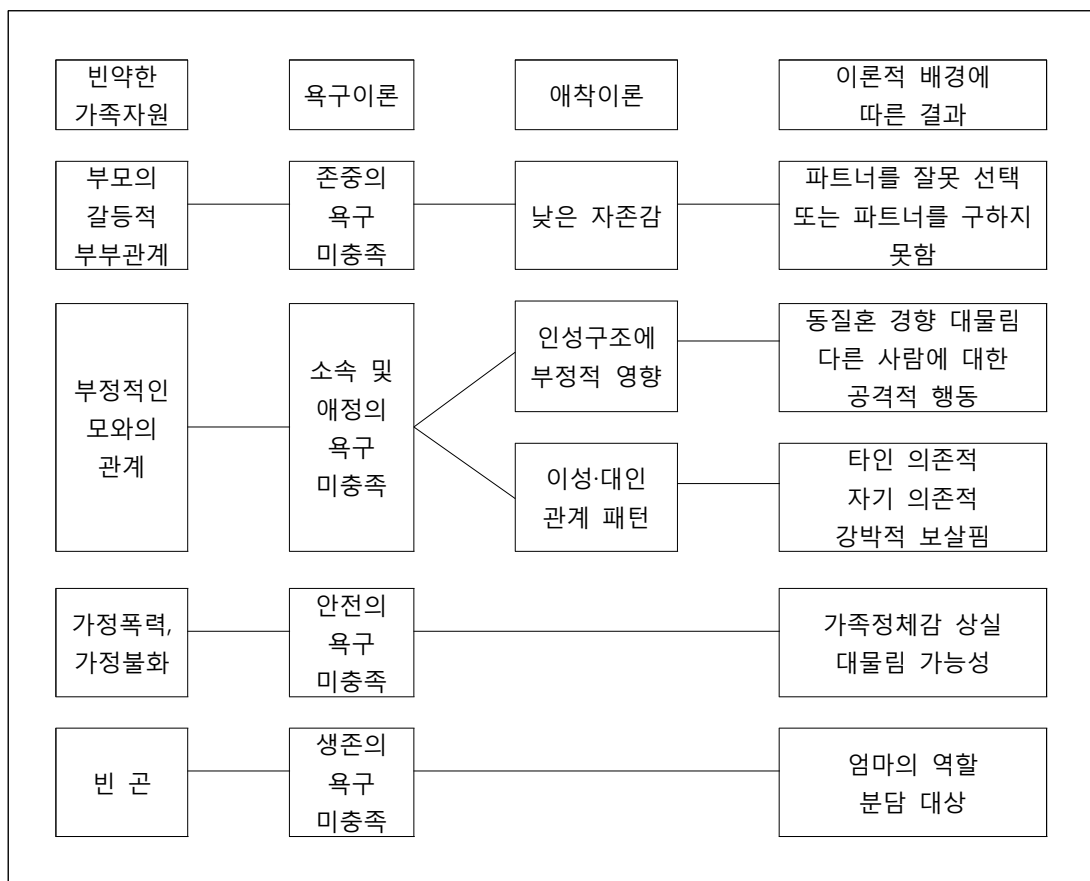
셋째, 사례대상자들의 부모들은 대부분 연애혼이었으며 결혼과정에 있어서 축복받지 못한 결혼으로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결혼초기 이후 한 사람과의 결혼유지는 한 사례도 없었다. 축복받지 못한 결혼을 시작했다는 것은 부모들 역시도 사례대상자들처럼 집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나 혹은 집 대신 도피처로서 결혼을 선택했을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준비되지 않은 결혼생활은 결혼유지에 악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특히 어머니들이 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원이 없는 가족 안에서 여성이 모성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는 선행연구(변혜정, 2007)를 지지한다. 그러나 어머니들을 무의식 중에 모델링하게 되는 딸은 여전히 원가족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원가족의 대안으로서 동거의 삶을 선택하지만 이 역시도 그들에게는 안전한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원가족의 빈약한 가족자원(경제적 빈곤, 역기능적인 가족관계)은 여자청소년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으며 원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여자청소년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은 동거 즉, 남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선택의 동기가 빈약한 동거는 늘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상태이며 만약 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또 다시 새로운 남자를 찾아 동거의 모습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그러한 동거의 반복 속에서 계획되지 않은 아이의 출산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그림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례연구대상자들의 원가족의 빈약한 가족자원은 빈곤, 가정폭력과 가정불화, 부모의 갈등적 부부관계, 부정적인 모와의 관계로 나타났다. 욕구이론을 통해 살펴보면 빈곤은 생존의 욕구를 미충족하게 만들고, 가정폭력과 가정불화는 안전의 욕구를 미충족시킨다. 부정적인 모와의 관계는 소속 및 애정의 욕구를 미충족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부모의 부부관계는 존중의 욕구를 미충족시킨다.

<그림 5> 사례연구 결과(연구자 구성)



또한 부정적인 모와의 관계는 인성구조와 이성 및 대인관계 패턴에 영향을 주며 부모의 부정적인 부부관계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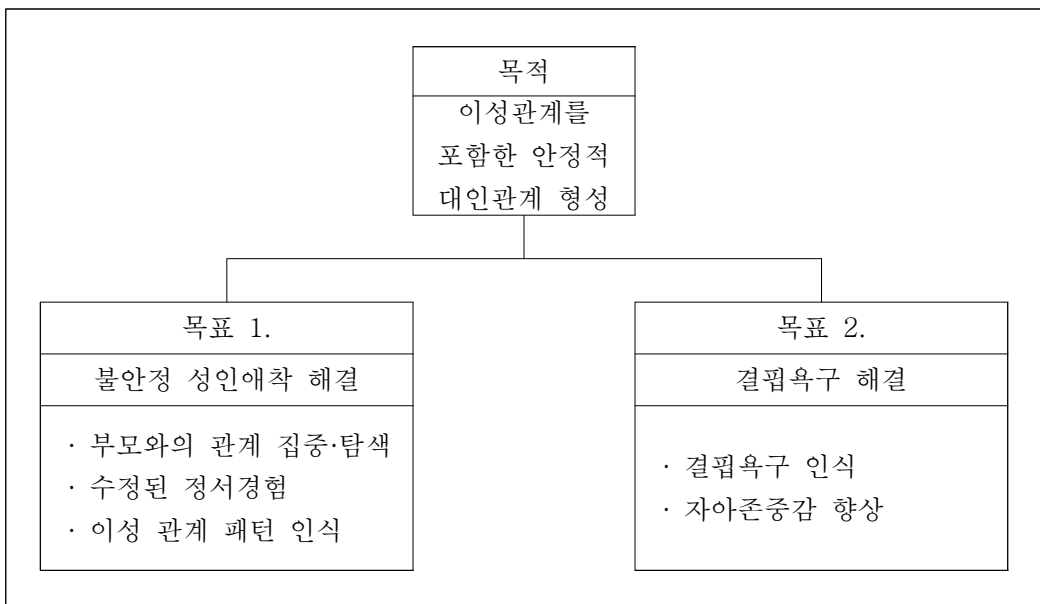
따라서 사례대상자들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자신의 결핍욕구가 무엇인지, 결핍욕구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들은 어떠한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파트너를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높여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탐색을 통해 부적응적 애착패턴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그림 6>과 같이 목적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즉 이성 관계를 포함한 안정적 대인관계형성을 위해서는 결핍욕구와 불안정 성인애착을 해결해야 한다. 결핍욕구 해결을 위해서는 자신의 결핍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로 인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안정 성인애착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탐색해 보고,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수정된 정서경험을 갖는다. 또한 자신의 이성 관계 패턴은 어떤지에 대해 알아본다.

<그림 6> 프로그램의 구성 요인



3.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1) 프로그램의 기초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 이론으로는 매슬로우의 욕구이론과 볼비의 애착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매슬로우의 욕구이론에서 보면, 위기여자청소년들은 기본욕구이면서 결핍욕구가 양육시절, 부모 혹은 주양육자로부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였고, 그 결핍 욕구를 채우기 위한 삶의 태도가 그들이 원가족의 삶을 재연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볼비의 애착이론에서 보면, 위기여자청소년들은 부모 혹은 주양육자와 안정애착이 형성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대인관계 방식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즉, 부모와의 불안정애착 패턴을 반복하게 만들었다. 사례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원가족에 대한 기억은 긍정적이지 않았고, 부모의 부부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부모와 사례대상자들과의 관계 역시 좋지 않았다. 특히 부와의 관계보다 모와의 관계가 더 부정적이었다. 이처럼 이론적 배경과 사례분석을 통해 위기여자청소년들은 결핍동기화 되어 있고 애착유형에 있어 불안정애착유형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불안정 애착해결과 결핍 욕구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구성은 <표 III-9>와 같다.

<표 III-9>의 프로그램 구성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서 미충족욕구 해결과 불안정 성인애착 해결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욕구이론에서 결핍욕구에 대해 프로그램 내에서는 ‘미충족욕구’로 단어를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위기청소년들은 부정적인 정서가 많은 대상자들로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미충족보다 결핍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어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수정하였다. 따라서 프로그램 제목에도 안정애착형성과 미충족욕구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술하였다.

미충족욕구해결을 위한 상위목표는 미충족욕구 인식과 자아존중감 향상이며

불안정 성인애착 해결을 위한 상위목표는 부모와의 수정된 정서경험과 이성관계 패턴 인식이다. 미충족 욕구 인식으로는 4가지 하위목표를 설정하였고 자아존중감 향상은 2가지 하위목표를 설정하였다. 부모와의 수정된 정서경험은 2회기에 걸쳐 1가지 하위목표를 설정하였고, 이성관계 패턴 인식 역시 2회기에 걸쳐 1가지 하위목표를 설정하였다.

<표 III-9> 프로그램 구성

요인	상위목표	하위목표	회기
미충족 욕구 해결	미충족 욕구 인식	나의 가치 점검하기	1회기
		나에게 영향을 주는 미충족욕구 살피기	2회기
		가족 안의 내 역할 확인하기	5회기
		감정의 원천 이해하기	9회기
	자아존중감 향상	내 삶을 다시 계획하기	6회기
		역경을 새롭게 인식하기	10회기
불안정 성인 애착 해결	부모와의 수정된 정서경험	모와의 관계 점검하기	3회기
		부와의 관계 점검하기	4회기
	이성관계 패턴 인식	이성 관계 점검하기	7,8회기

3) 프로그램 개요

이 프로그램의 개요는 <표 III-10>과 같다.

<표 III-10> 프로그램 개요

	제 목	내 용
1 회 기	나를 재는 저울	10분: 사전검사, 프로그램 설명 - 자아존중감척도, 성인안정애착척도 검사 40분: 프로그램 진행 - 나의 가치 점검하기 10분: 소감나누기
2	나를 가늠	10분: 지난시간 이후의 생각나누기

회기	채우기	40분: 프로그램 진행 - 의식주, 안전, 소속감과 애정, 존중에 대한 미충족욕구 파악 및 해결방법 찾기 10분: 소감나누기
3회기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10분: 지난시간 이후의 생각나누기 40분: 프로그램 진행 - 모와의 관계에 대해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 모와의 관계 돌아보기 10분: 소감나누기
4회기	내 파트너는 어디에서 왔는가?	10분: 지난시간 이후의 생각나누기 40분: 프로그램 진행 - 부와의 관계에 대해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 부와의 관계 돌아보기 10분: 소감나누기
5회기	아동기의 나를 돌봐주기	10분: 지난시간 이후의 생각나누기 40분: 프로그램 진행 - 아동기의 가족 내 나의 역할을 살펴본 후 앞으로의 나의 역할 재정립하기 10분: 소감나누기
6회기	나를 돌봐주기	10분: 지난시간 이후의 생각나누기 40분: 프로그램 진행 - 부, 모와의 관계 개선 및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기 10분: 소감나누기
7회기	파트너와 마주보기 I	10분: 지난시간 이후의 생각나누기 40분: 프로그램 진행 - 파트너와의 평등을 위해 경제적인 부분에서 찾아보기 10분: 소감나누기
8회기	파트너와 마주보기 II	10분: 지난시간 이후의 생각나누기 40분: 프로그램 진행 - 파트너와의 평등을 위해 심리적인 부분에서 찾아보기 10분: 소감나누기
9회기	화 다스리기	10분: 지난시간 이후의 생각나누기 40분: 프로그램 진행 - 부정적인 대인관계의 원인 파악하고 해결하기 10분: 소감나누기
10회기	새로운 삶 찾기	10분: 지난시간 이후의 생각나누기 40분: 프로그램 진행 - 성장을 위해서는 역경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을 깨닫기 10분: 소감나누기, 사후검사, 마무리

각 회기는 1시간이 소요되며 각 회기마다 프로그램 진행 전 10분, 프로그램 종료 후 10분의 시간을 두어 생각과 소감나누기의 시간을 갖는다. 프로그램의 기본 흐름은 ‘생각해보기-생각의 뿌리 찾기-새롭게 생각하기-새로운 생각 씨 뿌리기’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을 순서대로 작업수행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사고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뿐 아니라 사고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회기마다 생각나무라고 이름 붙인 좋은 글과 정보 글을 넣어 회기를 마무리하며 그 회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넣어 효과성을 좀 더 높이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4) 프로그램 운영과정

(1) 예비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 전문가 자문 이후 내용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 일반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비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평가를 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예비프로그램은 본 프로그램에 앞서 소수의 비슷한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그러나 위기청소년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대처기제를 주로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인식하는 데 무감각한 특성을 갖는다(고미영, 2004). 그로 인해 위기청소년들은 정서관련 프로그램에서 어려운 조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청소년 입장에서의 내용 타당도를 위해 일반후기청소년들을 선정하였다.

예비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2016년 7월 11일 ~ 15일(오후 1시 30분 ~ 3시 30분)간의 5일 동안 하루에 2회기씩 실시하였다. 참석자는 여학생 6명으로 진행하였다. 예비프로그램 소감 및 평가는 다음과 같다.

<표 III-11>과 같이 1회기 예비프로그램에 대한 소감으로는 자신의 가치기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고 가치기준이 어떤 계기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가 주를 이루었다. 평가로는 내용의 흐름이 일관성이 있으며 단어나 문장에 있어 청소년 수준에 적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의 적당한 인원은 6명 이내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다.

<표 III-11> 1회기 예비프로그램 소감 및 평가

회기	주요 소감 / 평가
1회기	<p>A: 자신의 가치기준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서 울컥함을 느꼈다. B: 자신의 가치기준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C: 자신의 가치기준이 다른 구성원들과 달리 너무 개인적인(이기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어서 당황스러웠다. D: 모가 부에게 많이 맞는 것을 보고 자라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기준이 형성된 것을 알게 됐다. E: 남녀차별을 받으며 자랐다. 그로 인해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가치기준을 갖게 된 것 같다. F: 소극적인 성격이라 친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가치기준이 달라지는 것 같다.</p> <p>* <생각해보기>→<생각의 뿌리찾기>→<새롭게 생각하기>→<새로운 생각 씨 뿌리기>의 순서에 맞게 내용의 흐름이 일관성 있는지 확인: 일관성 있다.(6명) * 글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어려운 단어 혹은 문장이 있는지 확인: 없음(6명) * 프로그램 참여자의 적당한 인원: 6명 이내(6명) - 프로그램 진행시 1회기의 시간이 너무 부족하거나 발표시 다른 아이들이 기다리는 것을 지루해할 수 있음.(다른 사람의 생각에 집중하지 못함.) - 제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제목만 보고 바로 이해하지 못함.) - 워크북 형태로 진행되기에 작성을 위한 생각의 시간이 필요하다.</p>

<표 III-12> 2회기 예비프로그램 소감 및 평가

회기	주요 소감 / 평가
2회기	<p>A: 어린시절의 미충족된 욕구가 여전히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B: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어린 시절부터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C: 다른 영역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안전에 대한 욕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것 같다. D: 정기적으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 가끔씩 스트레스가 쌓이면 산을 찾아가서 소리를 지르고 오는 데 여전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건 것 같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새로운 것들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p> <p>- 생각나무에 결핍욕구와 성장욕구에 대한 설명이 좋은 것 같다.</p>

<표 III-12>와 같이 2회기 예비프로그램에서는 미충족 욕구에 대한 인식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는 소감이 주를 이루었고 미충족 욕구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스스로 찾아야 되겠다는 소감을 나누었다. 또한 결핍욕구와 성장욕구에 대해 설명되어진 글이 첨부되어 있어서 좋다고 평가를 하였다.

<표 III-13> 3회기 예비프로그램 소감 및 평가

회기	주요 소감 / 평가
3회기	<p>* 전 회기이후 달라진 점 확인: 1회기 이후부터 얻어진 생각을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의식하면서 생각하게 됨.</p> <p>A: 이제까지의 프로그램들은 자신에 대한 탐색의 시간은 많았으나 엄마는 당연히 엄마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엄마에 대한 탐색의 시간은 처음이라 좋았다.</p> <p>B: 엄마와 닮은 것 같다. 그러나 내 삶에 있어 엄마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p> <p>C: 엄마도 원가족의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좋은 점은 닮고 안 좋은 점은 꼭 끊어서 대물림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느꼈다.</p> <p>D: 엄마를 닮은 게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p>
	<p>- 좋음</p> <p>- 수정사항 없음</p>

<표 III-13>의 3회기 예비프로그램에서는 모에 대한 탐색의 시간을 통해 처음으로 모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고 1회기 이후 일상생활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의식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표 III-14> 4회기 예비프로그램 소감 및 평가

회기	주요 소감 / 평가
4회기	<p>A: 엄마보다 아빠에 대해 더 아는 것이 없어서 당황스러웠다.</p> <p>B: 아빠와 파트너가 닮아서 좋아했는데, 닮지 않기를 바라는 것도 있는 것을 보니 이런 점을 의식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p> <p>C: 아빠를 닮지 말았으면 하는 남자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익숙함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p>
	<p>- 좋음</p> <p>- 수정사항 없음</p>

<표 III-14>를 보면 4회기 예비프로그램에서는 부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으로 남자친구와 부가 닮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남자친구를 잘 만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III-15> 5회기 예비프로그램 소감 및 평가

회기	주요 소감 / 평가
5회기	A: 신화나 동화쓰기는 무의식이 다 반영된 것이라 신기하다. 과거의 강렬한 사건과 역할 등이 현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B: 강렬한 사건이 지금의 나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C: 사건과 역할이 지금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게 됐다. D: 내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시각이 어릴 적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강렬한 사건과’를 ‘강렬한 사건이나’로 변경하면 더 이해하기 쉽겠다. - 질문 첨부가 필요하다. (예, 역할에 만족하는가?, 만족하지 못하다면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가?) - 결론은 ‘해피엔딩으로’를 미래 이야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다.

<표 III-15>의 5회기 예비프로그램에서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평가에서는 문장에서의 수정과 보충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표 III-16> 6회기 예비프로그램 소감 및 평가

회기	주요 소감 / 평가
6회기	A: 아버지, 어머니가 쓰는 편지가 내가 나에게 쓰는 편지보다 더 좋았다. B: 아버지, 어머니가 쓰는 편지를 옆에서 읽어줘서 좋았다. 나에게 쓰는 편지도 미래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다.
	- ‘새로운 생각 씨 뿌리기’에서 나에게 쓰는 편지 박스 만들기 - ‘용서의 글’ 삭제 - 6회기 생각나무의 글이 아동기에 적절하다. - 사춘기에 맞는 생각나무의 글이 필요하다.

<표 III-16>과 같이 6회기 예비프로그램에서는 대부분 만족스런 반응을 보였고 평가에서는 문장의 삭제와 구성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표 III-17> 7회기 예비프로그램 소감 및 평가

회기	주요 소감 / 평가
7회기	<p>A: 이상형에 대한 내용이 좋았고 생각나무가 유익했다.</p> <p>B: 데이트 비용, 폭력관련을 알았고 이상형에 대해 자아성찰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p> <p>C: 파트너와 다른 사람들 간에 선 곳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p> <p>D: 데이트비용의 돈이,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p> <p>E: 이런 문제로 파트너와 싸운 적이 있다. 상대가 당연하게 받는 건에 대해...내 생각이 맞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서 좋았다.</p>
	- 폭력과 연결해서 내면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표 III-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7회기 예비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트 비용의 의미를 처음 알게 된 것에 좋았다는 소감이 주를 이루었고 평가에서는 워크북 외에 추가 설명을 요청하였다.

<표 III-18> 8회기 예비프로그램 소감 및 평가

회기	주요 소감 / 평가
8회기	<p>A: 폭력에 대한 예시를 설명해 준 부분이 효과적이었다.(6명)</p>
	- 폭력에 대한 예시를 말로 설명해줘서 좋았다.(폭력에 대한 민감성, 초기의 단호함)
	- 그렇다, 아니다 표시란 박스 위에 질문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표 III-18>의 8회기 예비프로그램에서는 워크북의 삽입 내용 외에 프로그램 진행자가 추가로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는 부분이 좋았다고 평가하였다.

<표 III-19>와 같이 9회기 예비프로그램에서는 자신의 감정조절양상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좋았다고 보고하였다. 평가에서는 9회기 역시 추가적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부분이 좋았고 또한 문장이해를 위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표 III-19> 9회기 예비프로그램 소감 및 평가

회기	주요 소감 / 평가
9회기	<p>A: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실천이 어려울 것 같다.</p> <p>B: 화를 안 내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화가 났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망문으로 바꾸기가 좋았다.</p> <p>C: 내가 먼저 바뀌면 타인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p> <p>D: 예전보다 화가 줄었는데...생각해보니 화가 줄었다기 보다 쌓인 것 같다.</p> <p>- '다음의 글에서 나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p> <p>- 화와 관련된 대인관계에서의 방법 예시를 말로 설명해줘서 좋았다.(상대와 나의 잘못 비율, 소진이유, 기대)</p>

<표 III-20> 10회기 예비프로그램 소감 및 평가

회기	주요 소감 / 평가
10회기	<p>A: 과거에는 역경을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해서 피하고 싶었는데 단단해지려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p> <p>B: 역경도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역경은 진짜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p> <p>C: 내 목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다. 남들이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p> <p>D: 긍정적인 상황도 중요하지만 역경도 훈련의 과정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p> <p>E: 방법은 아는데 여전히 실천은 힘들다. 그러나 앞으로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혼자 해서 안 되는 것은 주위의 도움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p> <p>-좋음</p> <p>-수정사항 없음</p>

<표 III-20>과 같이 10회기 예비프로그램에서는 인생의 장애물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예비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안의 내용이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첫째, 프로그램 각 회기의 목적은 내용과 부합하였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서 생각해보기-생각의 뿌리찾기-새롭게 생각하기-

새로운 생각 씨뿌리기의 순서에 맞게 내용의 흐름이 일관성 있게 구성되었다.

셋째,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6명 이내가 적당하다.

(2) 회기별 프로그램 운영방법

이 프로그램의 진행은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사회복지 및 청소년지도사 자격과 청소년상담사(2급)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현장에 꾸준히 참여를 하고 있어서 청소년들과의 관계맺음에 거리감이 없는 이점이 있다.

<표 III-21> 1회기 프로그램 운영방법

제목	내용	진행방법
1회기 나를 재는 거울	·사전검사(자아존중감, 성인애착) ·프로그램 설명	프로그램 시작 전 프로그램 설명 후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비밀유지와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서약서를 받는다.
	·프로그램 진행 -가치판단에 대한 예를 많이 넣어 프로그램이 어렵지 않게 느끼게 구성	[생각해보기] 1회기 제목을 읽어주고 제목의 의미를 설명 한 후 질문에 대해 예를 먼저 설명해 주고 작업을 수행하게 한다. [생각의 뿌리 찾기] 생각해보기에 대한 나의 답이 언제부터 영향을 주었는지 찾도록 한다. [새롭게 생각하기] 지금의 행복이 아닌 미래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가치 판단기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해보게 한다. [새로운 생각 씨 뿌리기]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부터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찾도록 한다.
	소감나누기	작업 수행 후 '생각나무'를 통해 한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반드시 자신의 입으로 느낀 점에 대해 직접 얘기하도록 한다.

1회기 프로그램 운영방법은 <표 III-21>와 같다. 1회기 프로그램은 10회기 프로그램의 워밍업 단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위기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감수성 훈련과 같은 심리정서 집단 상담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따라서 1회기는 최대한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예를 많이 설명하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참여자 중 한명이라도 자신의 과거 노출을 표면적으로 거부하게 되면 집단원들이 그 분위기를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을 위해 비밀유지와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서약서를 낭독하고 작성하도록 하였다.

<표 III-22> 2회기 프로그램 운영방법

	제목	내용	진행방법
2 회 기	나 를 가 득 채 우 기	지난시간 이후의 생각나누기	1단계 프로그램 작업, 2단계 생각나무, 3단계 소감나누기, 4단계 지난 시간 이후의 생각나누기로 프로그램의 각인 효과를 높인다.
		·프로그램 진행 -의식주, 안전, 소속감과 애정, 존중 에 대한 미충족욕구 파악 및 해결방법 찾기	[생각해보기] 지금의 나는 어떤 욕구들이 미충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생각의 뿌리 찾기] 어릴 적 나는 어떤 욕구들이 미충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새롭게 생각하기] 지금의 나와 어릴 적 나의 각 영역의 욕구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그 이유를 찾아내도록 한다. 비슷하면 왜 비슷한지, 달라졌으면 왜 달라졌는지 스스로 그 이유를 찾도록 한다. [새로운 생각 씨 뿌리기] '새로운 생각 씨 뿌리기'를 진행하기 전에 예시를 읽어주며 설명해주고 그 안에서 찾아도 되지만 가능하면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소감나누기	2회기 동안의 소감을 참여자들과 나눈다.

2회기 프로그램 운영방법은 <표 III-22>과 같다. 2회기 프로그램은 본격적으로 어려워지는 단계로 자신의 미충족욕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시작 전 1회기 프로그램 이후에 대한 생각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면서 각인 효과를 고려하였다. 결국 첫 번째로 프로그램을 작업하게 하고 두 번째로 생각나무를 통해 다시 한번 해당 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상기시켰으며 세 번째로

소감을 나누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 시작 10분마다 전 시간에 대한 것들을 리뷰하는 과정을 포함시켜 4단계를 거쳐 대상자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회기는 충분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작업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얘기하여 혼자만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였다. 구성원 각각의 작성을 하나씩 살피면서 눈 높이에 맞게 꼼꼼하게 설명을 하여 이해시켰다.

<표 III-23> 3회기 프로그램 운영방법

	제목	내용	진행방법
3회기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지난시간 이후의 생각나누기	1단계 프로그램 작업, 2단계 생각나무, 3단계 소감나누기, 4단계 지난 시간 이후의 생각나누기로 프로그램의 각인 효과를 높인다.
		·프로그램 진행-모와의 관계에 대해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 해결 방법 찾기	[생각해보기] 생각해보기 작성 후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 [생각의 뿌리 찾기] 엄마의 미충족된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경우 엄마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미지에서 유추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새롭게 생각하기] 긍정이든 부정이든 상관없이 엄마와 닮은 점과 닮고 싶지 않은 점에 대해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생각 씨 뿌리기] 엄마와 닮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소감나누기	3회기 동안의 소감을 참여자들과 나눈다.	

3회기 프로그램 운영방법은 <표 III-23>와 같다. 3회기 프로그램은 모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지 작성을 통해 모와의 신뢰감 정도, 의사소통 정도, 소외감 정도를 알아보고 그런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였다. 함께 나누는 과정을 통해 모와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는 기회를 주었다. 모의 미충족욕구에 대한 작업에서 실제 경험하지 못한 대상자의 경우 주변의 소개로 알고 있는 모에 대한 인식으로 작업하도록 하였다. 모와 닮고 싶은 점과 닮고 싶지 않은 점에 대한 작업에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4회기 프로그램 운영방법은 <표 III-24>와 같다. 4회기 프로그램은 모와 마찬가지로 부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모에 비해 부와의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은 더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나누는 시간을 통해 성인남자어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일반화된 사실에 대해 설명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표 III-24> 4회기 프로그램 운영방법

	제목	내용	진행방법
4회기	내파트너는 어디에서 왔는가?	지난시간 이후의 생각나누기	1단계 프로그램 작업, 2단계 생각나무, 3단계 소감나누기, 4단계 지난 시간 이후의 생각나누기로 프로그램의 각인 효과를 높인다.
		·프로그램 진행 -부와의 관계에 대해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 해결 방법 찾기	[생각해보기] 생각해보기 작성 후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 [생각의 뿌리 찾기] 아빠 역시 미충족된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경우 엄마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미지에서 유추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새롭게 생각하기] 아빠와 파트너를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새로운 생각 씨뿌리기] 아빠와 파트너가 닳지 않기를 바라는 점에 대해 좀 더 시간을 할애하면서 부정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닳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트너에게 요청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만약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파트너와의 관계유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소감나누기	4회기 동안의 소감을 참여자들과 나눈다.

3회기와 마찬가지로 부와 남친이 닳기를 바라는 점과 닳지 않기를 바라는 점을 최대한 자세히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작업을 도왔다. 현재 남친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는 전남친이나 혹은 앞으로 생기게 될 가상의 남자친구를 설정

하고 비교하도록 하였다.

5회기 프로그램 운영방법은 <표 III-25>과 같다. 5회기 프로그램은 아동기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위기청소년들의 특성상 과거 자신의 경험에 대해 막연하게 부정적으로 그리거나 혹은 의식적으로 기억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변화를 위해서는 삶은 과거도 좀 더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표 III-25> 5회기 프로그램 운영방법

	제목	내용	진행방법
5회기	아동기의 나를 돌아보기	지난시간 이후의 생각나누기	1단계 프로그램 작업, 2단계 생각나무, 3단계 소감나누기, 4단계 지난 시간 이후의 생각나누기로 프로그램의 각인 효과를 높인다.
		·프로그램 진행 -아동기의 가족 내 자신의 역할을 살펴본 후 앞으로의 나의 역할 재정립하기	[생각해보기] 생각해보기 작성 후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 [생각의 뿌리찾기] 질문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1차적으로 각주의 해석을 보도록 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될 경우 무엇이든 질의할 수 있다고 전달한다. [새롭게 생각하기] 아동기의 강렬한 사건이나 나의 역할들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시간을 더 할애한다. [새로운 생각 씨 뿌리기] 새로운 생각 씨 뿌리기에서 원가족에서의 나의 역할이 아닌 온전히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한 후 진행한다. [생각나무] 생각나무를 읽어준 후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key가 될 수 있음을 재구조화해서 설명해준다.
		소감나누기	5회기 동안의 소감을 참여자들과 나눈다.

따라서 질문지 작성 후 작성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함에 있어 참가자들의 과거 경험이 평준화하게 느끼도록 하였다. 아동기의 강렬한 사건이나 기억에 있어서는

공개하고 싶은 정도만 하도록 사전에 설명을 하여 노출 수위를 조절하였다. 가족 내 가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이 고정적이어서 쉽게 새로운 역할내지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찾지 못할 경우 옆에서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도록 격려하였다.

6회기 프로그램 운영방법은 <표 III-26>과 같다. 6회기 프로그램은 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실시에서 편지 작성 후 편지를 읽어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짐을

<표 III-26> 6회기 프로그램 운영방법

	제목	내용	진행방법
6회기	나를 돌봐주기	지난시간 이후의 생각나누기	1단계 프로그램 작업, 2단계 생각나무, 3단계 소감나누기, 4단계 지난 시간 이후의 생각나누기로 프로그램의 각인 효과를 높인다.
		·프로그램 진행 -부, 모와의 관계 개선 및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기	<p>[생각해보기] 생각해보기 작성 후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p> <p>[생각의 뿌리 찾기] 아버지가 나에게 쓰는 편지와 어머니가 나에게 쓰는 편지는 지금의 아버지, 어머니라면 이렇게 쓸 것이다가 아닌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듣고 싶은 말을 편지에 작성하도록 한다. 편지 작성 후 리더가 편지를 당사자에게 읽어주는 작업을 한다.(본인이 쓰고 본인이 읽는 것보다는 본인이 쓴 것을 다른 사람이 읽어주면 더 효과가 크다.)</p> <p>[새롭게 생각하기] 20년 후 성공한 내 모습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추상적으로 작성한 참여자에게는 좀 더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상을 그리도록 유도한다.</p> <p>[새로운 생각 씨 뿌리기] 새로운 생각 씨 뿌리기 작성 역시 작성이 완료되면 리더가 작성한 참여자에게 편지를 낭독해준다.</p> <p>[생각나무] 생각나무를 읽어준 후 참여자들이 죄책감을 줄일 수 있도록 설명에 신경을 쓴다.</p>
		소감나누기	6회기 동안의 소감을 참여자들과 나눈다.

보고하였다. 옆 구성원이 읽어줄 경우 구성원이 글을 읽듯이 읽는 것과 편지를 얘기해주듯이 읽어주는 것은 듣는 사람의 집중도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프로그램 참여자가 편지를 읽어주기 보다는 리더가 편지를 읽어주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었다. 또한 내가 나에게 쓰는 편지보다 부모가 나에게 쓰는 편지가 더 좋았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6회기 프로그램은 부와 모에게 각각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리더가 직접 부 혹은 모가 편지를 읽어주듯이 낭독하는 부분이 효과를 더 증진시킨다.

7회기 프로그램 운영방법은 <표 III-27>과 같다.

<표 III-27> 7회기 프로그램 운영방법

	제목	내용	진행방법
7회기	파트너와 마주보기 I	지난시간 이후의 생각나누기	1단계 프로그램 작업, 2단계 생각나무, 3단계 소감나누기, 4단계 지난 시간 이후의 생각나누기로 프로그램의 각인 효과를 높인다.
		·프로그램 진행 -파트너와의 평등을 위해 경제적인 부분에서 찾아보기	[생각해보기] 생각해보기 작성 후 정답을 설명해준다. ‘정신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면 비용분담 비율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에 대한 항에 대해서는 성관계가 포함되지 않게 설명에 신경을 쓴다. [생각의 뿌리 찾기] 데이트 비용이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 그 이면의 내용이 중요함을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새롭게 생각하기] 새롭게 생각하기 작성 시 이상형이 현재 남자친구가 아님을 설명하고 작성하도록 한다. 이상형 작성 시 외적인 조건에 치중해서 작성할 시 외적인 조건이 아닌 내적인 조건을 찾을 수 있도록 독려한다. [새로운 생각 씨 뿌리기] 새로운 생각 씨 뿌리기 작성 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작은 부분이라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접근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소감나누기	7회기 동안의 소감을 참여자들과 나눈다.

7회기 프로그램은 파트너와의 평등관계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한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데이트 비용은 쉽게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데이트 비용의 숨은 의미를 해석해주게 됨으로 인해 평범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가치와 위치가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였다. 물질적으로 취약한 위기여 자청소년들의 특성상 물질적인 제공은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유혹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와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성과의 관계에서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평등의 개념을 실천해야 함을 이해하고 인식하도록 돕는다.

<표 III-28> 8회기 프로그램 운영방법

	제목	내용	진행방법
8회기	파트너와 마주보기 II	지난시간 이후의 생각나누기	1단계 프로그램 작업, 2단계 생각나무, 3단계 소감나누기, 4단계 지난 시간 이후의 생각나누기로 프로그램의 각인 효과를 높인다.
		·프로그램 진행 -파트너와의 평등을 위해 심리적인 부분에서 찾아보기	<p>[생각해보기] 생각해보기를 작성하기 전에 예시를 설명해주고 예시 외에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도록 한다.</p> <p>[생각의 뿌리 찾기] 생각의 뿌리 찾기를 작성하기 전에 예시를 설명해주고 예시 외에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도록 한다.</p> <p>[새롭게 생각하기] 설문 체크 후 정답을 얘기해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p> <p>[새로운 생각 씨 뿌리기] 지금 이성교제를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만났을 때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찾도록 한다.</p> <p>[생각나무] 생각나무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혹시 참여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p>
		소감나누기	8회기 동안의 소감을 참여자들과 나눈다.

8회기 프로그램 운영방법은 <표 III-28>와 같다. 8회기 프로그램은 파트너와의 평등에서 심리적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한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위기여자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고 차단된 감정으로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강하다. 그로 인해 대인관계 특히 이성관계에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자신의 느낌을 신뢰하지 못한다. 따라서 관계에 있어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키워야 함을 강조하며 폭력의 범위와 민감성 증진의 확대를 위해 최대한 예를 많이 들어 설명을 한다.

<표 III-29> 9회기 프로그램 운영방법

	제목	내용	진행방법
9회기	화 다 스 리 기	지난시간 이후의 생각나누기	1단계 프로그램 작업, 2단계 생각나무, 3단계 소감 나누기, 4단계 지난 시간 이후의 생각나누기로 프로그램의 각인 효과를 높인다.
		·프로그램 진행 -부정적인 대인관계 의 원인 파악하고 해결하기	[생각해보기] 가능하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주제일 때 화가 나는 지 요인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설문 작성 후 그렇다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현불가능한 원칙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생각의 뿌리 찾기] 작성 전 예시를 먼저 설명 한 후 생각해보기 설문 내용 중에서 가장 자주, 많이 화가 나는 요인을 찾아 적도록 한다. [새롭게 생각하기] 작성 전 예시를 먼저 설명 한 후 긍정적인 문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생각 씨 뿌리기] 소망문으로 바꾸기 위해 내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작은 일이라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도록 한다. 작성 후 상대방과 트러블이 생겼을 경우 상대방의 잘못과 나의 잘못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소감나누기	9회기 동안의 소감을 참여자들과 나눈다.

9회기 프로그램 운영방법은 <표 III-29>과 같다. 9회기 프로그램은 대인관계

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감정의 원천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위기여자청 소년들의 특성상 대인관계시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작동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자신의 감정의 원천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이해의 수준을 고려하여 꼼꼼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방식대로 대인관계를 맺었을 때의 결과와 새로 배운 방식대로 대인관계를 맺었을 때의 방식을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표 III-30> 10회기 프로그램 운영방법

	제목	내용	진행방법
10회기	새로운 삶 찾기	지난시간 이후의 생각나누기	1단계 프로그램 작업, 2단계 생각나무, 3단계 소감 나누기, 4단계 지난 시간 이후의 생각나누기로 프로그램의 각인 효과를 높인다.
		·프로그램 진행 -성장을 위해서는 역경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을 깨닫기	<p>[생각해보기] 리더가 발췌글을 읽어준다. 읽을 때는 참여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읽어 나간다. 다 읽은 후 실화라는 점을 강조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함을 제시한다.</p> <p>[생각의 뿌리 찾기] 역경을 이겨낸 경험을 최대한 많이 찾도록 독려하여 적도록 하고 역경을 이겨낸 경험이 많음을 눈으로 확인하게 한다.</p> <p>[새롭게 생각하기] 이제까지의 과거 역경 경험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서 닦칠 수 있는 역경에 대해 미리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p> <p>[새로운 생각 씨 뿌리기] 지금 이 아닌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작더라도 최대한 구체적인 활동들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한다.</p>
		소감나누기, 사후검사	10회기 소감 나누기를 종료한 후 총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 나누기도 실시한다. 전체 소감 발표 후 사후검사(자존감검사, 성인애착검사)를 실시한다.

10회기 프로그램 운영방법은 <표 III-30>과 같다. 10회기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에게 역경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위기여자청소년들은 불공평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며 막연하게 미래를 기대하지만 대체로 미래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앞으로 닥칠 역경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 전달을 주 목적으로 한다. 그러기 위해 과거의 힘들었던 경험을 재해석하도록 돕고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한다. 또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역경들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작성에 있어 최대한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IV. 프로그램 효과 검증

1.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이 연구의 대상은 위기여자청소년으로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인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을 표적으로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을 해야만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어떤 상태인지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박은민, 2008) 대상자들의 특성상 이 프로그램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해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중학생을 제외한 중기와 후기에 속하는 청소년들로 17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위기여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불안정성인애착과 결핍욕구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 제주도 내 가출청소년쉼터의 도움을 얻어 입소생과 퇴소생을 소개 받았다.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를 실험집단으로 10명을 구성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대상자를 통제집단으로 10명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들에게는 연구자가 논문을 쓰고 있으며 무기명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이 프로그램은 1회기당 1시간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집단상담의 구성은 주로 주 1회씩 실시하지만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상 주 1회의 프로그램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자체가 이제까지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거나 생각하지 않던 방식으로 생각하게 해야 하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프로그램 실시 간격이 벌어질수록 집중도가 떨어질 염려가 있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주 5일간 하루에 2시간씩 2회기로 묶어 실시하였다. 1시간 실시 후 10분 간 휴식을 취한 후 곧 바로 다음 회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예비프로그램 실시 결과 집단의 규모가 6명 이내가 적절하다는 평가를 반영하여 1차와 2차로 5명씩 나누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IV-1>과 같다.

<표 IV-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연령	학력	평균연령	구분	연령	학력	평균연령
실험 집단	A	24	대재 (2년제)	통제 집단	A'	24	고졸
	B	23	중졸(검정고시)		B'	22	대재(2년제)
	C	22	고졸(검정고시)		C'	21	고졸
	D	20	고졸		D'	19	고졸(검정고시)
	E	19	고졸(검정고시)		E'	19	고재
	F	18	고재		F'	19	고퇴
	G	18	고재(방통고)		G'	19	고재
	H	17	고퇴		H'	18	고재
	I	17	고재		I'	18	고재
	J	17	고퇴		J'	17	고퇴
19.5세				19.6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17세부터 24세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연령은 실험집단이 19.5세, 통제집단이 19.6세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실험집단 대상자들의 학력은 대학 재학생이 1명이었고, 검정고시를 포함하여 고졸학력이 3명이었으며, 방통고 포함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은 3명이었다. 그 외에 중졸 1명, 고등학교 자퇴 2명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의 학력은 대학 재학생이 1명이었고, 검정고시를 포함하여 고졸학력이 2명,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은 4명이었으며, 고등학교 자퇴 1명으로 나타났다.

<표 IV-2> 연구대상자의 가족배경

구분	가족해체 현상	현 상황(가출)	위기상황(중복)	
실험 집단	A	재혼가족, 별거	시설(9년 전)	가출 11건 가정폭력 6건 성폭력 2건 성매매 1건 학교폭 2건 방임 4건 비행 2
	B	재혼가족, 이혼	1인 가족(10년 전)	
	C	초혼가족, 이혼	1인 가족(4년 전)	
	D	재혼가족, 이혼	1인 가족(3년 전)	
	E	재혼가족, 별거	시설(2년 전)	
	F	편모(친부 존재 모름)	시설(2년 전)	
	G	편부(친모 존재 모름)	시설(1년6개월 전)	
	H	이혼(부모 각각 동거)	시설(2년 전)	
	I	편모(친부 존재 모름)	1인 가족(4개월 전)	
	J	편부(친모 존재 모름)	시설(1년 전)	

<표 IV-2>에 나타난 연구대상자의 가족배경을 보면 가출 이전 모두 가족해체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가족해체의 결과 청소년복지시설인 가출청소년쉼터를 이용하였다. 사례 F, G, I, J의 경우 한쪽 부모의 존재를 모른다고 하였는데, 현재의 부모 존재가 아닌 태어난 후 한번도 한쪽 부모를 본 적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부모의 혼인신고 여부를 알지 못하므로 편부, 편모인지 미혼부, 미혼모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할 수 없었다. 가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사례 I의 경우는 1년 6개월 전 가출청소년쉼터 이용 후 가정으로 복귀되었으나 다시 가출하였다. 따라서 재가출 시점부터 현재시점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하였다. 1인 가족으로 구성된 대상자들 모두 역시 가출청소년쉼터 입소 경험이 있었다. 가출 후 기간을 보면 짧게는 4개월부터 길게는 10년의 기간을 보이고 있다. 연구대상자의 중복위기상황으로는 과거 혹은 현재 가출(11건), 가정폭력(6건), 성폭력(1건), 성매매(1건), 학교밖(2건), 방임(4건), 비행(2건)에 놓여 있었다.

1) 연구 설계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 사후 검사의 변화정도를 비교하였다. 실험 및 통제 집단은 17세부터 24세까지의 위기여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은 실험집단으로 구성하였으며 통제집단은 처치하지 않은 집단이다.

이 연구의 독립변인은 불안정성인애착과 결핍욕구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종속변인은 위기여자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불안애착, 회피애착이다. 연구 설계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연구 설계

연구대상 구분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O_1	X_1	O_2
통제집단	O_3		O_4

O_1 O_3 : 사전검사(자아존중감, 불안애착, 회피애착)

O_2 O_4 : 사후검사(사전검사와 동일), 실험집단(지연효과 분석)

X_1 : 실험처치(불안정성인애착과 결핍욕구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2) 연구 도구

(1) 자아존중감

이 연구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한국가이던스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용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0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 구성은 <표 IV-4>와 같고 <표 IV-5>에서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38이며 부적질문은 역문항 처리하였다.

<표 IV-4> 자아존중감 문항구성

구분	문항구성	비고
자아 존중감	1. 나는 부모님, 선생님, 친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편이다. 2. 나의 미래는 밝은 편이며,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3. 대체로 나는 현재의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4. 이제까지 나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5. 나 자신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6. 나는 남과 비교해 보아 좋은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7. 나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많다. 8. 가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9. 나는 내가 미워질 때가 있다. 10. 나는 나 자신이 잘못된 아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	10문항

<표 IV-5>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문항	1, 2, 3, 4*, 5*, 6*, 7*, 8*, 9*, 10*
Cronbach's α	.738

*표시: 역문항

(2) 성인애착 척도

Brennan 등(1998)은 Bartholomew 등의 4범주 모형 체계를 애착 유형 분류

의 기준이 되는 2차원을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지각이 아닌 애착 행동 전략 (attachment behavioral strategy)으로 바꾸었는데 각각 불안(anxiety)과 회피(avoidance)이다.

<표 IV-6> 불안애착척도 문항구성

구분	문항내용	비고
불안 애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때로 다른 사람들은 분명한 이유 없이 나에게 대한 그들의 감정을 바꾸곤 한다. 2. 다른 사람들은 내가 화나 있을 때만 나에게 주목하는 것 같다. 3. 버림받을까봐 걱정하는 일은 별로 없다. 4.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만큼, 그들도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봐 걱정하다. 5.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칠까봐 걱정된다. 6. 다른 사람들이 내가 연고자 하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주지 않을 때는 화가 난다. 7.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표현 했을 때, 그들이 나에게 대해 같은 감정이 아닐까봐 걱정된다. 8.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까봐 자주 걱정한다. 9. 다른 사람들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만든다. 10.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갖는 호감만큼 그들도 내게 강한 호감을 가지기를 자주 원한다. 11.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 대해 걱정이 많다. 12. 매우 가까워지고 싶은 나의 욕구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서 멀어지기도 한다. 13.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봐 걱정하는 일은 거의 없다. 14. 다른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만큼 나와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다. 15. 다른 사람들이 잠시 떠나 있으면 그들이 나 아닌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게 될까봐 걱정한다. 16.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잃을까봐 걱정한다. 17.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치 않을까봐 자주 걱정된다. 18.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좋아하지 않을까봐 두렵다. 	18문항

이를 바탕으로 Fraley 등(2000)이 개발한 성인 애착 유형 검사인 ECRR(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을 김성현(2003)이 파트너를 타인으로 수정, 변안 후 확증적 요인 분석을 통해 몇 개의 문항을 수정하여 만족할만한 모형적합도를 나타낸 문항 척도를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불안과 회피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불안애착척도의 문항구성은 <표 IV-6>과 같고, 회피애착척도의 문항구성은 <표 III-7>과 같다.

또한 <표 IV-8>에서 불안애착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90이었으며 회피애착의 신뢰도 계수는 .826이었고 부적질문은 역문항 처리하였다.

<표 IV-7> 회피애착척도 문항구성

구분	문항내용	비고
회피 애착	19.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20.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은 비교적 쉽다. 21. 다른 사람들이 내게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편하다. 22.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 한다. 23. 다른 사람들은 나와 내 욕구를 잘 이해한다. 24.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가지에 대해 의논한다. 25.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 속 깊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26. 다른 사람들에게 속내를 털어 놓는 것이 편하지 않다. 27.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28. 다른 사람들은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 29. 다른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매우 편하다. 30. 다른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이 쉬운 일이다. 31.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편하게 느껴진다. 32.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33.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은 어렵지 않다. 34. 내 문제나 걱정거리를 보통 다른 사람들과 의논한다. 35. 사적인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에 대해 편안하게 느낀다. 36. 다른 사람들이 내게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안하다.	18문항

<표 IV-8> ECRR-K 불안애착·회피애착척도

	불안애착척도	회피애착척도
문항	1, 2, 3*, 4, 5, 6	19, 20*, 21, 22*, 23*, 24*
	7, 8, 9, 10, 11, 12	25, 26, 27*, 28, 29*, 30*
	13, 14, 15, 16, 17, 18	31*, 32*, 33*, 34*, 35*, 36
Cronbach's α	.890	.826

*표시: 역문항

3) 자료 분석

(1) 효과 분석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해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측정도구들의 신뢰성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구하였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값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산동질성 확보 확인을 위하여 등분산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실험집단의 사전·사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점수를 공변인수로 반영된 상태에서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2) 과정 분석

실험집단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각 회기별 회기가 종료될 때마다 각 회기에 대한 소감을 수집하고 과정 분석의 주 초점은 각 회기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되거나 느끼게 된 것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3) 만족도 및 지연효과 분석

10회기가 종료된 후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소감을 분석하였다. 또한 10회기 종료 후 4주간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실험집단에 참여한 대상자들을 1대 1로 만나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2. 분석결과

1)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분석

위기여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이하 실험집단)과 무처치 집단(이하 통제집단)의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이를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참여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성인애착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1)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 간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한 결과는 <표VI-9>와 같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의 사후평균이 3.75점으로 사전평균인 3.08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제집단의 사후평균이 2.90점으로 사전평균인 3.01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VI-9> 자아존중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수정된 사후		
	<i>M</i>	<i>SD</i>	<i>M</i>	<i>SD</i>	<i>M</i>	<i>SE</i>	
자아 존중감	실험	3.08	0.62	3.75	0.50	3.72	0.110
	통제	3.01	0.47	2.90	0.50	2.92	0.110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분산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등분산을 만족($F=0.572, p>.05$)하였다. 그러므로 두 집단은 차이가 없는 동일한 집단으로 프로그램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반영한 상태에서 공변인에 의해 수정된 사후 평균점수는 실험집단이 3.72점, 통제집단이 2.92점이었다. 사후검사 점수의 집단별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존중감 점수

에 대해 공변량분석(ANC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VI-10>과 같이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F= 26.184$, $p < .001$) 72.7%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한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핍욕구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아존중감은 결핍욕구 해결을 위한 하위목표로 결국 결핍욕구에 대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표 VI-10> 실험·통제집단 간 자아존중감의 공변량 분석

변량원	제Ⅲ유형 제곱합	df	MS	F
공변량(사전)	2.795	1	2.795	22.963***
집단	3.188	1	3.188	26.184***
오차	2.070	17	0.122	
합계	8.478	20		

a R Squared=.756(Adjusted R Squared =.727)

*** $p < .001$

(2) 프로그램이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에 미치는 효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 간 성인애착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한 결과는 <표VI-11>과 같다. 실험집단에서의 불안애착은 사전검사에서는 평균이 2.42점이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2.11점으로 감소하였다. 통제집단에서는 사전검사에서 평균이 2.44점이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3.11점으로 증가하였다.

<표 VI-11> 성인애착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공변인에 의해 수정된 사후		
		M	SD	M	SD	M	SE	
성인 안정 애착	불안	실험	2.42	0.45	2.11	0.66	2.119	0.130
	통제	2.44	0.47	3.11	0.42	3.109	0.130	
회피	실험	2.75	0.42	2.54	0.42	2.761	0.122	
	통제	2.92	0.40	2.59	0.31	2.916	0.12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분산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등분산을 만족($F=0.092$, $p > .05$, $F=2.817$, $p > .05$)하였다. 그러므로 두 집단은 차이가 없는 동일한 집단이므로 프로그램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반영한 상태에서 불안애착의 공변인에 의해 수정된 사후 평균점수는 실험집단은 2.119점, 통제집단은 3.109점으로 나왔다.

실험집단에서의 회피애착은 사전검사에서는 평균이 2.75점이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평균이 2.54점으로 감소하였다. 통제집단에서는 사전검사에서는 평균이 2.92점이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평균이 2.59점으로 감소하였다. 회피애착의 공변인에 의해 수정된 사후 평균점수는 실험집단이 2.761점과 통제집단이 2.916점이었다.

사후검사 점수의 집단별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불안애착 점수에 대해 공변량분석(ANC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VI-12>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29.199$, $p < .001$) 60%의 설명력을 보였다. 그러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회피애착 점수에 대해 공변량분석(ANC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VI-13>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0.810$).

<표 VI-12> 실험·통제집단 간 불안애착의 공변량 분석

변량원	제Ⅲ유형 제곱합	<i>df</i>	MS	F
공변량(사전)	0.171	1	0.171	1.021
집단	4.895	1	4.895	29.199***
오차	2.850	17	0.168	
합계	7.966	20		

R Squared=.642(Adjusted R Squared =.600)

*** $p < .001$

<표 VI-13> 실험·통제집단 간 회피애착의 공변량 분석

변량원	제Ⅲ유형 제곱합	df	MS	F
공변량(사전)	0.520	1	0.520	3.517
집단	0.120	1	0.120	0.810
오차	2.513	17	0.148	
합계	3.191	20		

R Squared=.212(Adjusted R Squared =.120)

즉,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이 성인애착 중 불안애착에는 긍정적인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으나 회피애착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성인애착 중 불안애착을 감소시키는 것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불안애착이 자기표상과 관련된 것으로 자신에 대한 표상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2)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분석

(1) 프로그램 회기별 과정 분석

< 1회기, 나를 재는 저울 >

1회기는 이 프로그램의 첫 시간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찾아보도록 하였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혹은 지표는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이다. 참여자들은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접해보지 못한 듯 표면적으로는 쉽다고 하면서도 내면으로는 진짜 자신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초기에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돈과 성공을 들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미래에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였다.

1회기 프로그램의 목적이 자신의 가치 점검하기이기도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생각나무’인 것처럼 이제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 생각을

하게 하고 그 생각의 근거를 찾고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까지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자들이 1회기 소감에서 나타나듯이 워밍업의 단계로 혼란스러움의 시작단계를 보여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긍정적인 결과라 생각한다.

“기초적인데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 쉬운데 어려웠어요.” (사례 G)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하기는 싫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사례 H)

그러나 사례 J처럼 1회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치 점검을 하는 내용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미래를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미래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정적인 가정이라는 것도 알았고...” (사례 J)

< 2회기, 나를 가득 채우기 >

2회기는 자신의 미충족 욕구를 알아보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미충족 욕구에 대해 처음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 미충족 욕구를 채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평가를 하였다.

“저는 그런 거 같아요...저는 인정받고 싶은데...이게 미충족 욕구인지 몰랐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뭔가 충분히 참 많이 컸다고 생각했는데 미충족 욕구를 채우는 게 내 삶의 목표가 된다는 게 그런 건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아직 어린 시절의 영향력이 남아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사례 D)

“내 미충족 욕구를 정확히 알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게 돼서 좋았어요.” (사례 F)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지금 현재의 결핍 욕구와 어린 시절 결핍 욕구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표면상으로는 어린 시절 결핍 욕구가 네 가지라면 현재의 미충족 욕구가 두 가지로, 두 가지는 사라진 것으로 보이나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가지 수와 상관없이 과거의 미충족 욕구가 여전히 자신에게 남아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미충족 욕구에 대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작업하는 과정이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과거의 나랑 현재의 나랑 달라진 점과 모자란 점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새로운 생각 씨 뿌리기’가 제일 좋았어요. 미충족된 걸 인식한 시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없었으면 생각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사례 J)

< 3회기,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

3회기는 엄마에 대해서,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 엄마에게서 받은 영향력 등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참여자 대부분은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 엄마 역할로서의 엄마로만 보아왔지 단 한번도 엄마도 미충족된 삶을 살아온 한 여성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자신에게 엄마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엄마의 미충족 욕구를 알게 됐고 내가 뭘 닮고, 뭘 닮지 말아야 할지 알게 됐어요. 무조건 싫은데...싫긴 싫은데 이해가 되고, 그렇게 선택한 이유도 이해가 돼요. 싫기만 했는데 지금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 D)

“엄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엄마를...엄마를...싫어하지는 않았는데, 좋아하지도 않았지만...이걸 하면서 엄마한테 많이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례 F)

“엄마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엄마처럼 더 살기 싫어졌어요.” (사례 I)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엄마와의 관계는 일반 청소년들의 엄마와의 관계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좋은 의미로는 친구 같은 사이지만, 서로 의지하고 고민

을 나누는 친구관계가 아니다. 딸이 감당하기 힘든 고민들 예를 들어 부부간의 외도문제, 경제적 문제, 엄마의 심리적인 문제 등을 딸에게 털어 놓거나 엄마가 힘들게 사는 삶의 이유를 딸의 탓으로 돌리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딸에게 의지하는 엄마로서의 모습을 보인다. 즉 그들의 관계는 이미 어느 한쪽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다. 선행연구(서울시늘푸른여성지원센터, 2006)처럼 딸이 엄마에게 기대어야 하는 관계가 아닌 엄마가 딸에게 기대는 관계로 엄마에게 딸은 ‘작은엄마’의 역할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로 인해 엄마에게 기대고 싶은 딸들의 기대는 항상 무너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엄마에 대한 원망은 점차 늘어난다. 그러나 3회기 프로그램 참여 후 엄마를 싫어하면서도 엄마를 자신과 같이 힘든 삶을 살아온 한 사람이며 한 여자로서 바라보기 시작하여 엄마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 4회기, 내 파트너는 어디에서 왔는가? >

4회기는 아빠를 살펴보고 남자친구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참여자 대부분은 아빠와 남자친구를 비교하게 되면서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전 남자친구는 어땠어?) “딱히...쓰레기였어요. 개가 그냥 고백해가지고...(사귀 이유는?) 편하니까... 제 중심에 남자친구가 있으면 안 되고 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 중심에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욕지 올라가서 외로워서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자존감이 바닥을 쳤거든요. 그때 남자친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줬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달 만에 끝났어요. 뭔가 저의 그...그런 뭐라할지...저의 가치관에 의해서 남자친구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느낌이 무서웠어요. 아빠랑 똑같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제가 바뀌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사례 D)

“편안함과 익숙함만 찾으면 안 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평강공주 콤플렉스가 좀 있는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아빠와 똑같은 사람을 만날 것 같아요.” (사례 J)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특징은 이성친구를 사귀면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시간, 에너지, 돈 등 거의 대부분을 그 남자친구에게 투자하였다. 그로 인해 이성 친구를

사귀는 동안에는 자기관리를 소홀히 하여 근태상황 즉, 아르바이트 출결 등의 상황이 불량해지고 또래 동성친구들에게 소홀하여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성친구와 헤어지면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첫째, 이성친구와 사귀는 동안의 아슬아슬한 아르바이트 출결 상황은 심리적인 상처로 인해 말없이 아르바이트 출결을 하지 않아 결국은 해고 된다. 둘째, 이성친구와 헤어짐으로 인해 받는 심리적인 상처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한 만큼 더 큰 상처를 받는다. 셋째, 이성친구와 사귀는 동안 소원해진 동성친구들은 이성친구와 깨어진 친구가 위로를 받기 위해 자신들을 찾는 모습에 화가 나서 응해주지 않음으로 인해 동성친구관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이성친구를 사귀는 과정에서부터 깨어진 후의 결과까지 매번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것은 그들의 행동패턴이 왜 그런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4회기 프로그램에 참여 후 이성과의 관계 패턴이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해 주었다.

< 5회기, 아동기의 나를 돌봐주기 >

5회기는 아동기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자신이 가족 내에서 어떤 역할로 살아왔는지에 대해 돌아보도록 하였다. 참여자 대부분은 자신이 가족 내에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러나 곧 그러한 역할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저는 어...일단 제 과거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를 살펴보니깐 우울하거나 불쌍하다기 보다 약간 씩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프로그램 없었으면 아마 한번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례 B)

사례 J의 경우 어린 시절 다른 또래친구들에 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림으로써 그 과정을 견뎌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애기 때가 제일 애 같았다’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것처럼 사례 J는 나이에 비해 감정조절을 잘하고, 인지적인 모습을 보이며 어려운 단어도 거침없

이 사용하는 등 ‘애어른’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었다. 또한 자신이 살아온 삶의 영향으로 지금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잘 파악하고 있었다.

“전 거짓말쟁이였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맞았어요. 뺨 많이 쳐서... 어릴 때 제일 기억나는 건...뒤지게 맞았었는데...막 맞았어요. 애기 때가 제일 애 같았던 것 같아요. 욕 먹는 걸 즐겼나? ...근데, 괜찮아요. 제가 잘못해서 맞았거든요.” (사례 J)

“제가 항상 인지하고 있던 문제점의 이유를 찾았어요. 나름 뜻 깊은 것 같아요. 앞으로 고칠 일만 남은 거 같아요.” (사례 J)

사례 D인 경우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린 시절 자신이 한 행위로 인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혀 보지 못했다. 그러나 프로그램 과정 중에 조금씩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했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얘기한 것은 간신히 버티기 위한 힘이었다면 집단구성원과 리더가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자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가족 내의 내 역할은) 가해자, 문제아, 부모, 왕따, 있으나마나한 아이...병적인 거짓말쟁이였어요. 관심 끌기 위해서...” (사례 D)

“그래서 그 영향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에 잘해야 한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 D)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어요...아, 역시 원가족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저한테 괜찮다고 얘기해주기로 했어요.” (사례 D)

5회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참여자 대부분이 자신이 일반 가정의 여자 청소년들의 양육과정과 비교해 봤을 때 힘들게 살아왔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양육과정을 비교해보기 전까지는 즉, 어린 시절에는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고 보고 하였고 또래관계가 형성되면서 양육과정을 비교하기 시작해서는 자신의 가정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모의 잘못이 아닌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가정학대 피해 청소년들

이 가지는 정서적 문제로 봤을 때 이들은 자신의 정서를 억제하고 통제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인식하는데 무감각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주변 어른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하면 그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제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고미영, 2004). 이러한 선택은 우리 가족이 역기능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방어막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아동양육 과정 대물림의 신호탄이 된다. 따라서 5회기를 통해 아동기 시절 애착경험의 탐색을 통해 수정된 정서경험의 효과를 갖게 하였다.

< 6회기, 나를 돌봐주기 >

6회기는 부모와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단 한번도 자신에게 편지를 써 보거나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지 않은 현실의 부모 대신 자신이 원하는 가상의 부모를 만들어 그들로부터 듣고 싶은 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작성에는 가상이기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감정의 동요가 없었으나 리더가 각각의 편지를 각 참여자들에게 읽어주자 감정이 흔들리며 ‘우리 부모가 이랬으면...’하는 아쉬움보다는 대리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작업의 이유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결핍된 욕구를 해결하기 전에는 다음 단계의 욕구로 발전할 수 없다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비록 가상으로 만들어진 부모의 편지이지만 심리극을 통해 교정적 감정경험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를 보였다. 그 후 5년 후, 20년 후의 모습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떠올려보도록 하는 작업과 20년 후의 성공한 내가 지금의 나에게 쓰는 편지는 좀 더 그들의 미래를 구체화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이번 회기는 좀 새로웠어요. 제가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얘기도 듣고, 성공한 나에게 듣고 싶은 얘기도 듣고...성공한 삶이 어떨지 막연하게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확실하지 않았는데...지금은 확실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사례 D)

“꼭 성공해서 제 2의 저 같은 애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사례 F)

< 7회기, 파트너와 마주보기 >

7회기는 데이트 비용, 이상형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참여자의 대부분은 이상형에 대해 추상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있을 뿐 구체적이지 않았고 구체적이더라도 내면보다는 외면에 치중한 모습들이 많았다.

“(이상형은) 체형은 보통 마름, 옷 잘 입는 사람, 얼굴은 강아지 상, 안경이 잘 어울리는 사람...” (사례 H)

그러나 과정 중에 남자를 잘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엄마가 남자를 잘 만났으면 제가 이렇게 살고 있진 않았을 거예요. 정말 난 좋은 남자 만나서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그, 자존감을 높여야겠어요.” (사례 E)

“이상형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이상형은 너무 높는데 만나는 남자들은 수준이 높지 않아요.” (사례 F)

“조금 어려웠어요. 생각나무가 제가 싫어하는 류의 생각들인데, 남자를 조금 오래 봐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다른 관점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사례 G)

7회기 작업의 이유는 부모와의 애착패턴이 점차 또래와의 애착패턴으로 이어지고 특히 이성과의 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데이트는 이성과 관계맺음의 시작을 의미하는 데, 이성과의 관계맺음이 외적으로 사귀는 것 이상의 많은 의미를 내포함을 알게 해 줄 필요가 있었다. 참여자의 대부분은 이성과 사귀기 시작하면 대체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지나치게 관대한 모습을 보였다. 즉, 자신이 돈이 없을 때 남자친구가 카드를 주면 자신이 필요할 때 쓰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써도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핸드폰 요금을 남자친구가 대신 내 주거나 원하는 값비

싼 물건을 남자친구가 사 주는 것은 주변 동성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따라서 7회기 작업을 통해 데이트 비용의 의미, 데이트 비용에 대한 나의 생각이 가지는 의미 파악부터 시작하여 내가 바라는 이상형의 실체, 그리고 더 나아가 좀 더 나은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데이트 비용은 쉽게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좋은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라기만 하기 보다는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이상형은 외적인 것만 보지 말고...내적인 것도 봐야 되겠고... 내가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밖에 못 보는...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는 거.” (사례 G)

< 8회기, 파트너와 마주보기2 >

8회기는 데이트 폭력을 주제로 다루어졌다. 참여자 대부분이 폭력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라서인지 폭력에 대해 무감각한 모습을 보였다.

“저는 뭐지...헤어질만큼 심하지도 않았고, 나도 잘못해서도 있었고, 내가 더 좋아하기도 했고. 음...모르겠어요. 이게 그렇게 그럴만한 일인가?... 모르겠어요. 저희 아빠랑 엄마도 아빠가 엄마를 무시하는 걸 종종 봐 왔기 때문에...그래도 이혼하지 않고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 뭔가 좀...충격 받았어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사례 D)

그러나 생각나무에서 폭력 뒤에도 관계를 지속한다는 설문결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난 후, 현실적인 자기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사례 A, C, D, H는 실제 데이트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신체적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데이트폭력에 대한 정보 내지 폭력 전 징조들을 볼 수 있는 민감성이 있었다면 실제로 신체적 폭력까지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의 대부분이 데이트 폭력을 모르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사랑해서, 나중에 좋아질 것 같아서, 혹은 헤어지기 싫어

서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회기 과정 중에 대부분 자신이 의사표현을 잘 해야 하며 남자들을 잘 보기 위한 민감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빠가 절대 때리지는 않아요. 근데, 술을 마신 후에 기분이 안 좋으면 저한테 소리를 질러요. 그것만 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사례 C)

“저는 좀 놀랐어요. 매 회차마다 놀라워요. 데이트 폭력을 TV에서만 봐 왔지 내가 당하고 이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전혀 하고 있지 않았어요. 심지어, 더 중요한 건 이상한 느낌이 있을 때도 ‘남자친구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겨버린 적이 많다는 거예요. 놀랐고...앞으로 의사표현을 잘 해야겠어요.” (사례 D)

“(싫다고 하면 헤어질 것 같아서 겁나니?) 네” (사례 H)

8회기를 통해 참여자들은 부모의 부부관계가 갈등관계인 것은 알았지만 그렇다고 서로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고는 생각해보질 못했다. 또한 폭력은 신체적인 폭력으로만 인식하고 있었고 그 외의 폭력에 대해서는 무지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 그로 인해 상대가 나에게 행하는 행위 자체가 폭력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이 없었고 그 결과 상대의 폭력은 점차 심해지는 양상으로 변해갔다. 사례 D와 사례 H가 전남친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당했다고 보고를 했으나 첫 번째 신체적인 폭력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서 그 폭력성은 더 심해졌다고 하였다. 즉 참여자의 대부분은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양육과정에서 참여자 모두가 신체적인 폭력 이상의 폭력상황에 오랫동안 놓여 있어서 그 상황에 익숙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8회기의 목표는 단지 이성과의 데이트 폭력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닌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일깨워 타인으로부터의 방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다.

< 9회기, 화 다스리기 >

9회기는 분노조절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참여자의 대부분은 자신이 상대방을 바꾸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인정하긴 싫지만 인정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

“화가 나면 언성이 높아지는 데 원한다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한다고 바꾸면 큰소리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례 A)

“인정하긴 싫지만...받아들이기가 싫거든요. 솔직히 말하면...내가 이려고 있다는 걸...그래도 평생 숙제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나아지는 거라고 생각하고...자신과의 싸움 같아요.” (사례 G)

“저는 나름 화를 잘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화를 다스리기 보단 그 화 밑에서 살았던 거예요. 화를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 덮어논 것 같은 생각, 느낌이 들어요. 생각나무를 읽어보면 좀 달라요. 나는 화를 다스린 게 아니라 화 표현방식만 달랐던 거예요. 화를 낼대로 다 내고 있는데... 내 입장에서는 딱히 화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어떤 친구를)변화시키려고 열심히 했었죠. 그렇게 해서 바뀐 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좋게 흘러가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으면서도 내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하...단점 하나 찾았죠. 이런 거 안 찾아도 되는데...찾았네요.” (사례 J)

위기여자청소년들인 참여자들은 양육과정에서 부모와 신뢰관계 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듣고 자라온 만큼 심리검사 상 반사회성의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다. 그로 인해 그들의 감정 표현에 대한 특성을 보면 상대의 메시지에 대해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으로 딱 차 있어서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즉 공감능력이 낮은 모습을 보인다. 그로 인해 잘못된 메시지에 대한 반응으로 그 관계는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 또한 참여자들은 문제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과 타협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특히 상대의 성숙도가 낮거나 비슷한 경우라면 그들은 서로 자신의 이야기만 주장할 뿐 상대의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시도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결과를 만든다. 그 결과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쌓인 경우 한꺼번에 폭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적인 반응은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어 거리감은 더 멀어진다. 따라서 9회기 프로그램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을 알고 타인과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배우는 과정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 10회기, 새롭게 살기 >

10회기는 이제까지의 역경 뿐만이 아닌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닥칠 역경 속에서 어떻게 헤쳐 나갈지에 대한 주제로 이루어졌다. 참여자의 대부분은 스스로 역경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역경을 극복하는 방법이 긍정적인 방법은 아니어서 역경을 오랫동안 겪게 되면 결국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버티는 거예요. 힘들었을 때도 죽고 싶을 때도 어쨌든 지나가잖아요. 어차피 죽지 않고 살거니까... 일단 차분하게 언젠가 최대한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차피 지나갈거니까” (사례 F)

참여자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그로 인해 현실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럼 그렇지 뭐... 내 인생이 뭐 원래 이런데...’ 혹은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 때문이야’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 과거의 경험을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바꿔 줄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역경의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며 역경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나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는 숙제와도 같은 과정임을 알도록 하였다. 그 결과 역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2) 프로그램 만족도

각 참여자들은 공통적인 가족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나 상황은 달라서 인지 10회기 중에 특별히 더 기억에 남거나 가장 큰 영향을 준 회기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10명의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해보게 한 것이 가장 큰 효과로 평가되어졌다.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한 차례 폭풍이 휩쓸고 간 느낌이랄까...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느낄 수 있었고...지금 이 정도면 괜찮아졌겠지하고 생각했는데 더 올려야 된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어요.” (사례 D)

“일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제가 배운 거 같은 거는...사회, 남자, 과거, 미래, 현재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던 부분도 있었지만 그 알고 있던 부분들을 다르게 볼 수 있기도 하고 소름 돋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초등, 중등, 내 미래까지 내다봐서 너무 좋고... 이 했던 거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답한 것들, 써 논 것들을 잊으면 똑같은 선택을 하며 살 거 같아요. 그래서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례 F)

“이거 10회기 하면서 제 안에 있는 다중인격을 만난 거 같았어요. 울고 웃고 뭔가 건드리기도 싫은 짜증나는...근데 그게 좀 마음이 단단해진 기분...예전보단 들어요. 이걸 하고 나서 보니까...그 말이 제일 마음 아팠어요. 대물림...저는 오로지 엄마, 아빠만 상대로 생각했었는데 엄마도 아빠도 부모님이 있었다는 것이 똑같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마음이 따뜻했어요.” (사례 G)

위기청소년들의 대부분은 감정이 다양하지 않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을 제일 어려워 한다. 그로 인해 감수성 훈련과 같은 감정의 작업을 해야 하는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무의식적으로 밀어내는 모습을 보인다. 즉, 자신의 감정에 대해 자신조차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므로 표현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정을 말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의 답답함을 못 견뎌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종료된 뒤 참여자들의 표현 중에 ‘한 차례 폭풍이 휩쓸고 간 느낌’, ‘어린 시절부터 초등, 중등, 내 미래까지 내다봐서 너무 좋고’, ‘제 안에 있는 다중인격을 만난 거 같았어요’ 등의 표현을 썼다. 이러한 표현들이 나온 의미를 해석해 보면 이 10회기 프로그램은 그들에게 이제까지 생각해보지 못한 것을 생각해보게 하였고, 생각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해 주었으며 특히 자신의 과거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까지 한꺼번에 다 살펴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3) 프로그램에 대한 지연효과 분석

프로그램 종료 후 4주의 시간이 지나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일대 일 추수면접 (follow 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지연효과 분석의 경우 시간의 경과가 길수록 지연효과를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질적 연구를 위한 종단연구가 아닌 이상 대상자들의 관리는 어렵다. 그로 인해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지연효과 검증은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보통 1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특히 이 연구의 대상자들은 특수집단이라 대상자 관리는 더욱 어렵다. 그로 인해 추수검사를 위해 4주 후 10명의 대상자 면접시 1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9명을 대상으로 한 지연효과를 분석하였다. 지연효과 분석을 위해 대상자들에게 프로그램 이후 가장 강하게 남아 있는 기억이 무엇인지, 인식의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태도의 변화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프로그램 이후 지금까지 연구 참여자가 가장 강하게 남아 있는 기억으로 5사례가 부모의 결핍욕구를 들었다. 이 같은 이유는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이제껏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딱 차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 관계가 개선이 되거나 긍정적으로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부모가 자신과 같은 양육과정을 겪으면서 결핍욕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결과 그 결핍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들이 지금 부모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프로그램 종료 후 가정복귀 된 1사례는 연세 많은 편부가 세대차이로 인해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보이기 시작했음을 보고하였다.

“아빠가 좀 달라 보여요. 예전엔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나에게 막 뭐라 할 것만 같았는데, 지금은 좀 혼자 있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이젠 제가 집에서 이것 저것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러니까 아빠도 좋아해요.” (사례 G)

그 외에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것 2사례, 어린 시절을 생각하게 됐다는 것 1사례, 나 자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는 것 1사례로 나타났다.

“내가 1순위라는 거. 이제까지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다른 데서는 다 괜찮은데 유독 가족 앞에서는 이기적이지 못한 거 같아요. 가족 앞에서는 부모

같은 느낌...그런 게 많아요.” (사례 C)

프로그램 종료 후 인식의 변화에 대해 9사례 모두 자기 자신 혹은 대인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하였다.

“아직도 많이 어렵긴 어려운데...그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싫어하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니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좋은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도 있다는 거. 그 사람이 어떤지는 오래 같이 있어봐야 안다는 거가 바뀐 거 같아요.” (사례 A)

“다른 사람한테 기대를 하지 않는 거. 그게 맞나? 요번 회식 때 어떤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뻐는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그냥 넘어가지더라고요. 프로그램 끝나고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간간히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례 B)

“생각이 더 넓어졌다는 거. 뭐라 해야 되지...생각이. 자존감이 낮았잖아요. 이 걸 하니까 ‘자존감을 높여야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를 알게 된 거. 그게 제일 많이 바뀐 거 같아요.” (사례 E)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달라진 건...‘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거. 이제는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생각하게 된 거...이해의 폭이 넓어졌다고 해야 하나?” (사례 G)

“예전에 욕을 잘 했는데 지금은 욕하지 않아요. 괜히 신경 쓰지 않고 좀 내버려두는 식으로 바뀌니까 그냥 좀 유해했다고 하나...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게 달라진 거 같아요.” (사례 J)

프로그램 종료 후 태도상의 변화에 있어서는 가족 내에서의 태도 변화 2사례, 이성관계에서의 태도 변화 5사례, 일반 대인관계에서의 태도 변화 4사례(중복)를 보고하였다.

가족 내에서의 행동 변화를 보면, 사례 C의 경우는 프로그램 진행 중 가족 내의 나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가족 내에서 보모(babysitter)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인 가족으로 혼자 살

고 있는 최근까지도 여전히 부와 모에게 빌려준다는 명분으로 돈을 보내기도 하고 연년생 남동생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챙기는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었고 프로그램 종료 후 더 이상 가족 내의 어떤 역할로 살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가족이랑 하는 행동이 제일 달라졌어요. 수십 번 엄마, 아빠가 전화가 왔는데, 내가 엄마, 아빠도 아니고 연년생 남동생에 대해 누나인 내가 모두 다 알아야 하나 궁금하면 직접 전화하라고 했어요. 내 안부를 묻는 게 아니면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내가 개 보호자도 아니고, 보모도 아니고 그냥 남매일 뿐이라고...개 인생에 나를 묶지 말라고...그래도 계속 전화가 왔는데 5번 이상 계속 내가 똑같이 말하니까 이제 동생 일로 전화가 오지 않아요.” (사례 C)

이성관계에서의 태도 변화에 대해 5 사례가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하였다. 특히 그 중 4명의 사례 대상자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이성친구가 생기면 생활의 중심을 이성 친구에게 맞추어 사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자신의 생활과 주변 또래 관계가 망가지고 이성 친구를 1순위로 제일 먼저 생각하고 챙기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로 인해 이성친구와 헤어질 때마다 심리적인 상처가 크고 주변 또래들과 관계유지를 하지 않았음으로 인해 위로받을 주변의 인적자원도 거의 없어 일상생활로의 복귀정도까지 시일이 오래 걸렸다. 그러나 프로그램 참여 이후 삶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자신임을 인식한 후 이성 관계에서도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성관계에 집착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다 줬던 것 같아요. 내가 힘들 정도로...근데 이제는 다 주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손해 보면서까지 다 해주지는 않는 거 같아요. 그니까 남자친구한테 내가 100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한테 10, 남자친구한테 10 이렇게...그리고 나한테 50정도는 남겨 놓는 거예요.” (사례 F)

일반 대인관계에서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는 4사례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사례대상자 대부분은 사람이나 상황을 평가할 때 극단적으로 평가하

는 흑백논리를 강하게 나타내는 데 그로 인해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을 쉽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누어 놓는다. 이런 선입견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대인관계에서 심리적인 상처를 자주 받는다. 사람에 대한 판단의 실수와 선입견은 심리적인 상처를 주고 심리적인 상처는 다시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한다는 또 다른 믿음을 만들어낸다. 그로 인해 반복되는 믿음의 깨어짐은 점점 대인관계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 사회생활에서 고립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통해 더 이상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례 E의 경우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대상자로 자신의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여 대인관계시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그걸 꼭 얘기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다. 그런 모습은 프로그램 중에도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모습을 간간히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연효과 분석시 대인관계에서 태도상의 변화가 나타났다.

“일단요, 욕을 안 쓰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짜증이 나면 화를 냈었는데, 지금은 ‘화나!’ 대신에 ‘섭섭해!’ 라는 말을 하고, ‘뭘 뭐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니깐 상대방도 화를 안 내는 거 같아요. 옛날에는 ‘왜 그래?’하고 화를 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깐...(프로그램을)받길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 E)

더욱이 사례 H의 경우 모르는 사람들로 꽉 찬 버스를 타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했으며 새로운 입소생이 컴퓨터에 입소했을 때 상대방이 말을 걸기 전에는 먼저 말을 거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참여 이후 모르는 사람들과 한 공간에 있어도 거부감이 없어졌으며 모르는 사람에게도 먼저 말을 걸 수 있는 정도로 변화됨을 보고하였다.

“좀 이제 능숙하게 하는 거 같아요. 예전엔 내가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부담스러워서...음...나한테 기대할까봐, 기대했는데 나한테 실망하면 어찌지라는 생각이 많았었어요.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부담스러웠는데 근데 지금은 부담스럽지 않아요.” (사례 H)

프로그램의 지연효과를 알기 위해 4주 후 추수면접을 하였고 그 결과 나타난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부모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인 부분에서 이해하는 부분으로 바뀌었고 둘째,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으며 셋째,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되었다. 넷째, 이성 관계에 있어 균형을 잡을 수 있었고 다섯째,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타인들을 바라보는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위와 같이 위기여자청소년들을 위한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핍욕구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종료된 뒤에도 그 효과가 지속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해체가족을 경험한 위기여자청소년들에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V. 논의 및 결론

이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린 다음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 중심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 후 이 연구의 한계를 밝히고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해체가족의 위기여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핍욕구의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단계의 프로그램 개발 절차를 걸쳐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는데, 프로그램 구성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졌다. 첫째, 프로그램 요구도 파악을 위해 사례면접을 실시하였다. 둘째, 그들의 사례면접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핍욕구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셋째, 프로그램 실시 후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 대한 과정분석을 하였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요구도 파악을 위해 사례면접을 실시하였다. 사례면접의 구조화를 위해 동거를 선택하게 된 이유, 삶에 대한 태도, 그리고 가출 후의 원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동거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11사례 중 8사례가 방값 등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하였고 외로워서 2사례, 친밀한 관계 유지를 위한 이유가 1사례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11사례 중 결혼생활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5사례, 부정적 기대가 6사례였다. 특이한 점은 긍정적 기대 5사례 중 현재 동거남과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2사례 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현실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으며 돈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원가족과의 관계를 보면, 원가족의 가족형태에서 한부모가족 7사례, 재혼가족 2사례, 양친부모가족 2사례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친부모가족 2사례 모두 사례대상자가 태

어나기 전에 이미 재혼가족으로 구성된 가족형태를 띄고 있었다. 그로 인해 사례 대상자에게는 양친부모가 되지만 사례대상자의 순위 형제자매들에게는 계부나 계모가 된다. 원가족의 경제수준은 모두 저소득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부모의 결혼과정 역시 주위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한 사례는 1사례 뿐이었다. 원가족 부모의 부부관계는 11사례 모두 갈등관계로서 주원인으로는 가정폭력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례대상자 원가족의 빈약한 가족자원은 빈곤, 가정폭력과 가정불화, 부정적인 부모의 부부관계, 부정적인 모와의 관계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원가족의 빈약한 가족자원은 여자청소년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으며 원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들의 삶의 방식은 남자를 선택하게 되고 결국 동거라는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

둘째,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핍욕구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위기여자청소년들은 가족자원이 변하지 않는 이상 가정복귀 가능성이 희박하다. 새로운 대안으로 쉽게 남자를 찾아 동거를 하였으나 이와 같은 선택은 새로운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부모에 대한 미충족 욕구가 결핍동기화 되어 동거남에게서 그 욕구해결을 기대하나 채워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경제관념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또한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의 부부관계도 좋지 않을 뿐더러 부모와 대상자들간의 관계도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패턴은 친밀한 관계 즉, 이성친구와의 패턴으로 재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결국, 불안정 애착으로 나타나는 불안과 회피성향을 낮춰줄 필요가 있으며 결핍욕구를 인지하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두 가지 영역을 초점으로 하여 프로그램 초안을 구성한 후 위기여자청소년들에게 바로 적용하기 전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비프로그램 실시 후 평가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각 회기마다의 소감과 평가를 통해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좀 더 위기여자청소년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셋째, 프로그램 실시 후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사전·사후 효과를 분석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분석을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각 10명씩 확보하여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예비프로그램에서 나온 평

가를 참고하여 프로그램 집단구성원이 6명이 넘지 않도록 조정하여 실험집단 구성원을 5명씩 2회차에 나누어 총 10명을 실시하였다. 각 회차의 진행은 1회기 기준 1시간으로 하루 2시간씩 2회기를 진행하여 총 5일 동안 10회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은 실험집단의 사후평균이 3.75점으로 사전평균 3.08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제집단의 사후평균은 2.90점으로 사전평균 3.01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반영한 상태에서 공변인에 의해 수정된 사후 평균점수는 실험집단이 3.72점, 통제집단이 2.92점이었다. 사후검사 점수의 집단별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존중감 점수에 대해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불안애착은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에서는 평균이 2.42점이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2.11점으로 감소하였다. 통제집단은 사전검사에서는 평균이 2.44점이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3.11점으로 증가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반영한 상태에서 불안애착의 공변인에 의해 수정된 사후 평균점수는 실험집단은 2.119점, 통제집단은 3.109점으로 나왔다.

회피애착은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에서는 평균이 2.75점이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평균이 2.54로 감소하였다. 통제집단에서는 사전검사에서는 평균이 2.92점이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평균이 2.59점으로 감소하였다. 회피애착의 공변인에 의해 수정된 사후 평균점수는 실험집단이 2.761점과 통제집단이 2.916점이었다.

사후검사 점수의 집단별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불안애착 점수에 대해 공변량분석(ANCOVA)를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회피애착 점수에 대해 공변량분석(ANCOVA)를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문제별로 살펴본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해체가족 위기여자청소년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핍욕구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은 어떠한가?

이 프로그램은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해 낸 결핍욕구와 불안정 애착으로 구성되었다. 2가지 상위 요인을 중심으로 총 10회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결핍욕구 해결을 위한 주제로는 자신의 가치관 점검하기, 아동기와 현재의 결핍욕구 알고 해결하기, 과거의 결핍욕구가 지금의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대인관계 시 내 감정의 원천 이해하기, 역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로 구성하였다. 불안정 애착해결을 위한 주제로는 부·모와의 관계 돌아보기, 파트너와의 관계 점검하기로 이루어졌다.

연구문제2. 해체가족 위기여자청소년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핍욕구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는 어떠한가?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자아존중감 척도와 불안애착 척도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으나 회피애착 척도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애착은 자기표상의 척도로서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프로그램 종료 후 바로 평가 시에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회피애착은 타인 표상의 척도로서 대인관계상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이므로 프로그램 종료 후 즉시 실시한 평가에서는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해석된다. 즉, 태도상의 변화는 프로그램 직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추수검사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대인관계 상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확인은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보면 인식의 변화에서 첫째,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자신의 결핍욕구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둘째, 부와 모의 결핍욕구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던 입장에서 이해하는 시각으로 변화였다. 셋째, 가족 내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가족 내에서의 역할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넷째,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게 되었다. 다섯째, 이성과의 관계에서 균형 맞추는 법을 알게 되었다.

태도의 변화에 있어서는 첫째,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 실제적으로 관계 개선이 되었다. 둘째, 이성 관계에서 이성에게 자신의 모든 자원을 다 투자하지 않고 균형을 취하게 되었다. 셋째, 대인관계에서 흑백 논리로만 보던 시각이 확대되어 이해의 폭이 넓어져 대인관계방식이 원만해졌다.

2. 연구의 논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에 대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논의

첫째, 이 연구는 김창대(2002)의 모형에서 프로그램 개발 4단계를 참고하여 목적에 맞게 하위단계를 재구성 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1단계인 목표 수립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필요성의 확보를 위해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조사하였고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2단계인 프로그램 구성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계획을 구성하였고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구성안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3단계인 예비연구 단계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위기청소년들의 특성상 예비연구 단계를 통해 내용 수정에 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또한 프로그램 내용이 전반적으로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담고 있어 청소년 시각에서의 내용 고찰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일반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내용 안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여 수정하였다. 4단계인 프로그램 실시 및 수정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을 직접 위기여자청소년들에게 실시하였고 효과 검증을 하였다. 효과 검증을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고, 만족도 분석에서는 과정분석, 지연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이 연구는 요구도 조사를 위해 사례면접을 실시하였다. 위기여자청소년들이 처한 현재의 문제와 곧 그들에게 닥칠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같은 위기유형의 20대 위기여성들을 선정하였다. 그들은 10대에 가출한 이후 가정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은 20대 여성들로 특수집단이면서도 어느 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들이다. 따라서 대상자들과의 만남이 쉽지 않았으나 수차례 시도하면서 면접을 통하여 그들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사례면접 결과 그들은 빈곤, 가정폭력과 가정불화, 부정적인 모와의 관계, 부모의 부정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가진 문제를 토대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빈곤은 욕구이론에서 생존의 욕구에 대한 결핍을 의미하며 이것은 가족 내에서 사례대상자들은 보살핌을 받아야하는 자녀로

서의 삶이 아닌 부모의 경제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과 가정불화는 욕구이론에서 안전의 욕구가 결핍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안전하지 못한 가족의 정체감을 상실하게 만들고 결국 대물림시킬 가능성을 높인다. 부정적인 모와의 관계는 욕구 이론에서 소속 및 애정의 욕구가 결핍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애정의 결핍은 애착이론에서 불 때 인성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내적 작동 모델을 통해 이성관계 및 대인관계 패턴에 그대로 반영하게 된다. 부모의 부정적인 부부관계는 욕구 이론에서 존중의 욕구를 결핍하게 만들고 이것은 애착이론에서의 낮은 자존감과 연결된다. 그 결과 그 자녀들은 파트너를 잘못 선택하거나 구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위기여자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내면으로는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인성이며, 외면으로는 이성이나 대인관계의 불안정한 맺음이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성 관계를 포함한 안정적 대인관계의 형성으로 귀결되었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가지 상위 목표로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핍욕구의 해결을 도출해 내었다.

불안정 성인애착의 해결을 위한 하위 목표로는 부모와의 관계를 탐색하기, 수정된 정서 경험하기, 이성관계 패턴 인식하기이며 결핍욕구의 해결을 위한 하위 목표로는 결핍 욕구 인식하기와 자아존중감 향상으로 나타났다.

셋째, 생각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위기청소년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 ‘생각해보기’-‘생각의 뿌리찾기’-‘새롭게 생각하기’-‘새로운 생각 씨 뿌리기’의 소재목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대상자들의 특성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고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도 힘들어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 대상자들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자체는 그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이 생각을 좀 더 쉽게,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 생각의 흐름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 종료 후 소감 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다 본 것 같다’고 하는 사례대상자의 소감처럼 이러한 구성은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넷째, 위기여자청소년들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인 심리적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대

부분 그들이 처한 현재의 상태에 대한 실태조사가 주를 이루며 직접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들은 자립을 위한 사회 기술적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대다수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심리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 하더라도 대부분 자아존중감 향상, 정서조절, 인권감수성 향상 등의 집단상담을 들 수 있다. 또한 위기청소년들 중에서도 위기여자청소년들의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접근한 프로그램 관련 연구는 많지 않다. 여자청소년들을 위한 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로 성적 학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최근의 위기청소년들의 특징은 가정이 해체되어 부모가 가출하거나, 가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해체가족 청소년들이 주를 이룬다. 이런 경우 그들의 가출은 이미 가출 전부터 심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단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심리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 그리고 현재에 기본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청소년들 역시 기본욕구가 충족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통해 위기여자청소년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성 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대인관계 개선을 위해 분노조절을 포함한 정서조절, 의사소통 훈련 등은 대인관계를 위한 기술적인 부분으로 내면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대인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그들의 충족되지 못한 기본욕구가 무엇인지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또한 심리적인 문제의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수동적인 참여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구조화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작성토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인식의 변화를 요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심리상태를 인식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2) 프로그램 효과 검증에 관한 논의

이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은 이성 관계를 포함한 안정적 대인관계 형성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는 결핍욕구 해결과 불안정 성인애착 해결이다. 결핍욕구 해결과 불안정 성인애착 해결을 위해 10명의 위기여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0회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프로그램은 결핍욕구 해결을 위한 평가척도로 자아존중감척도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 종료 시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 이것은 곧 그들의 결핍욕구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결핍욕구를 모두 해결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자신이 결핍욕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그 결핍욕구가 지금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게끔 하는 데 있다. 또한 결핍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완전히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결핍욕구로 인한 결과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지금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안적으로 찾도록 하였다. 그로 인해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상황을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런 믿음은 특히, 모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남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그러한 믿음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불안정 성인애착의 해결을 위해 불안애착척도와 회피애착척도를 사용하였다. 불안애착척도는 긍정적인 변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회피애착척도는 긍정적인 변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불안애착은 자기 표상에 대한 척도로 자신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의 향상과 함께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피애착척도가 유의미하게 긍정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찰해보면, 회피애착의 사람들은 타인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일정 부분 그들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 보인다. 그래서 회피애착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타인과 관계 맺는 것과 그들의 어려움 사이의 연결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그들이 필요시 도움을 요청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Cassidy, 1994, 2000; Kobak et al., 1988; Lopez & Brennan, 2000; Mikulincer et al., 2003; Pietromonaco et al., 2000; Shaver et al., 2002, 임수진, 2007에서 재인용). 즉 회피애착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대인관계를 잘 맺도록 하여 그 관계를 통해 타인을 신뢰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자신과 타인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이 키워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아존중감과 불안애착은 자신에 대한 평가로 프로그램 과정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피애착의 경우 프로그램 종료 직 후 타인에 대한 평가를 고려해볼 만한 대인관계를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로 인해 과정 분석이나 만족도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대인관계상의 변화가 지연효과 분석에서는 시간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즉, 프로그램의 효과가 나타나는 순서를 보면 대인관계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우선순위는 자아존중감 향상과 불안애착의 감소와 같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는 대인관계 맺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긍정적인 관계맺음의 결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셋째, 위기여자청소년들에게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구성이 인식의 변화와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위기여자청소년들은 어린 시절 주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어린 시절의 불안정한 애착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애착관련적 경험에 집중적으로 탐색을 한 후 안전한 장소에서의 수정된 정서경험은 애착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이 연구에서도 자신의 가족 내의 역할과 결핍욕구에 대한 탐색과 더불어 ‘교정적 감정경험’을 통해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프로그램 과정에서 부모에게서 받은 편지를 통해 느낀 간접적 대리만족과 부모의 결핍욕구 탐색을 통한 감정으로의 이해는 충분히 수정된 정서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들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새롭게 교정된 감정들로 인해 인식의 변화는 물론 태도의 변화 또한 이끌어내었다고 할 수 있다.

3. 한계 및 제언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대상자는 위기여자청소년들이다. 따라서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프로그램 대상으로 구성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분산의 동질성은 동일했으나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 무작위 표집이 아닌 프로그램에 동의하는 사람을 구성원으로 모집했다는 점에 있어서 실험집단 선정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 연구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자아존중감과 불안척도, 회피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과정 분석, 만족도 분석, 지연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중 회피척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연효과 분석 시 타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척도에 대한 재검사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러한 결과를 얻지 못한 이유로는 그들이 특수집단이라는 특성이 큰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척도에 대한 재검사를 위해서는 실험·통제 집단과 다시 한번 접촉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기청소년이라는 특성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척도검사는 실시 가능하였으나 1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그들과의 만남은 힘들었다. 실제로 실험집단 구성원 10명 중 4주 후 지연효과 분석을 위한 면접 시도 시 1명이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9명을 대상으로 지연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실험집단 뿐만 아니라 통제집단까지 4주 후 재검사를 위한 만남을 위해 대상자들과 장기간 연구를 위한 관계유지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로서의 어려움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례면접을 통해 위기여자청소년들의 삶이 가출 이후 뿐만 아니라 가출 이전부터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출청소년들 중에서도 남자가출청소년들보다 여자가출청소년들이 가출 전부터 시작하여 가출 이후까지 그들이 처한 생태적 환경이 더 위기라는 것을 가출청소년관련 연구들을 통해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학계에서나 관련 단체 및 관계인을 제외하고는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마저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위기여자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사회적 이슈

인 성매매 등의 현상과 연결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성매매를 단절시키기 위한 방안마련에 있어 단선적인 원인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결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기여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의 추적조사가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 장기적인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에서의 사례면접 대상자들은 가출 후 청소년복지시설인 가출청소년쉼터의 보호를 받은 경험이 있다. 그들이 제도적 장치인 가출청소년쉼터의 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으로 복귀되지 못하고 여전히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동거형태의 삶을 사는 것을 봤을 때 위기여자청소년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상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나이가 지나면 복지적 혜택은 전무해진다. 일반청년들은 물론 특히, 위기청소년이 시간이 흘러 갖게 되는 일명 위기청년의 지위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더 더욱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기청소년들이 가정복귀 되지 못했을 때 단지 연령의 제한으로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자립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위기청소년들은 위기청년들이 되며 위기청년들은 곧 미래의 저소득이며 또 다른 해체가족의 부모가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위기청소년들이 자립이 될 때까지 연령에 구애 없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이 프로그램의 초점을 결핍욕구 해결과 불안정 성인애착 해결에 맞추어 진행한 결과 프로그램 종료 시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고 불안애착이 감소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위기여자청소년들의 미충족욕구와 불안정애착이 어린 시절 형성 된 후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며 미충족욕구에 대한 갈망으로 삶의 전반을 결핍욕구를 채우기 위한 목표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여러 정부시책 지원을 통해서도 그들의 삶의 패턴이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연구가 아닌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그들이 부모의 삶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심리정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폭넓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이 연구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다음과 같다.

이 프로그램은 내용 상 생각을 깊게 하고,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로 인해 생각의 흐름으로 최대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지만 프로그램 과정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예를 많이 기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보충 설명을 더 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위기청소년들 수준에 맞는 예시를 최대한 많이 워크북에 수록하거나 혹은 집단 운영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대상자들의 수준에 맞는 예를 추가로 설명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 대상자들인 해체가족 위기여자청소년들이 모두 가출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서 가출여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가출은 했지만 성매매를 하지 않은 여자청소년과, 가출과 성매매를 모두 한 여자청소년의 생태학적 조건이 다른 연구결과(정혜원, 2012)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프로그램이 가출과 성매매를 모두 한 여자청소년들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있다. 즉 가출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하지만 일정부분의 한계치에 대한 기준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그렇다면 가출과 성매매를 모두 한 여자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한계치 기준 이하의 상태라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는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들을 고려하여 가출 성매매 위기여자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 대상자들은 17세부터 24세까지로 중기와 후기 여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사례분석의 대상자들인 20대 위기여성들의 삶은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삶의 패턴은 고정적이며 일정하게 유지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를 벗어나더라도 10대에 나타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쉽게 동거를 선택하는 성인 초기 20대를 위한 프로그램 역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위기여성을 대상으로 사례면접을 실시하여 그들의 요구문제를 파악하고 위기여자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결핍욕구와 불안정 애착을 상위요인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결핍욕구를 해결하고 성인애착 중 불안애착을 감소시켰으며 위기여자청소년의 인식과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선영(2010). 아동기 학대를 경험한 성인들의 부부갈등 양상에 관한 연구.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은숙, 최은영, 공마리아(2008). 가출청소년의 분노감소를 위한 REBT 미술치료 사례연구.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26(2).
- 고기홍, 김경복, 양정국(2010). 밀턴 에릭슨과 혁신적 상담. 서울: 시그마프레스.
- 고미영(2004).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1).
- 고민좌, 김혜숙(2014). 저소득 기혼남녀의 인성특성과 부부갈등 정도. 한국가족복지학 19(3).
- 고민좌, 김혜숙(2016). 20대 성인이 지각한 부모의 행복도, 배경변인과 가족관계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21(2).
- 구본용(2005). 위기(가능) 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연구. 청소년 3005-43, 청소년위원회.
- 김건영(2009). 대학생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미(2009). 부부의 성격특성과 갈등의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준, 김지혜, 류명화, 정익중(2006). 청소년 유형별 복지욕구 실태와 지원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수정, 손경숙(2007). 가출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정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한국사회복지연구회 (35).
- 김은영(2012). 여성청소년의 성적학대경험, 가출, 폭력적 비행, 그리고 성관련 비행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아시아교정포럼 학술지 교정담론 6(1).
- 김영란(2005). 위기청소년 지원체계와 보호시설의 역할.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국제심포지엄 2005(1).

- 김영순, 김혜원(2007). 청소년 가출의 실태 파악과 가정, 학교, 성격 및 자아개념과의 관련성 분석.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5(2).
- 김문정(2000). 가출청소년의 비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관(2001). 가출소녀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경(1997). 가출소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성현(2003).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모(1992). 빈곤이론 빈곤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김영애(2015). 사티어 모델: 이론과 실제.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 김용길(2011). 가출청소년 가정복귀 지원을 위한 심층조사 및 정책과제 발굴. 여성가족부.
- 김윤나(2012). 2012년 가출청소년이 환경변화와 정책방향 토론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김은아(2011). Maslow이론에 비추어 본 퇴계의 교육적 자아실현.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삼(2008). 중장기청소년쉼터 입소자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2005). 가출 청소년의 비행화 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경(2013).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Ⅱ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2).
- 김지영, 정소연(2014). 가출청소년보호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준호, 박정선(1993).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진화(2001).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론. 서울: 원미사.
- 김창대(2002). 청소년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창대, 김형수, 신을진, 이상희, 최한나(2011). 상담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서울: 학지사.
- 김향초(2005). 가출청소년의 이해와 지원프로그램. 서울: 학지사.
- 김향초(2009). 가출청소년의 이해와 상담. 서울: 학지사.
- 김현수, 홍민하, 고미애(2015). 가출청소년에서 애착과 중독문제가 관계 및 컴퓨터 생활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신림청소년센터.
- 권량희(2015). 임파워먼트 긍정심리 프로그램이 가출청소년의 우울, 낙관성,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소년보호연구 (28).
- 권이종, 남정길, 차경수, 최충옥, 최운실, 최윤진(1998). 청소년교육론. 서울: 양서원.
- 남미애, 홍봉선, 아영아(2009). 성매수피해 청소년의 현황과 사회적 지원체계 점검. 보건복지가족부.
- 남상인(2006).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의 의미와 개선방안. 청소년행동연구 (11).
- 노혜련(2000). 실직자가족 중 해체된 가족과 해체되지 않은 가족간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욕구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
- 노혁(2000). 가출 여자청소년의 성 상품화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방안. 학교사회복지 (3).
- 도미향(2006). 빈곤가족의 해체현상에 관한 연구. 아시아아동복지연구 4(3).
- 도수경(1990). 가출경험소녀와 비가출경험소녀간의 가족관계 연구 : Circumplex Model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상식(2013). 청소년의 가출충동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심리적·사회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유진(2006). 부부갈등의 경험과 부부갈등의 해결정도가 아동의 정서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명숙(200). 청소년 가출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3(1).
- 박영순(2010). 조손가정 아동의 적응과 애착에 관한 기독교 상담 연구-John Bowlby의 애착이론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은민(2008). 가정학대 피해 가출 청소년을 위한 정서조절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인우(1996). 감성지능 프로그램 개발의 교육공학적 접근. 교육학연구 14(12).
- 방은령(2003). 가정복귀 가출청소년들의 귀가요인 분석 및 가출청소년지도 방안 모색. 한국청소년개발원.
- 배주미, 이은경, 허지은(2009). 가출청소년을 위한 단기쉼터 초기사정 매뉴얼 개발. 한국청소년상담원.
- 배주미, 김동민, 정슬기, 강태훈, 박현진(2010). 2010년 전국 청소년 위기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변혜정(2007). 청소년의 가출의미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학 23(1).
- 서울시늘푸른여성지원센터(2006). 십대를 위한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은 가능한가? 청소년 성평등 정책 포럼.
- 서울YMCA청소년쉼터(1997). 청소년의 가출과 가정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연구.
- 성윤숙(2009). 여자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손경숙(2008). 가출청소년의 사회성 기술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임상사회사업연구 5(3).
- 신민향(2001).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회기술훈련 집단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연희(2008). 여자비행청소년의 성적학대 치유프로그램의 방향. 아시아교정포럼 2(2).
- 양옥경(2000). 한국가족개념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6).
- 어주경(1998). 저소득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2010).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여성가족부(2011).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사업안내.
- 연성진, 민수홍(2004). 가출청소년의 비행예방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오승환(2010). 청소년 가출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 요인-가출충동과 가출경험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 유서구, 김웅수, 김윤나, 서보람, 강현우(2012). 가출팸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발굴 결과 보고서. 여성가족부.
- 유성경, 박승리, 황매향(2010). 한국 초.중.고등학생용 부모애착 척도의 타당화 연구. 초등상담연구 9(1).
- 윤양숙, 조성심, 주석진(2013). 청소년의 가출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미래청소년학회 11(2).
- 윤철경(2006).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김성경, 김현주, 박병식, 이봉주, 장해영(2005). 청소년 보호정책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05-R10.
- 윤현영, 권선중, 황동아(2007).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 건강실태 조사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 이명순, 박주현(2008). 입양을 결정한 10대 미혼모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13(3).
- 이시은(2003). 청소년기 애착에 관한 질적 분석.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교(2006).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이원숙, 신나연, 박영혜(2014). 건강가정론. 서울: 학지사.
- 이정자, 유영숙, 정현주(2011). 사례연구: 사회적 기술 향상 프로그램이 위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15(3).
- 이정희(2000).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화영(2014).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관계 중단과정에 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수진(2007). 성인애착이 도움추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공변량구조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선영(2012). 가출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상담평가학회 5(1).

- 전학열(2011). 청소년위험행동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다차원성 모형검증.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경은, 조규필, 문성호(2008). 가출청소년의 직업 및 취업설계 프로그램(TOP) 효과성 평가. 미래청소년학회 5(4).
- 정문자, 김진이, 김태은, 최난경(2010). 가출 청소년을 위한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연구. 대한가정학회 48(1).
- 정인석(2008). 삶의 의미를 찾는 역경의 심리학. 나노미디어.
- 정혜원(2012). 가출 및 성매매 경험 십대여성의 특성과 그녀들을 위한 진로교육 방향. 범죄와 비행.
- 정민자(1992). 임상-정상가족의 가족체계 유형 및 가족스트레스, 가족자원과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89)
- 정옥분(2006).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진희(2016). 쉼터거주 가출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진로탐색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규필, 권혜수, 김범구, 박가열(2008). 위기청소년 자립을 위한 사회진출지원 프로그램 효과 분석. 한국청소년정책원 19(2).
- 조동혁(2016). 가족의 형성과 해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성희(1999). 실직자가족의 해체가능성에 관한 연구: 실직 가장의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학래(2004). 가출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행정논집 (31).
- 주수길(2000). 빈곤가족의 부부갈등 해결 전략.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승희, 양미진, 이자영, 김태성, 홍지연(2006). 위기(가능)청소년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지창희(1987). 중학생의 가출원인 및 성격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경자(2005). 결혼의 질과 안정을 저해하는 부부갈등 영역.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1)

- 허금진(2008). 가출여자청소년의 가출 후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경자(2008). 저소득층 부부들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및 결혼결과: 탄력적 대응을 돕는 기혼자의 자기해석.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22(3).
- 현경자(2012). 경제적 압박과 저소득층 부부의 친밀성: 남편과 부인의 관점의 다각화와 갈등반응행동의 기제연구.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7(3).
- 차명호, 양종국, 정경용.(2010). 청소년 가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분석. *소년보호연구* (15).
- 최소영, 송민경, 김은영(2010). 가출청소년의 귀가 결정요인 및 경향성 분석. *강남구청소년쉼터 10주년 운영연구보고서*.
- 최순중(2012). 거리청소년, 대책은 무엇인가? 정책토론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표갑수(1998). 아동청소년복지론. 청주: 청주대학교 출판부.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2). 전국 가출청소년 실태조사 및 상담사례 연구.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10).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한국가족학연구회(1992). 도시저소득층의 가족문제. 서울: 하우.
- 홍봉선, 남미애(2007). 청소년복지론. 서울: 양서원.

2. 해외문헌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Amato, P. R.(1991). Psychological distress and the recall of childhood family characterist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011-1019.
- Bartholomew, K., & Horowitz., L. M.(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elsky, J., Spritz, B., & Cicchetti, K.(1996). Infant attachment security and affective-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at age 3. *Psychological Science* 7:111~114
- Bowlby, J.(1982). *Attachment and loss: Vol.1. Attachment(2nd ed.)*.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1982). Attachment, 김창대(2009) 역, 나남.
- Bradshaw, J.(2004). 오제은 역,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 서울: 학지사.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NY: Guilford Press.
- Brisch, K. H.(1999), 애착장애의 치료- 이론에서 실제까지. 장휘숙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Cassidy, J.(1988). Child Development attachment and the self in six-year-olds. *Child Development Psychology* 25: 525-531.
- Cassidy, J.(1994). Emotion regulation: Influence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28-249.
- Cassidy, J.(2000). Adult romantic attachments: A development perspective on individual differenc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4, 111-131.
- Collins, N. L. & Read, S. J.(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s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 Conger, R. D., & Elder, G. H. Jr.(1990). Linking Economic Hardships to Marital Quality and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643~656.
- Dail, P. W.(1988). Unemployment and Family Stress. *Public Welfare*, 46, 30~34.
- David H. Olson, Amy Olson-Sigg & Peter J. Larson(2011). 커플체크업. 김덕일, 나희수 공역, 서울: 학지사.

- Eccles, J. S., Lord, S., & Midgley, C.(1991). What are we doing to early adolescents? The impact of educational contexts on early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99, 521-542.
-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81-291.
- Fonagy, P.(2001). Attachment theory and psychoanalysis, New York. 반건호 역, 2005, 도서출판 빈센트.
- Fonagy, P., Steele, M., Steele, M., Higgitt, A., & Target, M.(1994). Theory and practice of resili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35: 231-257.
- Frommer, E. A., & O'Shea, G.(1973). 'Antenatal identification of women liable to have problems in managing their infants.' *Brithsh J. Psychiatry*, 123, 149-56.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eard, D. & Lake, B(1986). The attachment dynamic in adult lif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9; 430-438
- Holmes, J.(2008). 존 볼비와 애착이론. 이경숙 역. 서울: 학지사.
- Kaufman, J. G. & Widom, C. S.(1999). childhood victimization, running away, and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6(4), 347-370.
- Kobak, R. R. & Hazan, C.(1991). Attachment in marriage: Effects of security and accuracy of working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6).
- Kobak, R. R., & Sreery, A.(199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Lerner, D. G. & Kruger, L. J.(1997). Children's attachment representations: Longitudinal relations to school behavior childhood and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3, 703-710.
- Lopez, F. G., & Brennan, K. A.(2000). Dynamic processes underlying adult attachment organization: Toward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on the healthy and effective sel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283-301.
- Maslow, A. H.(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2nd ed). NY: Harper & Row.
- Maslow, A. H.(2005). 존재의 심리학. 정태연, 노현정 공역, 서울: 문예출판사.
- McCubbin, H. I., & Patterson, J. M.(1983). *System Assessment of Family Stress, Resources & Coping*. St. Paul, Minnesota: University Minnesota Press.
- McWhirter, J. J.(2001). *At Risk Youth: A Comprehensive Response*, Second Edition.
- Miller, A. W.(1980). Learning the theory and vocational decisions.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7, 29-44.
- Mikulincer, M. & Nachshon, O.(1991). Attachment style and pattern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 Mikulincer, M., Shaver, P. R., & Pereg, D.(2003). Attachment theory and affect regulation: The dynamics, development,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attachment-related strategies. *Motivation and Emotion*, 27, 77-102.
- Pietromonaco, P. R. & Barrett, L. F.(2000). The internal working models concept: What do we really know about the self in relation to other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4, 155-157.
- Robert, A. R.(1987). *Runaway and non-runaway: An expeoratory study of adolescent and parental coping*, IL: The Dorsey Press.
- Rutter, M.(1981). *Maternal Deprivation Reassessed*, 2nd ed, London:

Penguin.

- Shaver, P. R., & Mikulincer, M.(2002). Attachment-related psychodynamics.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4, 133-161.
- Sussman, S., & Wills, T. A. (2001). Rationale for program development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 Wolkind, S., Hall, F. & Pawlby, S.(1977). 'Individual differences in behavior', a combined epidemiological and observational approach.' In *Epidemiological Approaches in child Psychiatry*, ed. P. J. Graham, PP 107-23. New York and London; Academic Press.
- Yoder, K. A., Whitbeck, L., B., & Hoyt, D. R.(2001). Event history analysis of antecedents to running away from home and being on the stree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1), 51-65

3. 기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어사전.

경향신문(1998. 03. 25).

동아일보(1998. 05. 01).

동아일보(2011. 03. 23). 시사저널 특집 ‘팸’을 만들어 위험한 동거까지.

두산백과.

대한민국청소년의회(2013. 01. 23). 가출청소년, ‘지옥 알바’의 끝.

사회복지학사전(이철수 외 공저, 2009. 8. 15).

서울방송(1998. 03. 08). ‘그것이 알고 싶다.’

연합뉴스(2013. 09. 10). 청소년 자살 10년간 57.2%↑…증가율 OECD 2위.

일요시사(2015. 05. 20).

위키트리, 2013. 05. 14. 데이트 성폭력 유형과 대처법.

철학사전(임석진 외, 2009).

통계청(2015).

한국가이던스(<http://www.guidance.co.kr>). 자아존중감 척도(안창규 개발).

한국가족학연구회(1992).

한국일보(2005. 10. 11). 가출·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 170만.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5. 08. 28. '데이트 폭력'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 4.

MBC뉴스(2016. 02. 29, 네이버 뉴스).

<Abstract>

The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Deficiency Need Resolving Program for The Female Adolescent in Disorganized Family

Min-Jwa Ko

Dept. of Home Management
Jeju National University

Prof. Hye-Sook Kim

This study's purpose is to develop a program resolving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deficiency need of female adolescent in disorganized family. Followings are the research questions selected due to the purpose of the study.

1. What are the components of the program for resolving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deficiency need of female adolescent in disorganized family?
2. Does a program for resolving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deficiency need of female adolescent in disorganized family is effective?
 - 2-1. Does a program for resolving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deficiency need of female adolescent in disorganized family

effects self-esteem?

2-2. Does a program for resolving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deficiency need of female adolescent in disorganized family effects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2-3. Does a program for resolving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deficiency need of female adolescent in disorganized family effects awareness and attitude?

As a foundation course of a development of a program for resolving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deficiency need of female adolescent in disorganized family, we have constructed theoretical basis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document research and progressed case studies on female adolescent in critical situation. Base on the results of those studies, we drew program proposal, developed 10 session program based on top 2 factors and set up final program through conformance examination as well as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The subject of this program were female adolescent in critical situation. They all had a background of disorganized family and aged 17 to 24 who were mid·late adolescent. There were 10 members of this program, which was done 2 times with each 5 people. Each sessions of the program has been progressed 2 times in a day which was all together 10 sessions during a week.

We used 10 question self-esteem scale which Korea Guidance is using, and also adult attachment scale made by Brennan which Sung-hyun Kim has adapted and modified. The adult attachment scale used in this research has been composed of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For the effectiveness verification of the program, we got the pre·post average of the experiment group and the controlled group. After that, we carried out covariance analysis to see if the post-inspection's effect is

relevant. As a result, the experiment group had higher post-average on self-esteem than the controlled group and had positive change on the effects of the program. The experiment group had a lower post-average on the attachment anxiety than the controlled group which had positive change on the effects of the program. Also, the experiment group had lower post-average on the attachment avoidance but it did not showed relevance to the effects of the program. Ultimately, this program gave positive effects on solving deficiency need and reducing attachment anxiety on adult attachment but did not gave positive effects on reducing attachment avoidance.

Furthermore, after finishing the program of the experiment group's program there has been a positive change on the participants' awareness and attitude on their perceptions which has been shown as a result of an analyzation of their evaluation on the overall program.

Followings are the summery of this research's result.

Firstly, we have developed a program to resolve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deficiency need of female adolescent in disorganized family. We have formed this program all together 10 sessions activities with two parts: solving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deficiency need.

Secondly, there has been a positive change on self-esteem and attachment anxiety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on the effect of the program to resolve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deficiency need of female adolescent in disorganized family.

Lastly, program for solving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deficiency need gave positive effects on change of perception, and also showed change on the attitude according to the analyzation of the delayed effacement after 4 weeks of the end of the program.

Therefor, this program has effects on female adolescent in disorganized family, reducing attachment anxiety among adult attachment.

생 . 각 . 나 . 무

10회기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안정애착형성과 미충족욕구 해결을 위한 것입니다. 나, _____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함께 나누었던 타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절대 비밀유지 할 것이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나 자신의 내면을 진실 되게 보기 위해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프로그램 참여자: (인)

연구 자: (인)

<1회기>

“ 나를 채는 저울 ”

[생각해보기]

♣ 나를 채는 저울은 무엇입니까?¹⁾

<예시1 - 사랑받음>

소라는 남자친구가 싫지 않다. 그래서 계속 교제를 해 보고 싶다. 하지만 남자 친구는 소라에게 성관계를 자주 요구한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거절하고 싶지만 결국 거절하지 못하고 요구를 들어준다.

<예시2 - 착한 이미지>

남자친구는 소희에게 놀러가자고 하며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물었다. 소희는 아무 데나 가도 좋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PC방과 당구장을 데리고 갔고, 뭘 먹고 싶은지 묻자 아무 거나 괜찮다고 해서 그는 순대국밥 집으로 데리고 갔다. 소희는 그날 저녁 너무 끔찍했다. 이 모든 게 그녀가 좋아하지 않은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소희는 한 주 내내 남자친구에게 삐죽거리자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단지 ‘그런 것 없어. 괜찮아’라고 대답했을 뿐이다.

<예시3 - 외모>

해리는 뚱뚱한 남자친구가 창피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살을 빼라고 잔소리를 하고 남자친구가 살을 빼기 전까지는 친구들에게 소개시키지 않을 생각이다.

<예시4 - 성공>

연희는 빨리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시시덕거리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깝다. 대인관계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주변사람들은 그녀에게 이기적이고 인간미가 없다고 한다.

<예시5 - 돈>

나리는 알바를 해서 돈이 생기면 바로 옷과 화장품을 사고 친구들에게 한턱 크게 쓴다. 그래서 인지 돈은 없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부잣집 외동딸이라고 생각을 한다.

1) ‘나를 채는 저울’은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신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잘 생각해보세요.

[생각의 뿌리 찾기]

♣ 나를 채는 저울은 언제부터 나에게 영향을 주었습니까?2)

<예시>

- 소라: 부모가 돈이 없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사주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고 싶다.
- 나리: 부모가 예쁜 언니만 예뻐했다. 나도 예뻐지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것이다.
- 소희: 부모는 다른 형제자매가 말을 듣지 않아 속상해했다. 그래서 나만이라도 속 썩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 해리: 부모가 나를 때렸다. 부모가 나를 때린 것은 아마도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인데 태어나서 때렸을 것이다.
- 연희: 성폭행을 당했다. 내 인생은 이제 다 망했고 끝이다. 내 인생은 더 이상 달라질 것이 없다.

[새롭게 생각하기]

♣ 미래의 내가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 나를 채는 저울은 어떤 저울이 되기를 바랍니다?3)

[새로운 생각 씨 뿌리기]

♣ 미래의 내가 행복하다면 그 행복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생각나무 사람들은 네잎 크로버를 찾기 위해 세잎 크로버를 짓밟습니다. 그러나 아시나요?
네잎 크로버의 꽃말은 행운이며 세잎 크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는 것을.
행운을 찾기 위해 지금 내 행복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2) '나를 채는 저울' 즉, 가치관이나 신념은 어떠한 사건이 있고 난 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생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자신의 가치관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3) 나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혹시 다르게 바뀌기를 바라십니까?

<2회기>

“ 나를 가늠 채우기 ”

[생각해보기]

<외식주>

지금의 나는...	아니다	그렇다
1. 갖고 싶은 것이 있지만 꼭 필요한지 생각하고 산다.		
2. 꾸준히 돈을 저축하고 있다.		
3.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분수에 맞게 돈을 쓴다.		
4. 돈 관리를 잘 한다.		
5. 기분에 따라 충동적으로 돈을 쓰지 않는다.		

<안전>

지금의 나는...	아니다	그렇다
6. 나를 심리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않는다.		
7. 싸우는 사람들을 봐도 크게 불안하지 않다.		
8. 침묵이 편안하다.		
9. 혼자 있어도 우울한 기분이 들지 않는다.		
10. 주변 상황에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다.		

<소속감과 애정>

지금의 나는...	아니다	그렇다
11. 친한 친구끼리, 연인끼리 집착하지 않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한다.		
12. 누군가 나보다 내 친구를 더 챙겨주는 것을 봐도 아무렇지 않다.		
13. 친구들, 어른들과의 관계가 만족스럽다.		
14. 내 주위에 사람이 많거나 없거나 내 기분은 그리 큰 변화가 없다.		
15. 새로 만나는 사람들과도 잘 지내는 편이다.		

<존중(배려, 이해)>

지금의 나는...	아니다	그렇다
16.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		
17. 상대가 내가 한 만큼 나에게 잘 해주지 않아도 속이 상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18.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누구의 문제인지 잘 구분해낼 수 있다.		
19. 내 성공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20.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자주 든다.		

♣ 의식주, 안전, 소속감, 존중 중에 나의 미충족욕구는 무엇입니까?4)

[생각의 뿌리 찾기]

의식주

어릴 적...	아니다	그렇다
1. 나는 내가 사는 집(주택)이 마음에 들었다.		
2. 나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들을 맘껏 먹을 수 있었다.		
3. 나는 잠을 푹 잘 수 있었다.		
4. 나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있었다.		
5. 나는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가질 수 있었다.		

안전

어릴 적 ...	아니다	그렇다
6. 부모님은 나를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7. 부모님은 많은 시간을 나와 함께 있었다.		
8. 나는 옆에 누군가가 함께 있어줘서 외롭거나 무서운 느낌이 들지 않았다.		
9. 나는 집에 있는 것이 편안했다.		
10. 우리 가족에는 폭력(신체적·성적·언어 폭력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		

4) 위의 네가지 영역 중 '아니다'가 많이 표시될수록 그 영역에서 당신은 미충족욕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속감과 애정

어릴 적...	아니다	그렇다
11. 부모님은 나에게 스킨십을 많이 해주었다.		
12. 나는 우리 가족이 좋았다.		
13. 우리 가족은 나를 좋아한다.		
14. 부모님은 다른 형제자매를 나와 차별하지 않았다.		
15. 나는 우리 가족에게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다.		

존중(배려, 이해)

어릴 적...	아니다	그렇다
16. 부모님은 내 감정을 공감해주었다.		
17. 부모님은 내 의견을 잘 들어주었다.		
18. 부모님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었다.		
19. 부모님은 내가 말을 듣지 않아도 체벌하지 않고 말로 잘 설명해주었다.		
20. 부모님은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았다.		

♣ 어린 시절 나의 미충족욕구들은 지금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⁵⁾

[새롭게 생각하기]

♣ 나의 미충족욕구들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생각 씨 뿌리기]

♣ 미래에 나의 미충족욕구들이 다 해결이 되었다면 그것을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⁶⁾

- 5) 어릴 적 4가지 영역의 '아니다'와 지금의 4가지 영역의 '아니다'를 비교하여 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지금의 나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듯 합니까?
- 6) 당신이 갓난아기 때와 유아기 때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미충족 욕구들은 예시와 같이 지금 당신이 직접 당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당신 안의 갓난아기의 욕구충족을 위한 훈련들7)

- * 따뜻한 목욕탕 안에 들어가 자신의 신체감각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간 보내기, 그냥 그 안에서 시간 보내기.
- * 손톱손질을 받아 보고, 머리모양도 바꿔 보기.
- * 담요나 두꺼운 이불로 온몸을 감싸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기.
- *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서 시간 보내기.
- * 아무 계획이나 약속도 만들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시간 보내기.
- * 일을 할 때 종종 한 모금씩 마실 수 있는 음료를 준비해 놓기.
- *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처음으로 무엇인가를 시도할 때, 달콤한 사탕이나 초콜릿 먹기.
- * 휴일을 골라 하루 동안 충분한 낮잠을 즐기기.

예시. 당신 안의 유아기의 욕구충족을 위한 훈련들8)

- * 버럭시장이나 백화점에 가서 당신의 관심을 끄는 모든 물건들을 만져 보고 관찰하기.
- * 한번도 먹어 보지 않은 음식들을 맛보기.
- * 당신이 한번도 가 보지 않은 장소에 가보기.
- * 운동장에서 아이들처럼 어울리기. 그네나 미끄럼틀도 타 보고, 정글짐에도 올라가 보기.
- * 해변에 가서 모래와 물속에서 놀면서 시간 보내기. 모래로 뭔가를 만들어 보기.
- * 가능한 여러 색깔의 그림물감을 이용하여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며 오후를 보내기.
- * 놀이동산에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거나 놀이기구를 타면서 시간을 보내기.
- * 미술관에 가서 다양한 그림 속의 화려한 색채를 감상하기.
- * 친구나 연인과 함께 오랫동안 산책하기.

♣ 생각나무9) * 결핍욕구: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및 애정의 욕구, 존중의 욕구
* 성장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결핍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결핍욕구를 채우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된다.

건강한 사람들은 결핍욕구와 같은 기본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주로 자기실현의 욕구로 나아간다.

7) John Bradshaw, 오제는 역(2004).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에서 발췌.
8) John Bradshaw, 오제는 역(2004).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에서 발췌.
9) Abraham H. Maslow, 정태연, 노현정 공역(2005). 존재의 심리학에서 발췌.

<3회기>

“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

문 항	아니다	그렇다
1. 우리 엄마는 내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		
2. 나는 우리 엄마가 좋은 엄마라고 생각한다.		
3. 나는 지금의 엄마 대신에 다른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4. 우리 엄마는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나를 좋아하신다.		
5. 우리 엄마는 나에게 적절하게 기대하신다.		
6. 이야기할 때 엄마는 내 생각을 존중해주신다.		
7. 우리 엄마는 내가 결정한 것을 믿어주신다.		
8. 엄마는 나를 이해하신다.		
9. 내가 화가 나있을 때 엄마는 나를 이해하려고 하신다.		
10. 나는 엄마를 믿는다.		
11. 내가 걱정하는 일들에 대해 엄마의 의견을 듣고 싶다.		
12. 우리 엄마 앞에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13. 우리 엄마는 내가 언제 기분이 나쁜지 알고 계신다.		
14. 엄마는 엄마의 문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 문제로 엄마(아빠)를 귀찮게 하지는 않는다.		
15. 우리 엄마는 내가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16. 나는 엄마에게 내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한다.		
17. 엄마는 내가 나의 어려움에 대해 얘기하도록 도와주신다.		
18.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나는 엄마에게 기댈 수 있다.		
19. 내가 뭔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엄마는 그것에 대해 물어보신다.		
20. 엄마에게 내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부끄럽고 바보 같은 느낌을 준다.(-)		
21. 나는 엄마와 함께 있을 때 자주 기분이 나빠진다.(-)		
22. 나는 엄마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23. 나는 엄마에게 화가 난다.(-)		
24. 우리 엄마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		
25. 엄마는 요즘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신다.(-)		

[생각해보기] 10)

♣ 엄마와 나는 어떤 점이 닮았습니까?

<참고자료1>11)

히틀러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매를 맞고 자랐다. 그의 아버지는 유대인 지주의 사생아였다. 폭력적인 아버지에게서 학대받으면서 자란 이 아이는 결국 인류 역사상 죄 없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가장 극단적인 잔인성을 자행했다.

<참고자료2>12)

한 심리치료 전문가가 자기 어머니가 나치 포로수용소에서 겪었던 소름 끼치는 경험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 중 가장 놀랄 만한 부분은 나치 군인이 자기 어머니를 대했던 방식으로,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를 3세도 채 되기 전에 ‘유대인 돼지’라고 부르며 어린 딸을 때렸던 것이다.

[생각의 뿌리 찾기]

♣ 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 엄마의 미충족된 욕구는 무엇입니까?

10) John Bradshaw, 오제은 역(2004).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에서 발췌. 1~10'신뢰감', 11~19'의사소통', 20~25'소외감'

11) John Bradshaw, 오제은 역(2004).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에서 발췌.

12) John Bradshaw, 오제은 역(2004).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에서 발췌.

[새롭게 생각하기]

♣ 엄마의 삶에서 어떤 점은 닳고 싶고, 어떤 점은 닳고 싶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각 씨 뿌리기]

♣ 엄마의 삶과 내 삶에서 어떤 점에서 닳고 싶다면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 엄마의 삶과 내 삶에서 어떤 점에서 닳고 싶지 않다면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 생각나무¹³⁾ 인간성을 파괴하는 주 요인인 공격적 행동은 어린 시절의 폭력과 학대, 해결되지 않은 슬픔의 결과물이다.
신체적·정서적 폭력들은 어린아이에게 너무나 끔찍한 것이어서, 학대받는 동안에 아이들은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다.
이 고통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대신 자신을 그 가해자와 동일시해 버린다.

13) John Bradshaw, 오제는 역(2004).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에서 발췌.

<4회기>

“ 내 파트너는 어디에서 왔는가? ”

[생각해보기] 14)

문 항	아니다	그렇다
1. 우리 아빠는 내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		
2. 나는 우리 아빠가 좋은 아빠라고 생각한다.		
3. 나는 지금의 아빠 대신에 다른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4. 우리 아빠는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나를 좋아하신다.		
5. 우리 아빠는 나에게 적절하게 기대하신다.		
6. 이야기할 때 아빠는 내 생각을 존중해주신다.		
7. 우리 아빠는 내가 결정한 것을 믿어주신다.		
8. 아빠는 나를 이해하신다.		
9. 내가 화가 나있을 때 아빠는 나를 이해하려고 하신다.		
10. 나는 아빠를 믿는다.		
11. 내가 걱정하는 일들에 대해 아빠의 의견을 듣고 싶다.		
12. 우리 아빠 앞에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13. 우리 아빠는 내가 언제 기분이 나쁜지 알고 계신다.		
14. 아빠는 아빠의 문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 문제로 아빠를 귀찮게 하지는 않는다.		
15. 우리 아빠는 내가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16. 나는 아빠에게 내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한다.		
17. 아빠는 내가 나의 어려움에 대해 얘기하도록 도와주신다.		
18.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나는 아빠에게 기댈 수 있다.		
19. 내가 뭔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아빠는 그것에 대해 물어보신다.		
20. 아빠에게 내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부끄럽고 바보 같은 느낌을 준다.(-)		
21. 나는 아빠와 함께 있을 때 자주 기분이 나빠진다.(-)		
22. 나는 아빠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23. 나는 아빠에게 화가 난다.(-)		
24. 우리 아빠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		
25. 아빠는 요즘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신다.(-)		

14) John Bradshaw, 오제은 역(2004).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에서 발췌. 1~10'신뢰감', 11~19'의사소통', 20~25'소외감'

♣ 아빠와 내 파트너는 어떤 점이 닮았습니까?¹⁵⁾

[생각의 뿌리 찾기]

♣ 아빠는 어떤 사람입니까?

♣ 아빠의 미충족된 욕구는 무엇입니까?

[새롭게 생각하기]

♣ 아빠의 삶과 내 파트너는 어떤 점은 닮기를 바라고 어떤 점은 닮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생각 씨 뿌리기]

♣ 아빠의 삶과 내 파트너가 닮기를 바란다면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 아빠의 삶과 내 파트너가 닮지 않기를 바란다면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5) 현재 남자친구가 없다면 과거의 남자친구와 비교해도 되며, 만약 한번도 남자친구가 없었다면 넘어가도 됩니다.

<참고자료>

소라는 알코올중독인 아빠가 싫었다. 일을 하지 않는 아빠를 대신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또 다시 집안일과 아빠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엄마의 모습 또한 싫었다. 그래서 소라는 절대 커서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대학 입학 후 근사한 남자가 와서 사귀자고 했고 다른 여자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사귀었다. 그러나 남자친구의 생각, 행동, 말이 낯설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서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헤어졌다.

그러다 새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소라를 필요로 했고 말을 잘 들었으며 그녀에게 의지하였다. 소라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뿌듯했고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둘은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이후에도 그는 소라에게 계속 의지하였고 소라는 결국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가정경제를 도맡게 되었다.

♣ 생각나무¹⁶⁾ Collins와 Read(1990)의 연구에 의하면 자신의 아버지를 따듯하고 공감적이었다고 기억하는 여성들은 친밀감이 높은 남성과 낭만적 관계를 맺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아버지가 냉정하고 멀게 느껴졌거나 비밀관적이었다고 기억하는 여성들은 안정적인 남성들과 데이트하는 경향이 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를 냉정하고 비밀관적이었다고 기억한 남성들은 안정적인 여성들보다는 불안정한 유형의 여성과 관계를 맺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자신과 유사한 유형의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16) John Bradshaw, 오제은 역(2004).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에서 발췌.

<5회기>

“ 아동기와 나를 돌아주기 ”

[생각해보기] 17)

문 항	아니오	예
1. 종종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남녀에 상관없이 좋은 친구가 더 많이 있었으면 하십니까?		
3. 사교적인 상황에서 종종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4. 그룹의 구성원이 되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혼자 있을 때가 편안 하십니까?		
5. 가끔 지나치게 경쟁심이 강하다는 말을 들습니까? 꼭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6. 당신의 가족들이나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종종 충돌이 일어납니까?		
7. 의견을 나눌 때, 쉽게 포기해 버린다거나 또는 당신의 방식만 주장하는 편 입니까?		
8. 원리원칙을 따르는 정확하고 엄격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까?		
9. 쉽게 미루는 편입니까?		
10. 어떤 일을 끝내는 게 어렵습니까?		
11. 명확한 지시 없이도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실수할까봐 많이 두렵습니까? 어쩔 수 없이 실수했을 때 심한 수치심을 느끼십니까?		
13. 다른 사람에게 자주 화를 내거나 그들을 비판합니까?		
14. 기본적인 삶의 기술이 부족하십니까?(예, 읽기능력, 말하기능력, 문법과 글 쓰기능력, 산술계산능력 등)		
15.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한 말들을 생각하거나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16. 자신이 못생겼거나 열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예’라고 답하셨다면 옷이나 물건, 돈 또는 화장으로 그것을 감추려고 하십니까?		
17.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18. 당신이 무엇을 하든 간에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17) John Bradshaw, 오제은 역(2004).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에서 발췌.

[생각의 뿌리 찾기]

♣ 나의 아동기에서 내가 기억하는 강렬한 사건들은 무엇입니까?¹⁸⁾

♣ 나의 아동기에서 나는 가족 내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습니까?¹⁹⁾

<예시 - 가족내에서의 역할>²⁰⁾

가족의 상담자	문제아	아빠의 희생양	잃어버린 아이
가족의 행복	바보짓 하는 아이	아픈 아이	있으나마나한 아이
가해자	반항아	악 당	자학하는 아이
거짓말쟁이	보 모	애어른	조정자
걱정거리	보호자	어린왕자	종교적인 아이
대리인	부모의 부모	엄마의 기쁨	주인공
공격자	성 자	엄마의 친구	지정된 환자
공 주	성취도 낮은 아이	엄마의 희생양	착한 아이
광 대	성취도 높은 아이	연 인	책임감 강한 아이
귀염둥이	소년·소녀 가장	영악한 아이	천 재
나쁜 아이	스 타	영 웅	총 아
눈치 보는 아이	승 자	예쁜이	패 자
대리 배우자	심각한 아이	완벽한 아이	피해자
막역한 친구	아빠의 기쁨	왕 따	햇 살
모범생	아빠의 친구	운동선수	

18) 긍정적인 기억이든 부정적인 기억이든 상관없습니다. 초등학교 시절하면 가장 먼저 혹은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19) 일반적인 누나·언니·동생·팔역할이 아닌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나의 역할을 찾아보십시오.

20) John Bradshaw, 오제는 역(2004).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에서 발췌.

[새롭게 생각하기]

♣ 가족 내에서 나의 역할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까?²¹⁾

♣ 가족 내에서 아동기의 강렬한 사건이나 나의 역할들은 지금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새로운 생각 씨 뿌리기]

♣ 나의 역할들이 어떻게 바뀌어 지기를 원하십니까?

♣ 나의 역할들이 바뀌어 지기를 원한다면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참고자료>

-눈지 보는 아이-

나리는 단 한번도 엄마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얘기해 보지 않았다. 엄마는 아빠 없이 나리를 키우느라 늘 바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마를 귀찮게 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나리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다 보니 나리는 좋아하는 것이 뭔지,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알 수가 없었다. 그저 엄마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았다.

결국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나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은 얘기하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나리조차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뭔지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

21) 나의 역할들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서 그럴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언제부터 혹은 어떤 일이 있고 난 후부터 나의 역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생각나무²²⁾

여러분이 겪은 가장 최악의 순간을 가장 최고의 경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졌다는 것은 그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가장 강력한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았다면, 오히려 그 경험 때문에 부인이나 자녀에게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어 다시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새로운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나를 꼼짝하지 못하게 지나치게 엄격한 환경에서 성장했다면,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면, 이제는 커다란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끔찍한 사건도 더 나아가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2) 미상

<6회기>

“ 나를 돌봐주기 ”

[생각해보기] 23)

문 항	아니오	예
1. 권위를 가진 사람들과 종종 갈등을 일으킵니까?		
2. 다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 ‘쓸데없는 규칙이나 규정들’ 때문에 화가 납니까?(다른 사람들이 ‘쓸데없는 규칙이나 규정들’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화가 납니까?)		
3. 부모님 앞에서는 금방 복종하는 아이(혹은 반항하는 아이)의 역할로 바뀌니까?		
4.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럽습니까?		
5. 자신의 인생 스타일이 유별하며 순응적이지 않기 때문에 남들보다 낫다고 느끼니까?		
6. 어릴 적 종교를 지금도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까?		
7. 이성하고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까?		
8. 일 관계가 아닌 이성과의 관계는 모두 성적이거나 로맨틱합니까?		
9. 인생에서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연애소설이나 공상과학소설을 탐독하는 공상가입니까?		
10.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성숙해져라’는 말을 듣는 편입니까?		
11. 상황이 보편적인 윤리나 규범과는 어긋나게 진행되고 있을 때,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가 힘들습니까?		
12. 정신적 지도자나 영웅을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사이비종교 등에 깊이 빠져 있습니까?		
13.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많은 말들을 하지만 정작 실행은 거의 하지 않는 편입니까?		
14.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아무도 당신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까?		

23) John Bradshaw, 오제은 역(2004).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에서 발췌.

[생각의 뿌리찾기]

♣ 아버지가 나에게 쓰는 편지

--

♣ 어머니가 나에게 쓰는 편지

--

[새롭게 생각하기]

5년 후 성공한 내 모습	5년 후 실패한 내 모습

20년 후 성공한 내 모습	20년 후 실패한 내 모습

[새로운 생각 씨 뿌리기]

☞ 지금 당신은 당신이 원하던 꿈을 이루어 살고 있는 20년 후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공한 삶을 사는 당신에게 과거로 여행을 떠나는 친구가 과거의 당신에게 편지를 전해주겠다고 합니다. 단, 기회는 한번뿐입니다. 이 기회에 과거의 당신에게 꼭 해 주고 싶은 말을 전해주시오. 자, 이제부터 과거(쉼터에 있는 현재)의 당신에게 전해줄 편지를 써 봅시다.



♣ 생각나무²⁴⁾ 우리의 초기 고통과 충족되지 못한 어린 시절의 욕구들을 밖으로 표출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이다. 비행청소년의 폭력은 상처받고 외로운 내면 아이의 미분화된 분노를 입증한다. 범죄행위는 바로 어린 시절에 잃어버린 것을 다시 훔쳐 오는 방법이다.

청소년들은 종종 가족들의 표현되지 못한 비밀들을 밖으로 표현하곤 한다. 성적 수치심을 가진 엄마의 엄격한 성적 억압은 딸 아이의 때 이른 성적인 문란함으로 드러날지도 모르며,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외도는 어쩌면 십대 아들에게 의해서 표출될 수도 있다. 외로움과 분노를 가진 부모의 친밀감장애는 자녀가 학교에서 낙제하는 양상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

24) John Bradshaw, 오제은 역(2004).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에서 발췌.

<7회기>

“ 파트너와 마주보기 ”

[생각해보기]

	아니다	그렇다
1. 데이트 비용은 반반 똑같이 내야 한다.		
2. 더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내야 한다.		
3. 남자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남자가 더 많이 내게 한다.		
4. 정신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면 비용분담 비율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예) 맛있는 음식 해주기, 장거리 운전 해주기 등		
5. 소득의 형평성을 따진다. 더 많이 버는 쪽이 더 많이 부담한다. 예) 100만원 버는 사람의 5만원과 30만원 버는 사람의 5만원은 다르다.		
6.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크면 남자가 다 낼 수도 있다.		

♣ 적절한 데이트 비용 분담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의 뿌리 찾기]

♣ 데이트 비용 분담에 대한 내면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25)

<예시>

소라: 여자는 예쁘기만 하면 된다. 예쁜 여자를 여자친구로 두기 위해서는 남자가 돈을 써야 한다.

유리: 나보다 남자친구가 나를 더 좋아한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

소희: 남자친구가 돈을 다 내는 대신 나는 남자친구가 원할 때 언제든지 성관계만 응해주면 된다.

해리: 지금 남자친구를 사귀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사주기 때문이다.

연희: 나에게 돈을 쓰지 않는 것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25) 사람들마다 어떤 한 현상에 대해 생각하는 의미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당연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데이트 비용 분담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롭게 생각하기]

♣ 내가 원하는 남성상은 어떤 사람(이상형)입니까?

♣ 나의 이상형은 어떤 여성상을 원할 것 같습니까?²⁶⁾

[새로운 생각 씨 뿌리기]

♣ 나의 이상형이 원하는 여성상이 되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 생각나무 ♥ 당신이 매력을 느꼈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시오.
27)

- 그녀는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 때문에 그와 결혼했습니다. 후에 그녀는 그가 지배적인 남편이라 싫어합니다.
- 그는 그녀가 매우 친절하고 작아서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녀가 너무 약하고 무기력해서 싫어합니다.
- 그녀는 그가 목표도 있고 수입도 좋아서 그와 결혼했습니다. 후에 그녀는 그가 일만 해서 싫어합니다.
- 그는 그녀가 매우 조용하고 의존적이어서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후에 그는 그녀가 너무 재미없고 집착해서 싫어합니다.
- 그녀는 그가 파티의 중심인물 같은 사람이라 그와 결혼했습니다. 후에 그녀는 그가 집에서 저녁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싫어합니다.
- 그는 그녀가 매우 깔끔하고 체계적이어서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후에 그는 그녀가 너무 강박적이고 지배적이어서 싫어합니다.

26) 나의 이상형은 바로 위에 작성한 사람을 말하며 그 사람이 원할 것 같은 이상형은 지금 현재의 파트너가 나에게 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27) David H. Olson et al. 김덕일 외 공역(2011). 커플체크업에서 발췌.

<8회기>

“ 파트너와 마주보기 2 ”

[생각해 보기]

♣ 데이트 폭력이란 무엇입니까?

<예시>28)

- 일방적인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
- 연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간섭하는 것
- 성적인 수치심이 드는 말, 욕설로 언어폭력을 가하는 것
-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것

[생각의 뿌리찾기]

♣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는 왜 폭력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시>

질투심과 소유욕이 강해서
연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연인의 행동을 통제하고 싶어서
술을 마셔서
문제 해결 방법을 잘 몰라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거나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을 자주 해서
여성보다 남성이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는 왜 폭력을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롭게 생각하기]

28) 위키트리, 2013.05.14. 데이트 성폭력 유형과 대처법.

♣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문 항	아니다	그렇다
첫 데이트는 차안에서 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한다.		
원치 않은 성적 행동 시에는 단호하게 거절한다.		
여러 가지 사사건건 이유를 들어 나를 질책하는 사람은 조심한다.		
SNS, 미니홈피 등 비밀번호를 알아내 수시로 점검하는 사람은 NO!		
폭력과 관련해서 상대방이 용서나 화해를 구하려할 때, 흔들리는 모습은 NO!		
신체적인 상처를 입었다면 사진을 찍거나 병원을 다녀온다.		
협박한 문자메시지는 꼭 저장하여 증거자료로 남겨둔다		

※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예시 소개

[새로운 생각 씨 뿌리기]

♣ 데이트 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 생각나무²⁹⁾ **40%는 폭력 뒤에도 관계 지속한다!**
 황당한 것은 피해자의 40%가 폭력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한다는 점이다. 도대체 왜 그럴까?
 1위. 헤어질 만큼 심하지 않아서(60.0%)
 2위. 나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26.4%)
 3위. 참고 견디면 좋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17.3%)
 4위.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15.5%)
 5위. 좋을 때는 잘해 주니까(11.8%)

29) 허핑턴포스트코리아(2015). '데이트 폭력'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 4에서 발췌.

<9회기>

“ 화 다스리기 ”

[생각해보기]

♣ 나는 언제, 어떤 때 화가 납니까?

♣ 다음의 글에서 나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문 항	아니다	그렇다
1. 난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 나를 방해하지 마!		
2. 나에게 거짓말을 하다니, 그건 못 참아!		
3. 내가 한 만큼, 다른 사람도 해야 해!		
4. 나를 차별하는 것은 참을 수 없어.		
5. 나는 사과할 수 없어. 잘못된 사람이 용서를 빌어야 해		
6. 넌 나를 좋아해야 해		
7. 난 네가 싫어. 그래서 너랑은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생각의 뿌리 찾기]

♣ 내가 화가 나는 이유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원칙은 무엇입니까?

예시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는 절대 같이 하고 싶지 않아.
더 많이 잘못된 사람이 사과를 해야 해.
나만 손해 볼 수는 없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해야 해.

[새롭게 생각하기]

♣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원칙을 소망문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예시>

“아빠가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온화한 사람이기를 원한다.”

⇒ “나는 우리 가족이 단란하게 지내기를 소망한다.”

“친구가 나를 속이지 않기를 원한다.”

⇒ “나는 평생 이어지는 탄탄한 친구관계를 원한다.”

[새로운 생각 씨 뿌리기]

♣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원칙을 소망문으로 바꾸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상대방의 잘못과 나의 잘못에 대한 비율 예시 소개

♣ 생각나무³⁰⁾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의 원천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외에는 그 어떤 상황도 그 누구도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지를 바꾸어 놓을 수 없습니다.

무리한 원칙은 남을 탓하거나 남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생겨납니다. 남을 탓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게다가 남을 바꾸려는 노력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는 화가 나고 좌절하게 됩니다. 소망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내 뜻대로 해주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해도 내가 여유롭게 상대방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는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0) 미상

<10회기>

“ 새로운 삶 찾기 ”

[생각해보기]

폴란드 포로수용소에서 어느 겨울 그는 다른 죄수들과 함께 들판을 가로질러 행진하고 있었다. 그는 얇은 옷에 양말도 못 신고, 신발은 구멍이 나 있었다. 영양실조에 적절한 처치도 못 받아서 그는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워낙 기침이 심해서 쓰러졌다. 감시병이 다가와서 그에게 일어나서 걸으라고 명령했지만, 기침이 심하고 허약해서 대답할 힘조차 없었다. 감시병은 그를 곤봉으로 내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면 죽게 내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죄수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 그는 감시병의 협박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병들고 고통에 차서, 그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일어날 수 있는 기력이 전혀 없었다.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려 걸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갑자기 자신이 폴란드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신에 전쟁이 끝나고 비엔나에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심리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상상되었다. 200여명의 청중들이 그에게 집중하고 있었다. 강의 내용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심리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경험을 하였는지를 말했다. 그 강연은 대단히 감동적이었고, 모든 청중들의 마음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그는 더 이상 폴란드의 들판에서 거의 죽어 가는 모습이 아니라 강의실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었다. 강의 도중에 그는 상상 속의 청중들에게 들판에서 얻어맞아 일어나서 걸을 힘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었던 그 날에 대해서 말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놀랍게도 그는 상상 속의 청중들에게 일어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감시병이 그를 더 때리지 않았고, 그는 처음에 주저했으나 힘을 내서 다시 걸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가 청중들에게 상상 속의 설명을 함에 따라, 실제로 그의 육체는 일어섰고 걸기 시작했다. 그는 작업을 하는 동안도 이 강연을 세세하게 상상하는 것을 계속했고, 마침내 죽음의 수용소까지 다시 행진해서 돌아올 수 있었다. 수십 년이 지난 1990년 수천 마일이 떨어진 미국에서 이러한 강연을 하였고 참석했던 7,000여명의 청중들은 그의 강연이 끝났을 때, 기립 박수를 보냈다.³¹⁾

♣ 위의 글에서 그(빅터 프랭클)가 살아남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31) 고기홍 외(2010). 밀튼에릭슨과 혁신적 상담에서 받침.

[생각의 뿌리 찾기]

♣ 빅터 프랭클처럼 역경 속에서도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까?

♣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생각하기]

♣ 미래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때로 가서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은 수많은 역경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새로운 생각 씨 뿌리기]

♣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수많은 역경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 생각나무³²⁾ 인간은 인생으로부터의 ‘의미와 사명’의 물음을 받고 있는 존재이다.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다할지라도 그렇게 된 데에는 무언가 ‘의미’가 있기에 무언가에 대해서 깨닫고 배우도록 재촉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인생이란 우리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배움’과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며 정신적 성숙과 영성성장의 기회이자 시련의 장인 것이다.

32) 정인석(2008). 삶의 의미를 찾는 역경의 심리학에서 발췌.

연구참가 동의서

이 연구는 안정애착 형성과 미충족육구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의 참여로 우려되는 어떠한 피해나 불이익이 가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이 연구를 통해 알게 된 개인의 정보는 참가자의 동의 없이 외부로의 유출이나 공개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을 읽었으며, 언제든지 자유롭게 연구에 대한 참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한 참가는 자발적이며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서 명: (인)

날 짜: 2016년 월 일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족학 전공

박사수료 고민좌

<부록 3> 사전·사후 설문지 - 자아존중감

· 이름: (세) · 작성일: 년 월 일

문 항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중간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모님, 선생님, 친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편이다.					
2. 나의 미래는 밝은 편이며,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3. 대체로 나는 현재의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4. 이제까지 나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5. 나 자신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6. 나는 남과 비교해 보아 좋은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7. 나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많다.					
8. 가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9. 나는 내가 미워질 때가 있다.					
10. 나는 나 자신이 잘못된 아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					

<부록 4>사전·사후 설문지 - 성인애착

· 이름: (세) · 작성일: 년 월 일

번호	문항 내용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중간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2	때로 다른 사람들은 분명한 이유 없이 나에게 대한 그들의 감정을 바꾸곤 한다.					
3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은 비교적 쉽다.					
4	다른 사람들이 내게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편하다.					
5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 한다.					
6	다른 사람들은 내가 화나 있을 때만 나에게 주목하는 것 같다.					
7	다른 사람들은 나와 내 욕구를 잘 이해한다.					
8	버림받을까봐 걱정하는 일은 별로 없다.					
9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가지에 대해 의논한다.					
10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만큼, 그들도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봐 걱정한다.					
11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 속 깊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12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칠까봐 걱정된다.					
13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얻고자 하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주지 않을 때는 화가 난다.					
14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표현 했을 때, 그들이 나에게 대해 같은 감정이 아닐까봐 걱정된다.					
15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까봐 자주 걱정한다.					
16	다른 사람들에게 숙내를 털어 놓는 것이 편하지 않다.					
17	다른 사람들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만든다.					
18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19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					
20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갖는 호감만큼 그들도 내게 강한 호감을 가지기를 자주 원한다.					

21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 대해 걱정이 많다.				
22	매우 가까워지고 싶은 나의 욕구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서 멀어지기도 한다.				
23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봐 걱정하는 일은 거의 없다.				
24	다른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만큼 나와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다.				
25	다른 사람들이 잠시 떠나 있으면 그들이 나 아닌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게 될까봐 걱정한다.				
26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렵다.				
27	다른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매우 편하다.				
28	다른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29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편하게 느껴진다.				
30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31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치 않을까봐 자주 걱정한다.				
32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은 어렵지 않다.				
33	내 문제나 걱정거리를 보통 다른 사람들과 의논한다.				
34	사적인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에 대해 편안하게 느낀다.				
35	다른 사람들이 내게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안하다.				
36	일단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좋아하지 않을까봐 두렵다.				